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로서의 '함께살기(living together)'

– 비혼 청년 여성들의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을 중심으로 –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신 유 진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로서의 '함께살기(living together)'

– 비혼 청년 여성들의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정 현 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신 유 진

신유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월

위 원 장 배 은 경 (인)

부위원장 김 두 아 (인)

위 원 정 현 주 (인)

초 록

본 연구는 20, 30 대 비혼여성들이 근대적 공 · 사 구분과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획되는 도시 · 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실천들은 도시 · 주거환경에 어떤 함의를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정책 과정이나 주류 담론 속에서 '비혼'이 종종 '혼자 사는 것', 혹은 '임시의 것'으로만 여겨지는 세태에서 출발했다. 즉, 이 연구는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 실천을 통해 '비혼'의 '독거 아님'과 '지속적임'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시도이다.

2010 년대 중반 재부상한 페미니즘의 물결과 함께 '비혼'은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수많은 청년 여성들의 삶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공간을 가족-이성애-재생산의 제도에 의해 규범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인 규범적 시공간성은 사회 ·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 쉬운 비혼 청년 여성들의 대안적 집 꾸리기(doing home)를 한층 더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작동한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비혼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따로 또 함께 살아가기를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이때 함께살기는 ① 생존을 도모하는 여성들의 궁여지책, ② 선택 가능한 결혼제도 외부를 상상 가능하게 만들며 그 영역을 늘려 나가는 실천, ③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온 도시 · 주거환경에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시키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의 실천으로, 어떤 특정한 주거 형태나 공동체에 수렴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혼하지 않은 삶을 임시의 한정적인 형태로 여기는 제도, 그리고 이성애 가족을 중심으로 직조된 도시 · 주거환경에서 비혼여성들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처음 얻게 되는 공간은 주로 원룸, 고시원, 혹은 임의

의 타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기숙사 등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비혼여성들은 '방 같음', 다시 말해 '집 같지 않음'을 감각하게 된다. 가족과 함께 살던 '규범적 집'에서 벗어나 독립된, 그러나 '방 같은' 공간을 얻은 비혼여성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통해 '집 같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주로 함께살기를 통해 감각되는 '집 같음'은, 자신의 생활을 한정적으로 축소시키지 않는 보다 나은 공간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동등한 개인으로 존중하며 또한 역할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함께 삶으로써 보다 나은 주거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함께살기는 결코 이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상징적 차원에서 규범적 시공간성은 비혼여성들이 실천하고 있는 함께살기를 끊임없이 주변적인 것으로 내몰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작동한다. 가족 생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공간들도 이들의 함께살기를 적절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다층적인 장벽들과 부딪히고 협상하게 된다. 그러나 비혼여성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함께살기를 통해 '집'의 물리적 구조와 그 속의 내용물들을 재탐색해 나간다. 이 같은 실천은 개인적 실천임과 동시에 또한 다층적 장벽들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존 규범에 균열을 만들어 내는 실천이다. 나아가 이러한 균열과 대안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정치화하고자 하는 다각도의 노력은 페미니스트 대안적 '집 꾸리기'를 상상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공간적으로 뒷받침하는 물리적 공간을 구축해나갈 수 있게 하는 역동이다.

주요어 : 비혼, 함께살기(living together), 청년 여성, 집 꾸리기 (doing home),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
학 번 : 2018-28020

목 차

초 록 i
목 차 ii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선행연구 5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9

제 2 장 이론적 틀 16
제 1 절 근대적 주거와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 운동 16
1. 서구 근대 주거와 페미니스트 주거 운동의 역사 16
2. 한국 주거의 근대화와 주거규범 26
1) 한국 주거의 근대화 26
2) 한국의 주거 규범: 아파트, 분양 28
제 2 절 '집 꾸리기' 의 의미와 규범 34
1. '집 꾸리기'와 '집' 34
1) '집'의 의미 34
2) 집 꾸리기(doing home) 35
2. 규범적 시공간성 36
3. 대안적 친밀공동체와 제 3 의 장소 40
제 3 절 비혼 '들' : 규범적 시공간성을 거슬러 함께살기 43
1. 비혼'들', 그리고 비혼이 폭로하는 것 43
2. 함께살기: 규범적 시공간성을 거슬러 집 꾸리기 48

제 3 장 '자기만의 방'을 넘어 함께살기 50
제 1 절 주거 독립과 임시적 공간에서의 '밀려남' 50
1.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50
2. 주거 공간에서의 밀려남: '방 같은' 주거 경험 52
3. '집 다운' 집 열망하기 57
제 2 절 함께살기의 시작 61
1. 함께살기 발견하기 62
1) 우연한 발견 62
2) 적극적 시도 65
2. 공간이 만드는 공동체 66

3. 함께살기와 '집 다운 집' 69
1)일상적 교류 69
2)초대의 문턱이 낮은 공간 71
3)안전 비용이 적은 공간 71
4)재생산 노동의 효율 73
제 3 절 함께살기의 어려움 74
1. 설명하기 어려운 함께살기 75
2. 적절한 주거 공간 구하기의 어려움 78
3. 생활 양식과 맞지 않는 공간과 협상하기 79
1)가족의 공간 79
2)'1 인', '청년', '공동체' 임대 주택 84
4. 주거비 지원 받기의 어려움 85

제 4 장 '집'의 의미 재구성하기 88
제 1 절 함께살기의 다양성과 재조정 88
1. 다양한 거리와 구조의 친밀성 88
1)또 다른 가족, 혹은 가족은 아닌 어떤 것 89
2)대안적 친밀공동체 90
3)전략적 주거 공동체 91
2. '집'의 재조정 93
제 2 절 가족 공간과 실 기능의 재해석 96
1. 안방의 정치학 96
2. 거실 : 커뮤니티 공간 혹은 제 3 의 장소 98
3. 공간의 재해석과 변용 100
제 3 절 다시 만드는 '집' 102
1. 공간의 재구성 102
2. 구성원 관계의 재사유 104
3. '따로 또 함께' 살아가기를 모색하기 105

제 5 장 결론 108
1. 요약 108
2. 의의와 한계 110

Abstract 118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징 (주 참여자) 10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징 (보조 참여자) 11
표 3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 39
표 4 연구 참여자들에게 '방 같은' 것과 대비되는 '집 다운' 것의 의미 . 5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참여자가 그린 주거 공간 (민영, 소현) 15
그림 2 페이어스가 제안한 근린 단위의 다이어그램 18
그림 3 Sven Markelius 와 Alva Myrdal 의 집합 주거 20
그림 4 Nina West House 21
그림 5 Captain Clarence Eldridge House, Hyannis, Massachusetts, Barry Korobkin, 1981, 평면도 23
그림 6 두 유닛의 개폐 여부를 슬라이딩 도어로 조절할 수 있는 벙갈로, Bowen Cour 24
그림 7 1930 년대 가가(假家)의 평면(왼쪽)과 살림집에 연결된 상점(오른쪽) 26
그림 8 거실중심형 평면의 예시 27
그림 9 지역별 주택수(2017), 지역별 주택수 증가(2005~2017) 30
그림 10 서울지역 소형 저가 주택 멸실, 공급 전망 31
그림 11 서울시 가구주 성별에 따른 주거 점유 형태 33
그림 12 서울시 가구주 성별에 따른 주거 형태 34
그림 13 SH 청신호 추진 배경 40
그림 14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 늘어나는 비혼여성공동체" 기사의 댓글 중 일부 45
그림 15 아파트 평면 예시 80
그림 16 아파트 평면 예시 97
그림 17 공덕동하우스 심상 지도, <수민> 10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본 연구는 향후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지속가능한 생애 전망으로 비혼을 받아들이고 있는 비혼여성들의 다양한 함께살기(living together)[1] 실천들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90 년대 '미혼'과 구분되는 용어로 '비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된 이래 비혼 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호명되어 왔다.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비혼이 이해되고 말해지는 방식도 다양했는데, 이러한 비혼 담론은 2010 년 중반 이후로 또 한 번 새 물결을 맞이한다. '영영 페미' 등으로 일컬어지는 페미니스트 주체들이 탄생하며 비혼이 강력한 정치적 의제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 것이다. '비혼'은 지금/여기에서 결혼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청년 여성들의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움직임이며, 또한 정치적 선언으로서 담론장을 형성하고 있다.

경제 불평등과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배경에서, 결혼제도 안으로 포섭되기조차 거부하거나 결혼하지 않길 택한 비혼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끊임없는 불안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로가 서로의 지지 기반이 되어주자는 취지의 '따로 또 함께'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비혼여성들의 네트워크가 다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주거, 경제, 사회적 고민을 나누며 비혼 주체로서 살아갈 방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부하고 토론하며 공동체 내외부로

[1] 2장 2절 참조. 이 같은 함께살기는 ① 규범적 시공간성의 바깥에서 ②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느슨하거나 촘촘하게 모여 ③ 다종다양한 친밀성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 년 발간된, 결혼하지 않은 여성 둘이 함께 아파트를 얻어 살게 된 이야기가 담긴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김하나, 황선우, 2019)』가 끌고 있는 선풍적인 인기는 경제적 불안감이 공유되는 가운데 높아지고 있는 대안적 삶, 대안적 집 꾸리기에 대한 비혼여성들의 관심을 실감하게 한다.

비혼여성들이 적절한 주거 공간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배경은 오랫동안 도시 중산층 가족생활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온 주거규범 위에도 있다. 한국의 주거규범(housing norms)[2] 은 오랫동안 '아파트', '분양', '중산층'을 골자로 이루어져 왔다(하성규, 2000). 1960 년대 서울의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다량 공급을 주도했다. 주택 수요 충족의 수단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근대화의 지표로서도 여겨졌던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은 차후 아파트가 한국 도시 중산층 계급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이내 보편적인 주거규범 및 주거 형태로 자리잡게 되는 배경이 된다(Gelezeau, 2010[1999]; 하성규, 2000). 정부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도록 부추겼으며, 주택을 가지지 못한 이들과 가진 이들의 금융 계급의 격차를 야기한다.

반면 정부는 2000 년대 중반부터 급증하는 1 인, 혹은 2 인 가구에 대한 해법으로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건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른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한다.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으나, 투자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주택 공급은 소형 주

[2] 하성규(2000)는 주택형태(types), 주택점유방식(tenure), 주택재고(양과 질), 주거권(housing rights)의 관점에서 한국의 주거규범에 접근하여 한국주거규범의 특징을 주거 여과 과정(filtering process) 의존적 주택 공급, 중산층 이상이 선호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의 확대, 분양주택을 임대보다 중점으로 하는 공급 패턴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택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켰다. 1 인 가구를 위한 양질의 주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월세와 자가, 원룸과 아파트로 상징되는 불안정성과 안정성, 잠시 머물 곳과 오래 거주할 곳이라는 속성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하위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이들은 상위의 주거 형태로, 이른바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길 열망하는 구조가 직조된다.

이러한 도시 · 주거환경 속에서, 가족-이성애-재생산의 제도에 의해 시간/공간을 규범적으로 구성하고 배치하는 규범적 시공간성은 비혼여성들이 쉽게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하는 배경이 된다. 이때 비혼여성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이들인지는 제대로 탐구되지 않은 채 주로 '1 인', '청년' 담론, 그리고 '안전' 문제와 뒤섞여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혼여성들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집 꾸리기'는 쉽게 재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되기 어려운 것'으로 위치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각종 정책을 통해 규범 바깥의 이들을 '정상성' 안으로 재편입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개별 주거 공간의 설계부터 주거의 공급, 제도적 지원과 이를 통한 도시의 직조방식에 이르기까지 재생산적 시간성은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회 · 경제 · 제도 · 상징적 배경 속에서,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는 ①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여성들의 살 길 찾기 ② 선택 가능한 결혼제도 밖의 외부를 상상 가능하게 하고 늘려 나가는 실천 ③ 가족생활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온 도시구조, 주거환경에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시키는 다층적인 차원에서 오버랩 되며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의 비혼여성들은 어떤 주체들이며, 어떤 배경에서 이들의 함께살기가 일어나고 있는가? 둘째, 규범적 시공간성은 비혼여성들이 '집'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비혼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협상과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고 있나? 셋째, 비혼

여성들은 함께살기를 통해 어떤 집 꾸리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들이 도시 조직과 주거 공간들에 어떤 균열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 균열의 효과는 무엇이며, 어떤 함의를 갖고 있나?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장의 다음 절에서부터는 '비혼'과 '주거', '페미니스트 주거'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 방법과 연구 참여자들을 소개한다. 2 장에서는 '비혼'과 '근대적 주거', '페미니스트 대안주거'를 주 골자로 하는 이 논문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3 장과 4 장은 2 장에서 제시한 이론과 개념들을 바탕으로 비혼여성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서사적 순서를 따라가며 본문을 배치했다. 3 장에서 비혼여성들이 원가족으로부터 공간적 독립을 하는 시점부터 함께살기를 발견하고 실천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을 조명하며 이들이 어떻게 거쳐온 공간들을 의미화하며 다른 방식으로 주거공간을 그리게 되는지 따라갈 것이다.

4 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실천들을 통해 물리적 공간, 그리고 친밀성의 장소로서의 '집(home)'의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먼저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친밀성이 어떻게 변형되고 다르게 이해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가족 공간으로 계획된 주거 공간들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고, 변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런 다음 어떻게 지금 있는 물리적 구조들과 친밀성의 실천들을 넘어 다른 방식의 '집'을 만들 것을 상상하는지 전망해본다. 5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제언을 다루고, 6 장에서 연구 결과들을 아우르고 의의와 한계, 전망을 내놓으며 마무리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비혼여성의 집 꾸리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비혼여성과 주거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여성가구주 가구', '1 인가구', '공동체 주택' 등에 대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조금씩 서로 중첩되는 의미로서 해당 범주들을 다룬다.

우선 장기적 비혼여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김순남(2016)은 '결혼을 중심으로 장기적 삶을 계획하지 않는 이성애 비혼여성'로 연구 대상을 범주화하여 '비혼'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구성되는가를 젠더와 친밀성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송제숙 (2016[2014]) 은 20 대 후반에서 30 대 후반의 비혼여성들을 다루고 있는데, 민주화 이후 삶을 향유해야 한다는 정동을 공유하는 비혼여성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대표되는 불안한 주거상황 등을 어떻게 해쳐나가는지를 통해 이들의 삶을 조명한다. 비혼여성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거 점유 형태로서 임대주택에 주목했다는 점에 있어 본 연구는 일정 부분 송제숙의 논의를 이어 가고자 한다. 그러나 송제숙은 '1 인가구'인, 혹은 가족과 함께 살지만 공간적 독립을 바라는 비혼여성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와 다른 지점이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2010 년 중반 페미니즘의 재부상을 기점으로 확산된 비혼 담론의 자장 안에 위치하는 본 연구와 시기적으로 구분된다.

청년 여성의 주거 불안에 대한 연구도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백미록(2015)은 서울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20~30 대 여성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비혼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권민지(2018)는 주거불안계급의 개념을 이용해 20 대 초반에서 30 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분석하며, 이들이 어떻게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의 양상과 함께 이들이 구현하고 있는 공간 전략을 조명한다. 이들 연구는 대안적 실천으로서의 함께살기를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고 있기도 하지만 불안한 비혼여성들의 주거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의 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황정임 · 김은지(2014)는 한부모가구 및 비혼 1 인가구를 중심으로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여성가구주가구가 안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요구를 최저주거기준에 '안전기준' 포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여성안심주택의 확대를 통해 반영할 것을 주장한다.

1 인가구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동체 주거 형태로 대표되는 대안적 주거 양식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 최서아(2018)는 다양한 요인으로 1 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그 원인으로 비혼과 만혼 현상, 기러기 가족의 증가와 고령화 등을 꼽고, 늘어나는 1, 2 인 가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셰어하우스를 연구하고 있다. 권은경(2015)은 특히 "여성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비혼여성 전용 아파트 계획안"을 제시하며 증가하는 비혼여성들의 수요에 맞추어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지점이 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자 한 비혼여성 1 인가구는 "법적으로 무배우자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권은경, 2015: 7)"로 정의하고 있다[3]. 결혼에 대한 인식과 실제 결혼하

[3] "비혼여성의 경우 장기적으로 머무를 공간이 아닌 임대의 성격을 갖는 가구 일체형 주거 공간의 제안이 요구된다.", "결혼관이 다양해지고 독신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회사 생활과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일 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현재 거주하는 장소를 결혼 전에 머무르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권은경, 2015: 56)

게 될 지의 여부가 특히나 불분명한 상황인 점[4], 더불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혼'은 지속 가능한 생애 양식으로서의 측면을 가졌음을 고려했을 때 이 연구는 '비혼'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상당 부분 참조할 만한 지점이 있음에도, '장기적으로 비혼 생애를 계획하고 있는' 비혼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 본 연구와는 방향이 구분된다.

여성 친화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안전'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연구도 있다. 김재민 등(2012)은 여성 1 인가구의 증가와 여성들의 주거공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도입해 공공원룸주택을 설계 및 건축할 방법을 제안한다.

강미선, 장미현(2009)은 비혼여성들에 주목한 연구는 아니지만, 가족 개념의 대안에 기반해 주거의 '돌봄 공유'의 물리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해 거시적인 주거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가구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비혼여성들의 고민들과 공유되는 지점이 있다.

---

[4] 비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 '고용 불안정' 등 다층적이고 다양한 요인을 찾을 수 있으나, 한국 여성 민우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시대는 변화하지만 집안일이나 육아를 여성의 것으로 여기는 등 남성들의 문화지체현상이 심각하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로 꼽고 있었다. 실제로 전통적인 남성 생계 부양 모델과 다르게 맞벌이나 여성 생계 부양 가정에서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길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14, 생활시간 조사). 서울시의 비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8%가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못 만나서'로 답하였으며, 24.4%의 여성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일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할 자신이 없어서, 배우자나 아이에게 구속되기 싫어서, 현재 결혼제도가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등을 이유로 꼽았다(이성은, 2015).

1 인가구와 청년, 그리고 비혼 인구가 동일한 개념이 아닌 현실에서 이들 연구를 모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 있는 연구로 보기는 어려우나 간혹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은 '1 인가구', '청년', '비혼'이라는 개념이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기에 발생된다. 위 연구들에서 '1 인가구'는 때로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가구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혼자 거주하는 사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한다. '비혼' 여성이라는 개념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여성들을 의미하거나, 미래에 결혼 계획이 없는 여성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혼 1 인가구'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말하자면 1 인가구는 쉽게 비혼 인구를 대표하고, 이 같은 1 인가구의 문제는 쉽게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와 등치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와 대안적 공동체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주거 담론으로 쉽게 흡수되기도 한다. 그러나 1 인가구의 구성원들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가구 구성원의 수를 이유로 쉽게 동질 집단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 가구 구성원의 수보다 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주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주체들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30 대를 '청년'으로 규정해 동일한 생애 과정을 겪어갈 집단으로 상정하며 구분하는 것 또한 이들이 어떤 생애를 구성해 나갈 이들인지는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1 인가구'와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포괄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생애 양식으로서 비혼을 실천하고 있는 여성들의, 함께살기와 혼자 살기를 유동하며 나타나는 주거 전략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개별 비혼여성들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함께살기를 실천하며 '집'의 의미에 내재된 물리적 주거 공간과 그 안에 담기는 친밀성의 의미를 재조직하고 있는지를 유동하는 주거 실천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5]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와 이에 따른 생애과정(life course)의 시공간적 구획을 규범화 하는 규범적 시공간성[6] 아래 비혼여성의 주거는 주로 혼자 사는, 임시적 형태의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비혼여성들 중에서는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살기를 도모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이러한 함께살기는 또한 고정불변하는 형태로 존재하기보다 끊임없이 제도, 주거 환경, 사회 규범 등과 갈등을 겪고 협상, 재협상을 거치며 유동하는 과정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임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면서도 현재 '혼자 사는 상태'가 아닌, 비혼이라는 공통의 생애 전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비혼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거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모집하거나,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 등을 통해 모집했다. 심층면접은 2018 년 10 월 시행한 파일럿 인터뷰 1 회를 바탕으로 2019 년 9 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해 2019 년 10 월 17 일부터 2019 년 12 월 23 일까지 총 11 명을 대상으로 7 회에 걸쳐 진행했다. 심층면접은 보통 1 대 1 로 진행했지만 참여자의 공동 거

[5] 본 연구는 원래 결혼 제도 밖에서 '대안적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연구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 연구 참여자들과 가구 구성원들의 관계가 '대안적 가족'이라 할 만한 개념으로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의 주거 실천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협상과 재협상을 거치며 유동하는 것을 발견하여, 특정 형태의 주거나 공동체가 아닌, '함께살기'라는 행위 자체에 보다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6] 본 논문의 2장 2절 참조. 정민우, 이나영(2011).

주자들, 혹은 참여자의 집을 거점으로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포커스 그룹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원가족으로부터의 주거 독립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거공간에 관한 것들을 질문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으며,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2019 년 모집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비혼여성으로 이루어진 주 참여자들과 남성 보조 참여자 한 명으로 구성된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징 (주 참여자)

이름 (가명)	만 나이	가구 유형	주거 상황	주거 비용[a]	직업	월 소득 (만 원)
민영	26	4 인	쓰리룸 월세	40	정규직 기술직	180~200
다은	26	2 인	쓰리룸 월세	35	정규직 웹디자이너	200 초중반
지원	28	2 인	쓰리룸 월세	2000/ 75	파트타임 사무직	80~120
은주	34	3 인	쓰리룸 아파트 자가	자가 9 억 정도	정규직, 대학원생	500~600
보라	31	3 인	쓰리룸 월세	7500/ 87.5	프리랜서 집필노동자	약 100
정은	27	2 인	투룸 월세	3000/ 70	정규직 연구원	약 300
현정	25	2 인	투룸 월세	3000/ 70	대학생/ 파트 타임	약 100
소현	29	4 인	쓰리룸 공동체 주택	전세/ 월 분담금 26 만원	협동조합 대표	약 160
수민	31	3.5 인[b]	투룸	1000/ 50 네 명이 분담	프리랜서	약 200
주영	23	3.5 인[b]	투룸	1000/ 50 네 명이 분담	무직	없음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징 (보조 참여자)

이름 (가명)	만 나이	가구 유형	주거 상황	주거 비용[a]	직업	월 소득 (만 원)
성준	29	2 인	쓰리룸	자가 (어머니와 거주)	대학생	없음

표 1, 2 공통, a: 주거 비용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월세)로 나타냈으며, 보증금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월세만 나타낸 후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개별 설명 부분에서 후술했다. (단위: 만 원)

b: 세 명이 상주하고, 한 명은 3~4 일 정도를 해당 집에 머무는 형태. 3.5 인이라는 표현은 연구 참여자의 표현을 따른 것.

대학에 가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며 원가족과 따로 살게 된 민영은, 하숙, 원룸, 투룸 등을 전전하다 현재는 임시적으로 대학 동기와 그의 남편, 오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민영은 월세 형태로 주거비를 내며 생활하고 있었지만 집은 동거인 중 한 명이 전세로 얻은 집이었다. 민영은 지금의 생활이 독립적인 생활도 보장되지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같이 저녁 먹을 사람이 있어서 만족스럽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고 싶다고 말한다. 민영은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비혼여성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다은은 연예인 팬덤 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으며, 처음에는 함께 팬덤 활동을 하던 친구들과 투룸에서 거주했지만 갈등으로 인해 다시 이사하게 되었다. 고시원에서 머물던 민영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시원을 나왔고,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은 고시원에 비해서 개인 공간이 보장되고 안전하다는 느낌에 훨씬 만족스럽지만,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가능한한 혼자서 살고 싶다고 다은은 이야기한다.

지원은 상경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처음에는 셰어하우스에 살기를 선택했다. 그러나 한 집에 너무 많은 성인들이 모여 사는 것에 '지치'고 '피로'함을 느껴 이사하게 된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했던 지원이지만, 개인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로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한다. 지원은 셰어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셰어하우스에서 나와 쓰리 룸에서 거주하다, 한 명의 구성원이 본가로 돌아가게 되어 지금은 다른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은주는 함께 일 하던 두 명의 대학 후배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해 오다가 지금은 함께 마련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20 대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힘들었다고 말하는 은주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가능하면 오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은주는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들을 또다른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은주는 자신의 아파트를 '아지트'로 여겨, 주변의 혼자 사는 다른 동료들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로도 거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보라는 폴리아모리(polyamory)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셋은 각자 다른 이유로 원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어 얼마간 따로 지내다, 우연한 기회에 비슷한 지리적 위치에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다.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자금을 모아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이들은, 처음에는 함께하는 생활이 상상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익숙하고 편해져 이제는 서로를 식구처럼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도 주거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었다.

정은과 현정은 투룸에서 각자의 방을 쓰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인터뷰는 진행되었다. 둘은 다양한 방식으

로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비혼 퀴어 · 여성 모임 '반달[7]'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룸메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오래도록 생각했던 정은은 마침 현정과 타이밍과 요구가 맞아 떨어져 함께 살게 되었다. 이들의 집은 '반달'의 소모임 장소로도 종종 사용되고 있었다. 정은은 원래 이 공간을 '반달'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었으나 거실이 충분히 넓지 않아 그러지 못해 아쉬워했다.

소현은 '모두들' 청년주거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소현은 비건, 비혼, 페미니스트를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비비페 하우스[8])에 처음으로 입주하며 모두들과 연이 닿았다. 그러나 그 곳이 사라진 후 현재는 모두들의 다른 공동체 주택에 입주해 있었다. 소현은 함께 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며 활동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꼭 거실을 공유해야만 함께 사는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함께살기의 감각을 공유할 수 있을 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의 멤버 중 세 명인 수민, 주영, 성준은 함께 공덕동하우스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들 중 수민, 주영은 공덕동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고, 성준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종종 공덕동하우스에 들른다고 밝혔다. 수민, 주영, 성준은 공덕동하우스를 거점으로, 거주민과 비 거주민을 포함하는 10 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를 꾸리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구성원들이 모두 함

---

[7] "페미니즘이라는 지향을 공유하는 비혼 청년들이 모여 주거/생활공동체 혹은 그보다 느슨한 네트워크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고민하는 모임" 출처: "돈없고 집없고 가족없는 여성들의 '함께/살기' 전략",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https://blogs.ildaro.com/3571

[8] 백희림, "비혼, 비건, 페미... 우리가 한 지붕 아래 뭉치는 이유",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51226&fbclid=IwAR17rD5AwvhuRKmuV5XYjkzxQwxh9ULbC41S-26U8R2yijLj4B51y_KSeLo#cb

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수민은 이 공간이 생긴 덕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커뮤니티가 좀 더 긴밀한 형태의 공동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현재 공덕동하우스에는 수민, 주영을 포함한 3.5 명이 거주한다고 수민은 표현했는데, 세 명이 항상 거주하고 한 명은 일주일에 세 네 번 정도 머물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들은 곧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공동체 주택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함께살기와 혼자 살기를 오가며 다양한 집 꾸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유동성은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주거의 물리적 공간, 구성원들의 친밀성, 비혼 상태에 대한 주변에서의 곱지 않은 시선과 같은 요소들과 갈등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은 고졸 취업자부터 대학생, 학사, 석사, 대학원 재학생까지 비교적 다양했으며, 고용 형태는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서부터 전문직 정규직인 경우도 있었다. 주거 점유 형태의 경우에는 월세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세와 자가가 각각 한 경우 있었다. 주거 형태는 투룸, 쓰리룸의 다세대 혹은 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경우 뿐이었다. 가구 유형은 2 인, 3 인, 4 인으로 다양했으며 비교적 고른 비율로 있었다.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원래 알던 지인과 함께 지내는 경우와 셰어하우스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경우, 그리고 공동체 주거 관련 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에서 임차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연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의 비율은 많지 않았으며, 인터뷰 당시에는 단 셋 뿐이었다. 자발적으로 이성애 연애 각본과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연애와 멀어진 경우도 있었으나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다. 또한 이들은 '비혼'을 결혼 제도에 반대하는 정치적 선언으

로, 혹은 결혼 생활이 맞지 않는 개인의 선택으로, 혹은 앞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애 양식 등으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상태가 단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생애전망으로 보고 있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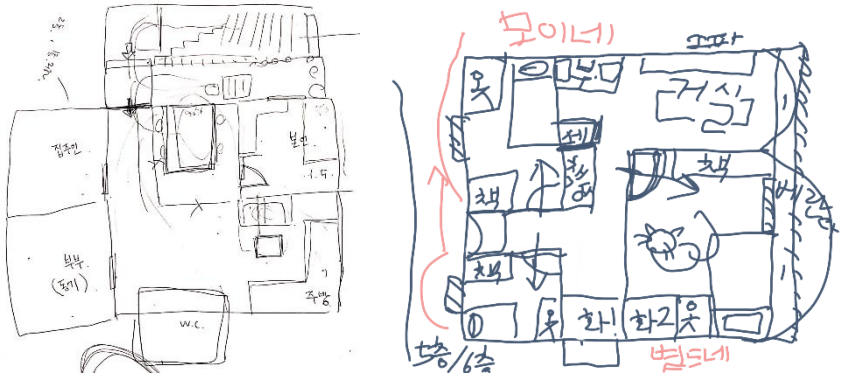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참여자가 그린 주거 공간 (민영, 소현)

심층면접은 주로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지나 회사 주변 등의 조용한 공간, 혹은 연구 참여자들의 집에서 진행되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만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좀 더 자세한 주거 공간에 대한 정보와 공간 이용 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집의 내부 구조를 간략히 그리고 사용 방식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구두 질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방의 분배나 이용 방식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1).

근대적 주거, 비혼,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 등에 관한 문헌 연구도 진행했으며, 그 밖에도 온라인과 간행물로 공개된 문헌 자료, 간담회 또는 포럼, 토크쇼 자료집 등 또한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 2 장 이론적 틀

이 장에서는 비혼여성들의 다양한 주거 실천들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근대적 주거와 페미니스트 대안주거운동, '집 꾸리기(doing home)'에 관한 논의, 그리고 지금/여기의 비혼의 의미와 '함께살기(living together)'에 대해 다룬다.

제 1 절 근대적 주거와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 운동

1. 서구 근대 주거와 페미니스트 주거 운동의 역사

페미니스트 건축가와 지리학자들은 근대적 가족 질서가 주거 공간과 도시 조직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가를 밝혀왔으며, 그에 대응하는 페미니스트 주거 운동의 역사를 정리해왔다.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 2010[1999])은 근대적 도시·주거에 대해 "개별 가정의 내적 구획 뿐만 아니라 도시 구획, 도시 교통 네트워크와 시간표는, 집안일과 보육을 담당하는 아내를 둔, 9 시에서 5 시까지 일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성 생계부양자를 가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성-사적 영역-가정, 남성-공적 영역-일터'라고 하는 근대적 이분법에 기초한 도시 조직은 여성들이 교외의 가정생활 환경이라는 덫에 빠지게 했고, 이 같은 도시 구조는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을 병행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며 핵가족에 포섭되지 않은 개인들을 주변화는 방식으로 작동한다(McDowell, 1983; Hayden, 1980; Saegart, 1980). 페미니스트 건축이론가이자 도시계획가인 헤이든(Dolores Hayden)은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1984)』에서 미 교외의 핵가족 모델을 뒷받침해주는 도시조직

과 주거공간이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대안적 페미니스트 공동체 주거들을 제시했다(정현주, 2016).

19 세기에서 20 세기 초에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양한 거주의 형태를 상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비록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거나 실현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시도들은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비판을 건축 형태라는 물리적인 표현으로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받는다(신혜경, 1995). 그 중에서도 오웬(Owen), 푸리에(Fourier)로 대표되는 유토피안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된 몇몇 모델들의 공간 요소들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혜경, 1995). 이들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가사노동과 탁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주장했으며, 고립된 1 가정 1 주택 정책에 반대했다. 영국에서 오웬은 공동 부엌과 식당, 육아 시설을 포함하는 이상적 커뮤니티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1825 년에는 건축과 휘트웰(S. Whitwell)과 협업해 '파라렐로그램(Pararellogram)'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상커뮤니티 모델을 실현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된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으나, 이는 미국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가진 초기의 집합주거 디자인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여성해방의 정도는 한 사회의 일반적인 해방의 척도"라 여겼던 푸리에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주거공간이 여성의 지위 개선에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했다. 푸리에도 팔란스트리(phalanstery), 통합주거(unitary dwelling) 등의 집합 주거 커뮤니티 계획에서 오웬과 마찬가지로 공동 작업과 공동 육아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페이어스(Melusina Pierce)를 비롯한 당대의 유물론적 페미니스트들은 협동가사관리서비스를 주창했는데, 이들은 개인 사유재산과 개별 주거시스템을 지지했으며, 독립된 주거를 그대로 둔 채 가사관리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즉, 여성들의 통제 하에 가사일을 사

회화하여, 잘 정리되고 좋은 장비를 갖춘 근린 협동가사간리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가사일을 담당할 것과, 그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어스는 36 개의 부엌이 없는 집들과 하나의 큰 협동가사관리 센터로 이루어진 근린 단위를 기획해 냈으며, 존슨(Paul Johnson) 등은 페이어스의 이러한 기획을 다이어그램으로 구현해 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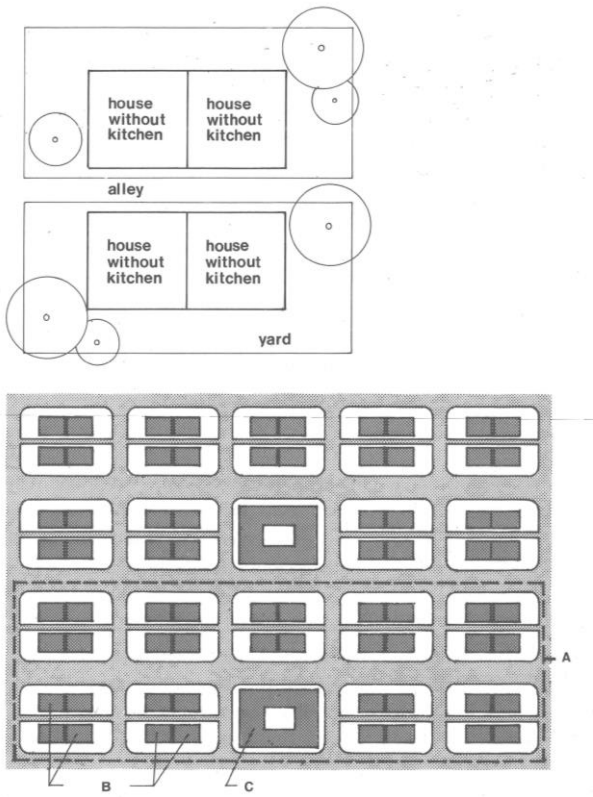


그림 2 페이어스가 제안한 근린 단위의 다이어그램(Paul Johnshon). 이 단위는 협동 가사관리 근린 단위 (A), 36개의 부엌 없는 집(B), 근린 협동가사관리센터 (C). (자료: Hayden, 1982)

이런 시도들은 자본 부족의 문제, 남편들이 가사일을 무상의 것으로 여기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잘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1890 년대 미국 페미니스트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에 의해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아파트먼트의 건설이 제안되면서 제법 인기있는 아이디어가 된다. 길먼은 일 하는 여성들이 주간 탁아소와 음식 조리 배달 서비스가 있어야만 임금노동이 끝난 후 집에서 가정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Hayden, 1984: 89).

시간이 흘러, 전쟁이라는 사건과 함께 일어난 인구구조의 대이동, 산업의 성별 구조 변화를 지나 전쟁 이후 풍요로워진 미국의 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들을 위해 'home, sweet home'을 꾸리는 '집안의 천사'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여성들은 스스로 그들의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디자인에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시도들 중 일부는 앞서 본 페이어스를 비롯한 유물론적 페미니스트들의 작업들과 길먼의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길먼의 제안을 실제로 구현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로 스웨덴의 한 집합 주거 사례를 들 수 있다. Alva Mydral 와 건축가 Sven Markelius 가 협업해 지은 이 실험적 집합주거 시스템은, 1 층에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오피스 시설, 식당과 보육시설을 갖추었으며, 1 층의 식당에서 조리한 음식을 '푸드 리프트(food lift)'를 통해 각각의 유닛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그림 3). 라이프(Life)지는 이 집합 주거를 전쟁 기간 동안 숙달된 커리어를 그만두지 않고 지속하고 싶은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적절한 주거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천했으며, 이 집합 주거는 꾸준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늘 공실이 모자랄 정도였다. 유럽 사회에서는 이 같은 집합 주거 양식이 보다 보편적으로 자리잡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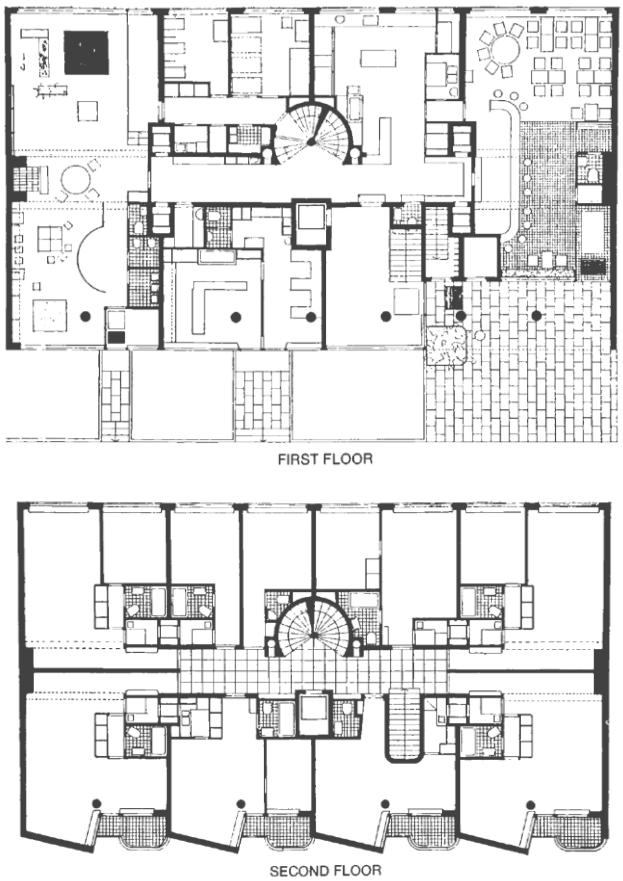


그림 3 Sven Markelius와 Alva Myrdal의 집합 주거. 1935년 스웨덴
(자료: Hayden, 1984)

미국에서는 웨스트(Nina West)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공동 주택을 기획한다(그림 4). 니나 웨스트 하우스로 불린 이 주택은, 두 개의 주동과 이를 잇는 통로, 그리고 지상에 별동으로 위치한 탁아소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주동을 잇는 통로는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져 개별 유닛의 주방으로 창을 통해 이어졌는데,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집 안에서 쉽게 내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부모들은 별동의 주간 탁아소에 아이들을 맡기고 낮 시간동안 임금 노동에 참여할 수 있었음은 물론, 탁아소에 직

접 고용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웨스트의 시도는 재생산 노동의 한 측면을 수익 창출과 연계하고, 그 수익이 주택을 지불 가능하게(affordable) 하는 데에 보태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적 생활과 공적 삶을 잇는 다리를 놓은 것으로 평가받았다(Hayden, 1984: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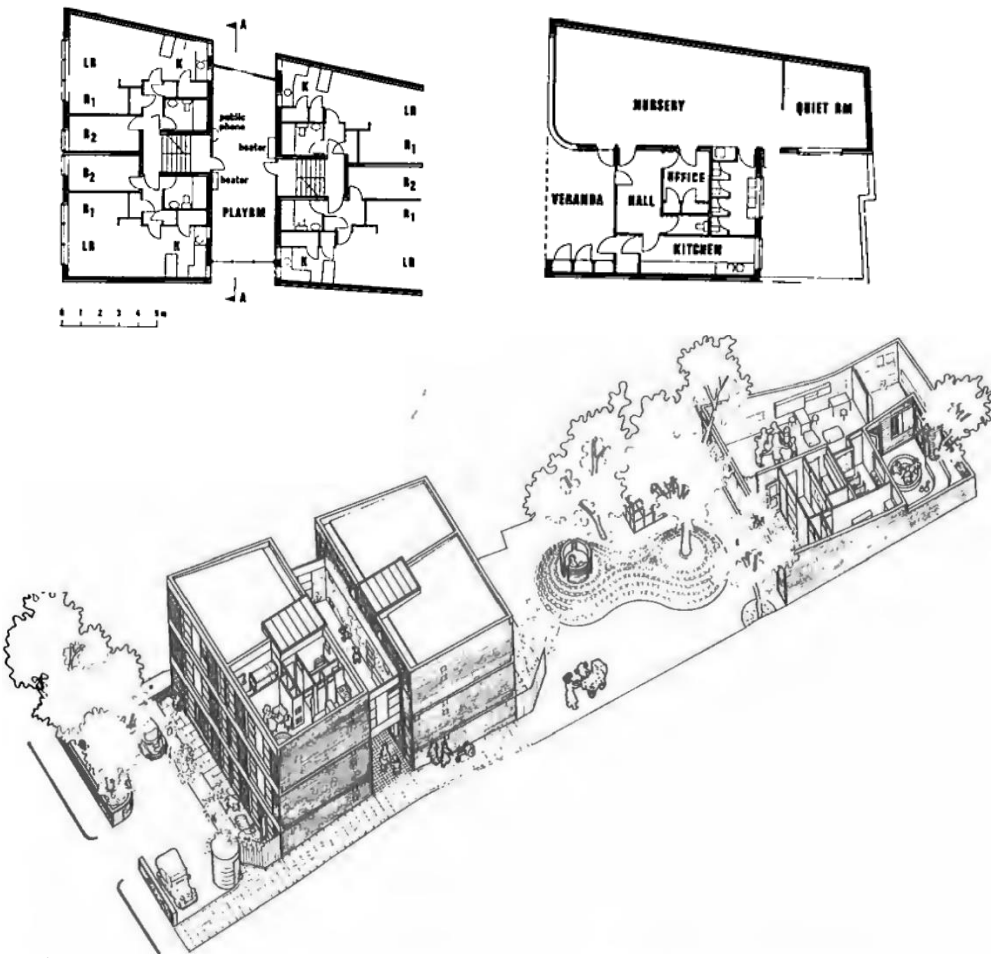


그림 4 Nina West House (자료: Hayden, 1984)

미국의 세 명의 건축가로 이루어진 Women's Development Corporation 는 ‘Housing with Economic Development’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웨스트 하우스의 접근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적용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여성들은 낡은 집들을 물색하여 재생시켜 사용할 방법을 모색했고, 상업 공간을 조사하며 경제 개발 전문가와 지역 소기업 유지 문제를 논의했으며, 여성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공식 보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단체에 속한 여성들 중 12 명이 주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낡은 건물을 재건해 소규모의 협동조합 주택으로 만들어 운영했다. 입주자들은 인근의 상업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소규모 사업체를 설립했으며, 그 수익을 통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업자 및 개발자로서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산업의 성별 분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활동을 지역 사회로 확대하여 상업 거리의 감소에 주목함으로써 더 큰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Hayden, 1984: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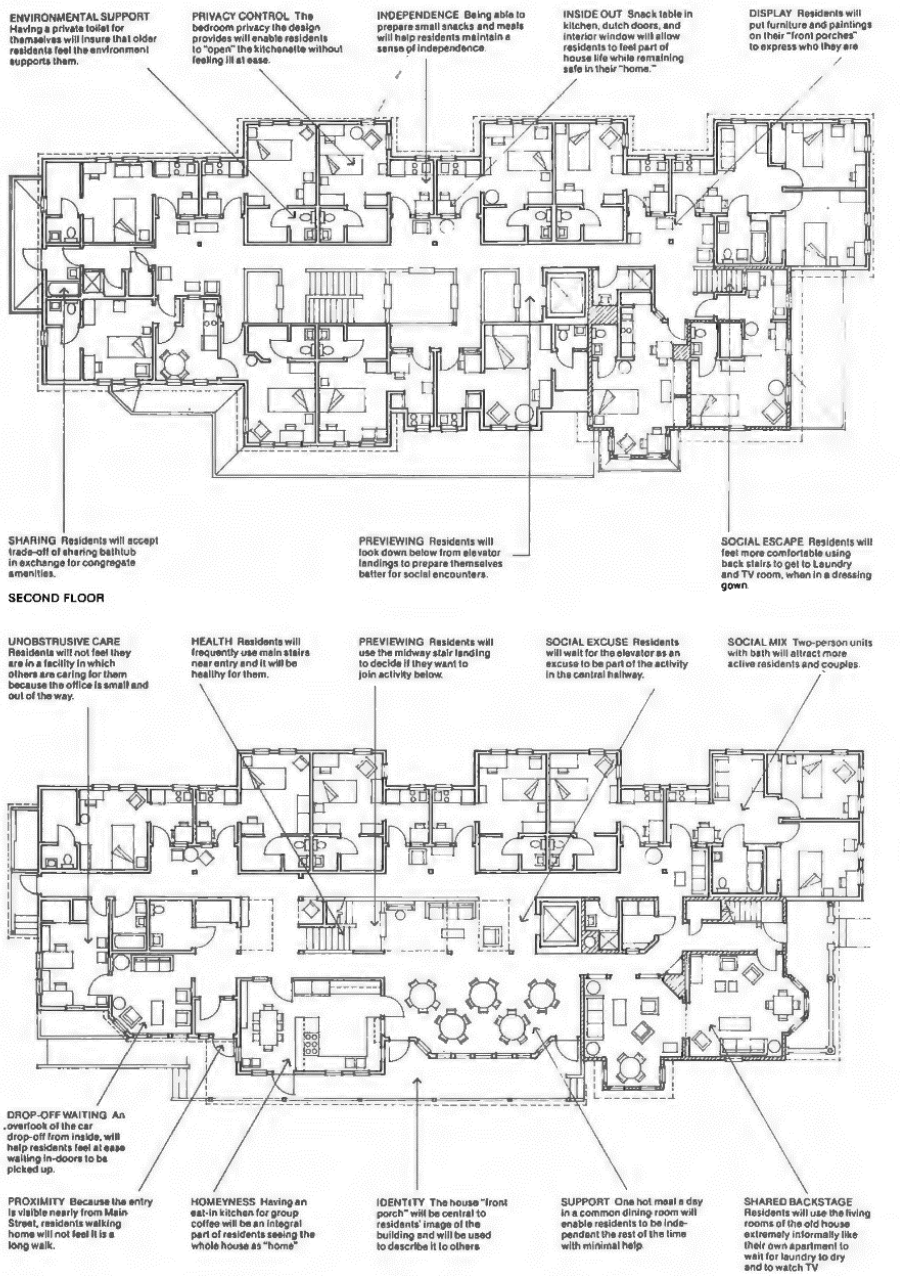


그림 5 Captain Clarence Eldridge House, Hyannis, Massachusetts, Barry Korobkin, 1981, 평면도. 입주자들은 현관, 빨래방, tv방, 식당을 공유했으나 각각의 유닛은 개별 조리시설과 세면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자료: Hayden,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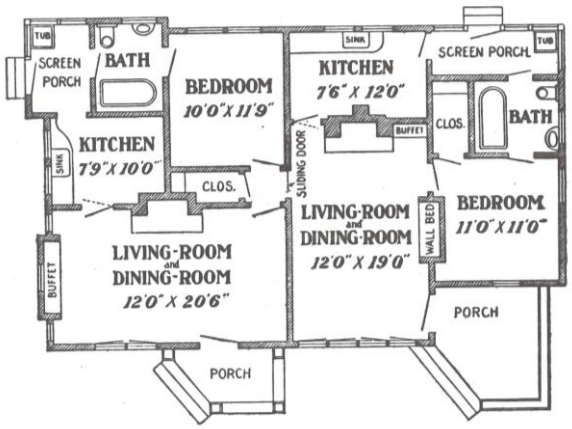


그림 6 두 유닛의 개패 여부를 슬라이딩 도어로 조절할 수 있는 벙갈로, Bowen Court (자료: Hayden, 1984)

한 편으로는 오래된 역사적인 집을 보존하는 정책에 발맞춰 1 인 고령자들을 위한 집으로 개조해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도 있었다. 그 중 하나인 Captain Clarence Eldridge House 에서는 1 층의 현관, 빨래방, tv, 식당을 공유하고 개별 공간의 조리시설, 세면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그림 5). 한 지붕 아래서는 살고 싶지만 반드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싶지는 않은 커플, 혹은 다른 관계 맺음의 양식의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벙갈로도 있었다. 원할 경우 무거운 슬라이딩 도어로 두 공간은 연결될 수 있었다(그림 6).

이상으로 살펴본 페미니스트 주거 운동들은 당시의 시대 배경으로 인해, 주로 가족 내의 여성이 사적 삶과 공적 삶을 어떻게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의 그렇지 않은 예시들만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여기의 대안적 주거도 이러한 과거 페미니스트 주거 운동들이 제시한 개념들을 자양분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충

분히 있다. 또한 실제로도 이미 동일한 형태와 개념은 아니더라도 공유 공간을 운영하며 커뮤니티를 만들고 재생산 노동을 줄이는 등의 협동조합 주택들이 시도 ·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거의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디자인의 요소가 서로 맞물려 연루된 문제라는 점이다. 헤이든은 더 나은 도시계획과 설계는 고용/노동 패턴, 그리고 가사 일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다. 그녀의 주장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적 삶과 공적 삶,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묶여 있으며,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더 풍부하고 복합적인 전이 공간과 활동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나 서비스, 즉 소규모 주거나 공동 주택, 보육 서비스 등을 상품으로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으로는 해결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공정성과 공간적 재통합이 논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때에야, 전통적인 주택 디자인과 소비 개념에 포함된 젠더의 관습을 넘어 서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합의와 그에 맞는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주거공간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Hayden, 1984).

비혼여성들의 집 꾸리기 실천에서 발견되는 문제들도 이처럼 복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먼저 한국의 도시주거환경이 형성되어온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 주거의 근대화와 주거규범

1) 한국 주거의 근대화

한국의 경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서구의 근대적 도시구조와 주거공간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근대화가 진행되기 전 한국의 전통 주택은 지금과는 다른 공간적 구성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공과 사에 대한 개념 또한 현재와 달랐으며 주거의 공간의 기능 분화도도 달랐다. 각 실들은 하나의 기능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도 거의 주거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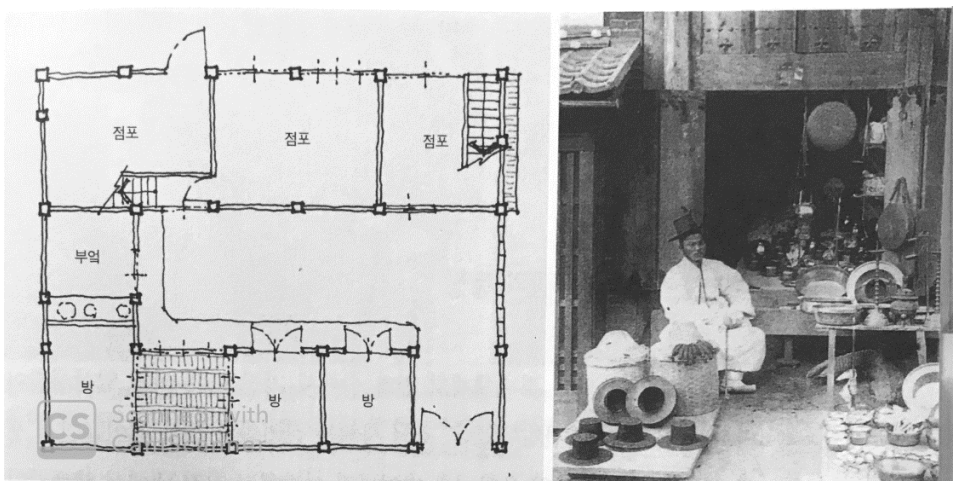


그림 7 1930년대 가가(假家)의 평면(왼쪽)과 살림집에 연결된 상점(오른쪽).
(자료: 전남일 외,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

전통적 주거 문화는 개항으로 인해 도시 경제체제가 변화하며 큰 변화를 맞이한다. 한양이 그 변화의 중심이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며 생산 기능은 주거 공간의 외부로 나오기 시작했으며 여러 가정생활의 기능들이 사회로 편입되고 분업화되어갔다(김성희, 2002). 일제강점

기에 들어서는 신문화와 신문물이 도입되며 사회와 가정의 기능이 보다 본격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일본을 통해 넘어온 서구의 근대적 도시구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과 사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본주의화의 물결과 함께 진행된 도시화는 근대적 공사 구분과 함께 집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들(사교, 휴식, 접대, 오락 등)을 집 밖으로 재위치 시켰다. 카페, 공원, 음식점 등등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집 안보다 집 밖에서의 생활 시간이 많아 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근대적 공사 구분의 도입과 함께 주거공간은 외부와 단절되는 가족들만의 내밀한 공간으로 변모해 간다.

1980 년대 이후에 이르러 찾아온 생활수준의 향상은 더 큰 주택 규모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켰고, 주택 공간 내부에서도 공간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자녀 수가 통계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갖는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아동들은 각자의 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 이 시기 보급되는 아파트에서는 부부 및 성별이 다른 자녀 둘 셋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 침실과 두 개의 아동실을 갖는 평면형이 보편적이었다. 1990 년대에 이르러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주거 공간 밖에서의 사회적 활동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집은 점차 많은 시간이 비어 있거나 주부만이 남아 돌보는 공간이 되어갔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가상의 공간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가 나타났다.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도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시대가 온 것이다.

대단지 아파트가 도시조직의 주거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반면, 평면형의 측면에서는 '거실중심형' 평면이 보편적 평면형으로 자리잡아 갔다(서원기, 2009). 아파트는 검증된 평면이자 상품으로서 구성되어, "삶과 가장 밀접한 건축이면서도 변화에 가장 보수적"인 것이 되었다(홍지원, 2010, 재: 권은경, 201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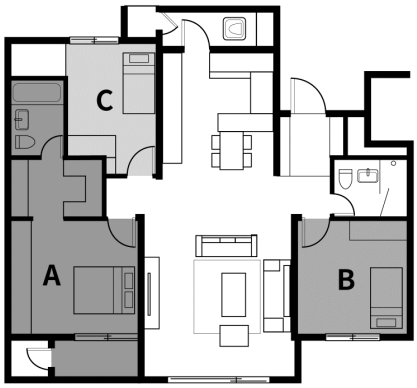


그림 8 거실중심형 평면의 예시 (자료 출처: 아파트 분양공고 재구성)

2) 한국의 주거 규범: 아파트, 분양

서울 인구는 1960 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 증가[9]를 맞이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이었다. 1960 년대 마포아파트의 건설 이래로 아파트 건설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점차 중산층들의 지위를 보여주는 재산의 하나가 되어갔다. 지금은 국민의 50%가 넘는 비율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가히 '아파트 공화국[10]'이라 불릴 만한 한국의 도시 풍경은,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추어 아파트를 공급하며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자 했던 당시의 국가적 공모로 형성된 것이었다[11].

한국 정부는 1960 년대 이후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약을 내세웠다. 정작 대대적 아파트 건설에 공공 재정이 투입되

[9] 1960년에서 1970년 사이 두 배,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두배 가량 증가해 1060만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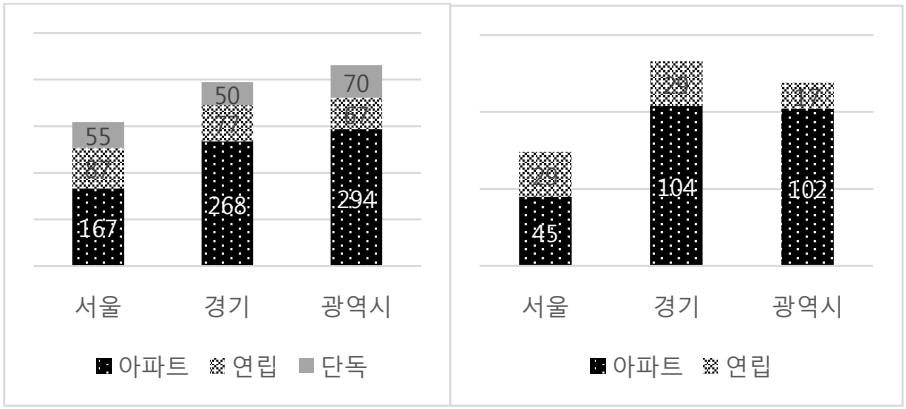
[10] Gelezeau, 2007 참조

[11] 줄레조는 이를 이렇게 요약한다. "요컨대 서울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아파트단지들은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가 재벌과 손을 잡고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만들어 낸 한국형 발전모델의 '압축적 표상'인 셈이다." (Gelezeau, 2007: 101).

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조국 근대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은 이러한 주택 구입의 재정적 부담을 받아들였다. 1957 년에 공식화된 '매매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주택 정책은, '주택의 소유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는 골자를 바탕으로 했다. 자가의 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계층에서든 그만큼의 재산 동원이 가능해질 수 있을 만큼의 물질적 희생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다(Kim, Choe, 1977, 재: Gelezeau, 2010[1999]: 99).

이런 흐름을 타고 1990 년대가 채 되기 전에 도시 전체에 아파트 건설이 일반화되었다. 한국의 아파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1974 년 완공된 반포단지는 강남 개발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알린다. 반포단지의 경우에는 수요가 몰려 분양 아파트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했고, 1977 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분양 제도를 탄생시킨다.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기 희망하는 사람은 주택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이른바 '청약' 제도이다.

줄레조는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 면적에 따른 체계적인 계층화'가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한다(Gelezeau, 2010[1999]). 주택의 장소와 형태, 그리고 생활 방식은 사회 계층을 확인하는 요소로서 작동하며, 고층의 아파트는 그 중에서도 도시 중산층을 의미하는 가장 함축적, 상징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7 년에는 서울 전체 주택의 56%가 넘는 수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연립 = 다세대, 연립, 기타 합산치

서울 및 광역시에서 단독이 감소하여 주택 수 증가에서 제외.

그림 9 지역별 주택수 (2017), 지역별 주택수 증가 (2005~2017)

(자료: 통계청, 단위: 만 호)

한편 한국의 주택정책은 오랫동안 주택 여과 과정(filtering process)의 철학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는 개인적 주거사의 진보에 따라 더 나은 거주지로 부유층이 이동할 때 하위 계층이 그 남은 주거지를 얻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이다. 하지만 주택이 낡지도, 변형되지도 않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서울처럼 중심과 주변이 끊임없이 분화되고 그 분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이런 원리는 무의미하다. 소형 아파트를 희생시키면서 지은 대형 아파트들은 서울 지역의 공간 분화를 심화시켰고, 하위 계층을 주변 지역으로 내몰았다. 아파트단지의 건설 정책은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주로 했으며 지불 능력이 없는 이들은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서울의 보편적인 경관이 되어가는 한편, 서울의 인구 구조는 한 차례 큰 변동을 맞게 된다. 1980 년 15%에서 2010 년 48%로 30 년 사이에 1, 2 인 가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대규모 정비 및 개발 사업을 통해 소규모 주택들은 오히려 다량

멸실되고 중대형의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 위주로 주택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졌다. 이처럼 소규모 주택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소형 주택의 주거비 상승률은 중대형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서용식, 2009: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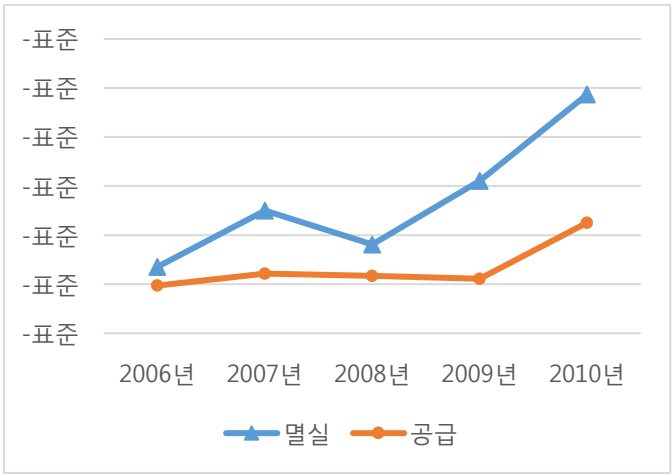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지역 소형 저가 주택 멸실, 공급 전망 (자료: 서용식, 2009)

급증하는 1, 2 인 가구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9 년 5 월 주택법을 개정해 주택건설 기준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주거 공급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른바 '도시형생활주택'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12]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 세대[13] 미만의 규모로 지어진 주택을 의미하며 단지형 연립주택,

[12] 국민주택 규모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를 의미한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m2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13] 원래 150가구였으나 2011년 300가구로 개정되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14],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건축법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15], 어린이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복리 시설과 외부 소음, 배치, 조경 등의 건설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인허가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보완하도록 하는 기준도 도시형생활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16].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최저기준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12m^2 로 설정되어 있다.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이 양산되는 것을 묵인한 것이다. 그러나 저렴한 임대료의 방을 찾는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산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주택의 발 빠른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는 투자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소형 주택이 보급되는 현상을 낳았고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게 된다(권은경, 2015: 47). 공급 기준 완화와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이 초래한 결과이다(조민정, 2011: 157). 완화된 기준으로 소형 주거 공급을 통해 수익성이 확인되자,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2009 년 당시에는 1688 가구만이 인허가가 났지만, 2010 년에는 2 만 529 가구로 늘어났고, 2017 년까지 60 만가구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되었다. 이로서 한국은 양분되고 대립되는 주거구조 속에

[14] 연면적이 660㎡(199.65평) 이하일 경우 다세대주택, 연면적이 660㎡(199.65평)를 초과할 경우 연립 주택으로 구분된다

[15]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제24조 제1항,

[16] 심윤지, " 최저주거기준 유명무실…'1인 가구 공공임대'에 해법 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30600015&code=940100#csidx2822d17ae44697ab3885875044422a0

서 주거사다리의 위층에 있는 아파트로 '오르길' 열망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한국적 주거환경 속에서 통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주거환경과 조건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현실을 보여준다. 가구주의 주택 점유 형태가 월세, 자가, 전세 순으로 많은 반면 남성 가구주(가족 포함)는 자가, 전세, 월세 순으로 높았으며 자가의 경우 50%를 넘었다. 여성 가구주는 20 대에서 50 대에 이르기까지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60 대 이상일 경우에만 '자가'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20 대만이 '월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30 대에는 '전세', 40 대에서 60 대 이상에 이르면 '자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1, 12). 주거 형태 상으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남성 가구주의 경우 훨씬 높았다. 말 그대로 결혼을 통해 가구를 형성하지 여성들은 주거 사다리가 이미 끊어진 한국에서 "끊긴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에[17]" 놓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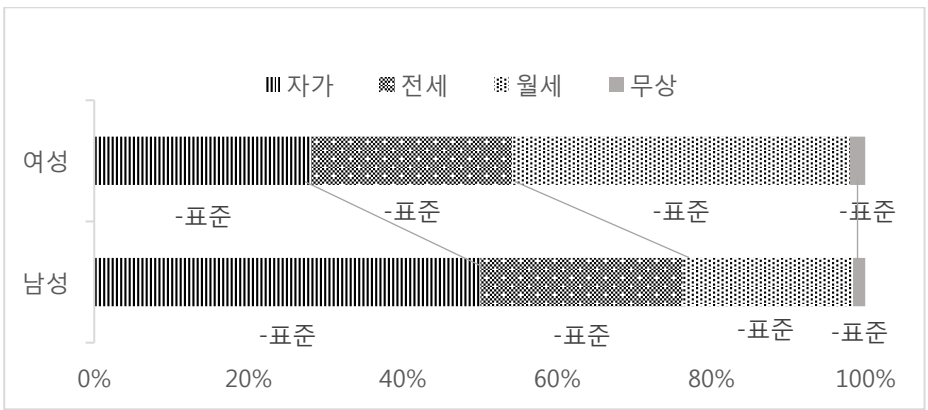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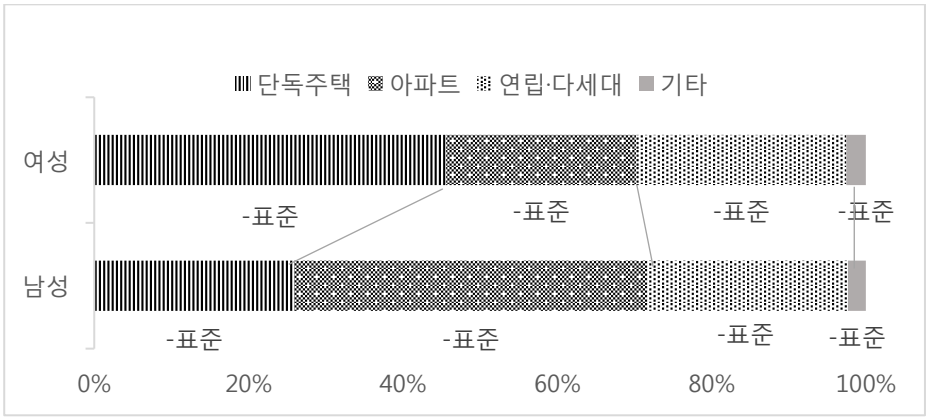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시 가구주 성별에 따른 주거 점유 형태 (자료: 서울시, 2017)

[17] 김지원, "비혼 1인가구, '청년'과 '신혼부부' 사이 사라진 보금자리",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62052005&code=940100#csidxd8e9e3bf4e43280b781af88ab1f8cf3



*여기서 단독주택은 주택법상의 개념으로, 세대가 분리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그림 12 서울시 가구주 성별에 따른 주거 형태 (자료: 서울시, 2017)

제 2 절 '집 꾸리기'의 의미와 규범

1. '집 꾸리기'와 '집'

1) '집'의 의미

'집 꾸리기(doing home)' 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집'에 관한 개념들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집(home)'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적 측면과,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결부된 의미이다. '집'은 '가정'이라는 개념과 종종 중첩되곤 한다. 이 때, 가깝고 사적이며 친밀한 가족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혹은 이런 관계가 위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됨으로써 물리적 주거공간(house)은 비로소 집(home)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Bowlby, Gregory, McKie, 1997: 344).

한 편 볼비 등은 집과 가정의 연계,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복잡성에 대해 주목하기 위해 권력과 가부장제, 집안일과 돌봄, 집 내부의 공간과 경계들이라는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주제를 통해 전통적/규범적 '집'의 속성에 대해 논한다(Bowlby, Gregory, McKie, 1997). 다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집'을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규범적 집'이라 칭하기로 한다. '규범적 집'은 가부장제,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곳이다. '집'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자율성, 그리고 (주로 가족으로 이해되어 온) 구성원들 내의 권력관계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념인 것이다(White, 2002). 이 때 '규범적 집'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의미로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에게는 노동의 장소, 남성에게는 휴식의 장소가 되는 등 불균등하고 성별화된 방식으로 존재한다(McDowell, 1983; Massey, 1984).

2) 집 꾸리기(doing home)

볼비 등(Bowlby, Gregory, McKie, 1997)은 젠더 행하기(doing gender, West, Zimmerman, 1987) 개념을 '집'에 대한 차원으로 확장시켜 적용한다. 이때,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이분법적 젠더 규범을 개별 주체들이 스스로 내재화하고 행함으로써 유지·변형하며 재생산한다고 보는 젠더 행하기의 개념은, 다층적인 '집'의 안팎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성별화된 행동 양식들이 '집'의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때 집 꾸리기는 '집'의 내부에서 친밀성과 관계맺음, 양육과 돌봄을 포함하는 젠더 행하기(doing gender)를 통해 'house'를 비로소 'home'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넘어서,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정하고 거기서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집'을 구성해 나가는 행위들을 포괄한다.

물리적 주거 공간은 가구 구성원들의 이상화된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이를 공간에 반영하여 물리적으로 조직되고 설계된다(Boys, 1990; Johnson, 1993; Madigan & Munro, 1991; Matrix, 1984; Roberts, 1991; Johnson, 1993; Veness, 1994; 재: Bowlby, Gregory, McKie, 1997: 346). 이때, 육아, 가사 노동, 성관계 등의 일상적 행동들을 포함하는 공간의 이용 방식은 젠더 행하기와 집 꾸리기 둘 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용인되는 성 역할에 도전하는 것은 종종 공간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수반하는데, 남성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 여성이 공구 창고에 들어가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분법적 젠더 규범을 위반함과 동시에 성별화된 집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집 만들기는 규범과 비규범의 경계를 넘나들고 일탈적 실천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규범적 집'의 설명가능성(accountability)의 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집'의 규범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규범적 시공간성

근대적 시공간 속에서, 개인들의 생애는 규범적으로 구획된다. 정민우 등은 이러한 생애과정과 공간의 규범적 구획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위해, 할버스탐(Judith Halberstam)이 제시한 '재생산적 시간성(reproductive temporality)'개념의 공간적 차원을 확장시켜 '규범적 시공간성(normative spatio-temporal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정민우, 이나영, 2011).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성별화되고 성애화된 헤게모니적 구성인 재생산적 시간성은, "출산 가능한 몸이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시계, 부르주아적 체통의 규칙, 그리고 기혼자들을 위한 일정에 의해 지배된다(Halberstam, 2005, 재: 정민우, 이나영, 위의 논문: 112)." 다시 말해, 이는 '가족, 이성애, 재생산의 제도에 의해 시간/공간을 규범적으로 구성

하는 방식'인 것이다[18]. 이때 재생산적 시간성 논리의 담론적 효과는 출생에서 교육, 취업, 그리고 결혼과 출생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 과정(life course)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여기서 담론은 이 '정상적' 생애과정 밖의 이들을 '위험'하고 '병리적'인, 그리고 '미성숙'한 존재들로 배치하기에 실제적 효과를 가진다(위의 논문).

정민우 등은 이러한 논의의 공간적 차원을 확장시켜 규범적 시공간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제안한다.

> 규범적 시공간성은 개인의 생애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형적·순차적·위계적인 여러 단계로 나누고(생애과정의 시간화), 이를 특정한 주거 형태와 매치시키며(생애과정의 공간화), 각 단계에서 젠더, 연령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적법한 생애과정을 생산하고, 이를 승인하는 규범체계를 통해 작동하고 재생산되는 담론 체계를 가리킨다. (위의 논문: 114)

생애과정을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정상성' 안에 위치시키는 담론체계인 규범적 시공간성은 제도적 차원과 상징적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인구 집단에게 어떤 주거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지, 또 이를 통해 어떤 이들을 '정상성'의 트랙에 재편입시키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규범적 시공간성의 제도적 차원의 효과는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정상 가족, 그리고 정상 가족을 이루고자

[18] 이는 자녀의 양육과 동반된 일상적 삶의 규범성이라고 하는 '가족의 시간', 가족 유대를 통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가치, 도덕, 부 등을 아우르는 '상속의 시간', 그리고 그런 규범적 가족을 민족의 과거, 또 미래와 연결시키는 '민족의 시간'을 모두 포괄한다(정민우, 이나영, 2011). 할버스탐은 가족과 이성애, 재생산 제도를 통해서 작동하는 이 재생산적 시간성의 규범적 가치를 '탈안정화'하는 시공간으로서 퀴어 시간(queer time)과 퀴어 공간(queer space)을 개념화하며, 이러한 이론화는 LGBT주체들만이 아니라 금융 안전망과 집, 안정적인 직업과 더불어 소수의 부자들을 보호하고자 설정된 시공간 조직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기반하는 것으로 확장시키고자 했다(위와 같은 논문).

하는 단계에 있는 이들(신혼부부)은 비교적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주거 지원 정책에 접근하기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규범적 시공간성은 또한 상징적 차원에서 '정상적' 생애과정의 각각의 단계에 걸맞는 공간을 얻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는 상징체계이자 담론적 현실로서 작동한다. '가족-이성애-재생산'으로 구성되는 제도 하에서 이에 부합하는 영토, 즉 주거공간을 점유하는 이들은 시민의 범주 안으로 안전히 포섭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재현 불가능한 존재', 그리고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해석 불가능한 존재'로 구획되며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위의 논문: 115).

오늘날에는 이러한 규범들이 약화되고 생애과정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차원에서는 이를 다시 규범화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테면 전통적 가족 규범이 약화될 때, 국가는 제도를 통해 가족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그러하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이처럼 규범적 시공간성이 강화되어 작동하는 것 자체가 그 담론 체계의 균열의 징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Butler, 1990).

이 같은 규범적 시공간성은 한국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나영정(2012)은 장애, 성적 지향, 나이, 성별, 인종, 그리고 가족제도에의 포함 여부에 따라 차별 받는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현재의 주거 정책이 계층상승의 욕망과 더불어 특정한 생애주기와 정상가족규범이 맞물려 진행되어 왔음을 지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집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계급재생산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현장"인 규범적인 집으로 위치하며, 이것이 해체된다는 것은 곧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정상가족을 근거로 하는 주거의 형태 이외의 주거는 잔여적인 형태로 한정되어 왔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에 맞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에서는 집을 사고 결혼하고가 같이 패키지로 뭉쳐있는

것 같아요[19].”라는 한 비혼여성 작가의 표현은 이런 규범적 주거 문화의 실태를 정확하게 짚어낸다.

표 3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 (자료: 통계청)

구분	특성
가구 형성기	31 세: 결혼(평균 초혼 연령: 30.6 세), 소득증가, 출산
가구 성장기	39~40 세: 주택구매(결혼 후 주택구입: 평균 8.6 년 소요) 40 대 초중반: 교육비 증가, 소득증가, 주택구입 융자액 증가, 저축 증가
가구 안정기	47~50 세: 주택의 교체(주택 구입 후 평균 8.5 년) 56 세: 퇴직, 자녀 출가, 교육비 부담감소
가구 쇠퇴기	60 세 이상: 주거면적 감소, 소득 감소, 가족 축소

서울시를 중심으로 더 많은 계층으로 주거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와 청년 1 인가구를 위한 지원에 대부분의 정책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는 상황은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규범적 생애주기를 벗어난 이들도 안정적인 생애를 계획할 수 있게 하기 보다는 정책적 유인책을 통해 다시 규범적 생애 주기라고 하는 트랙 위에 재편입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는 또한 비혼 현상에 대한 진단을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축소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19] 위즈덤하우스 인터뷰, “결혼? 비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_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5792036

그림 13 SH 청신호 추진 배경 (자료: SH 홈페이지)

국토연구원에서는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방안'에서 "1 인 청년 → 2 인 커플, 결혼 → 3 인 유자녀 → 4 인 가구로의 연계성 강화 및 지원 확대(국토연구원(박미선), 국토정책 Brief, 2018: 8)"로 이어지는 도식은 결국 주거지원 정책이 목표하는 바가 가족 제도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을 '4 인 가구'라는 이른바 '정상 가족', 혹은 '표준가족'의 형태로 재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규범적 시공간성이 작동하는 예로 볼 수 있다. 한 편 상징적 차원에서의 작동은 비혼여성들의 삶이 '혼자'의 것으로 그려지며 그나마 이해 가능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골드미스 담론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 대안적 친밀공동체와 제 3 의 장소

익명적 도시에 살아가는 개인들은 혈연가족과 직장 이외에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이 부재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정성훈은 이처럼 도시의 익명적 개체성을 보완하는 공동체를 친밀공동체(intimidate

communities)로 개념화한다(정성훈, 2011). 친밀공동체를 다시 밀도 높은,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친밀관계'와 구분하기 위하여, 저자는 친밀공동체를 "기본적인 친밀관계들을 보완하면서 다수의 친밀관계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약화되고 강회되기를 반복하게 하는 관계망"으로 규정한다(위의 논문). 이 때 저자는 친밀공동체의 산물인 '도시마을'을 "이러한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들을 포괄하는 공간"을 지칭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도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도시마을[20]' 대신, 주거 공간이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비혼여성들의 관계맺음 일부를 친밀공동체라는 틀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친밀공동체는 낭만적 사랑, 이성애적 사랑이 처한 위기[21]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자는 "낭만적 사랑에 내재된 남성중심성을 과연 둘만의 '협상'이나 '개인적인 것' 혹은 '성적인 것'의 '민주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친밀공동체는 친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대안이 되고, 둘만의 연애/부부관계와 같은 친밀 관계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 혁신, 지원해주는 '우정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위의 논문).

---

[20] 이 때 정성훈은 이러한 친밀공동체를 도시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그의 연구 대상도 이미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마을을 기반으로 구성한 공동체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비혼여성들이 형성하는 공동체들과는 구분되는 점이 있으나, 친밀공동체의 개념을 기본적 친밀관계를 보완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작동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확장시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정성훈의 연구에서 이러한 친밀공동체는 마을을 공간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특히 비혼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공동체의 형태를 다루고자 한다.

[21] 엄기호, "'이성애적 사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청어람, https://ichungeoram.com/12404

나아가 연구자는 이같은 친밀공동체 대한 논의가 올덴버그(Ray Oldenburg)의 제 3 의 장소에 대한 논의가 각각 공-사의 전이적 영역에 대해 다룬다는 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친밀공동체가 전이적 영역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 다룬다면 제 3 의 장소는 공간적 측면을 논의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제 3 의 장소는 지금의 도시공간이 제 1 의 장소인 집과 제 2 의 장소인 일터로 이분화 됨으로 인해 존재하기 어려워진 '비공식적 공공생활', 즉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의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Oldenburg, 1999). '집'이 물리적 공간임과 동시에 그 내부의 의미망, 관계맺음과 친밀성을 내포하는 의미인 것처럼, 제 3 의 장소는 비공식적 공공생활과 그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공간이라고 하는, 사회적 활동과 공간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올덴버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이분화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영역 또한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집'이 갖고 있는 사적이고 내밀한 속성은, 집에서 가족 생활 이외의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야 할 때는 반드시 '초대'라는 행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만든다. 적절한 제 3 의 장소가 없다면, 개별 가구 구성원들은 결국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스럽고 비공식적인, 가족생활 이외의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는 특수한 경우 집에서의 사생활을 포기하면서라도 공간을 개방하는 편을 택하거나, 많은 경우 그러한 교류를 아예 포기하는 편을 택하게 된다(위의 책). 따라서 비공식적 공공생활을 지원하는 제 3 의 장소는 인간의 사회적 교류를 가족과 공공영역에 국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중요하며, 또한 공공영역에 속하지 못한 이들이 가족 생활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된다.

앞에서 다뤄진 친밀공동체, 제 3 의 장소 등은 기본적으로 가족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전통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형성하지 않는 비혼여성들의 삶에 있어서야 말로 이러한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제 3 의 장소와 같은 적절한 집-일터 사이의 전이공간이 없을 때,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1 인가구들은 더 심각한 고립에 처하기 쉽다. 도시·주거환경이 1 인가구가 곧바로 '고립', '외로움'과 등치되지 않을 수 있는 물리적, 프로그램적 환경을 뒷받침할 때에야 비로소 이어서 살펴볼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가 유일한 대안이 아닌 선택지의 하나로서 위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적 내밀한 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공간에서의 비혼여성들의 생활이 어떠한 저항감을 낳고 있는지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이 보장되면서도 적절한 전이공간을 가진 대안적 주거를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사의 관계를 구분하는 규범과 '가족'이 가지는 헤게모니성을 탈피해 개인들의 유연하고 다양한 관계 맺음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로의 전환이며, 집과 일터의 공간적 이분법을 해체하고 경계를 유연화 하며 틈을 파고드는 영역들을 촘촘히 조직해 나가는 것이다.

제 3 절 비혼'들': 규범적 시공간성을 거슬러 함께살기

1. 비혼'들' [22], 그리고 비혼이 폭로하는 것

1990 년대,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에 기반한 '미혼(未婚)'을 대신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비혼(非婚)'이

[22] 다음에서 참조한 표현: 싱두, "비혼'들' 어떻게 같고 다른가", https://fwdfeminist.com/2019/07/24/vol-2-2/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비혼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해져 왔다. 2010 년대 중반을 즈음해 재부상한 페미니즘의 물결은 다시한번 새로운 청년 비혼 주체들을 탄생시킨다. 온라인 기반 페미니즘 성정치의 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4B'운동, 즉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의 한 구성요소이기도 한 지금의 '비혼'은,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제도적 작동으로서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23], 즉 '반혼[24]'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는 또한 향후 결혼을 하지 않겠음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동료들을 찾아내고 서로를 지지하는, 보다 대대적인 선언과 정치화의 국면으로 가시화된다.

물론 같은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비혼은 단일하게 이해되고 말해지거나 실천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비혼을 때로 개인적 선택의 측면[25]에서 말하기도,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결혼을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나은'것으로 말하기도 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다 적

---

[23] 싱두, 위의 문서

[24] "결혼을 뭐가, 살짝 뭔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어, 결혼이 그래도 좋을 거 같은데? 아니면 비혼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그런 흔들림이 썼는지 이런 이걸 물어보는데 저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중략) 근데 이 비혼이 대체로 좋은 사람 만나면 하겠지, 결혼할 사람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비혼이라는 단어도 솔직히 요즘, 반혼으로 막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혼인 것 같아요. (중략) 솔직히 경제, 그거 주거 문제만 해결이 되면 [비혼 결심이] 정말로 안 흔들리죠. 그, 아는 친구도 이제 '결혼 왜 안 하냐? 안 하냐?'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 들었을 때 친구가 '저 집 있어서 결혼 안 해도 돼요.' 이러니까 '그래?' 이러더래. 딱 말이 끊겼대." <민영>

[25] "제가 생각하는 제 삶의 방식이,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결혼이 이렇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 물론 결혼제도를 통해서도 어떤 조건하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조건 가능한 그런 만남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비혼의 삶이라서 그냥 이걸 그냥 예상하고 있어요. 계속. (중략) 일단 저는 그 로맨틱한 관계가 좀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결혼과 관련해서 가족끼리 엮이고, 뭔가 이렇게, 너무 복잡해지는, 저는 대인관계도 그렇고, 그 외의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관계에서 복잡해지는 걸 못 견디는 편이어서." <지원>

극적인 정치적 선언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혼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비혼주의자임을 선언하건, 그렇지 않건, 비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생애 모델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의 비혼 담론의 자장 안에서 비혼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만큼이나 강하게 드러나는 여성들의 비혼 선언과 비혼의 정치화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은 이러한 비혼 담론을 이해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 늘어나는 비혼여성공동체" 기사의 댓글 중 일부

2010 년 1 월 2 일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 늘어나는 비혼여성공동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게시된 지 불과 이틀만에 6500 여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26]. 댓글 중 가장 높은 공감 수를 얻은 댓글들

[26] 2020.1.5. 접근 기준 64%의 댓글은 남성들에 의해 달렸으며, 남녀를 통틀어

은 단연코 비혼 선언을 한 여성들에 대한 조롱이다. 이들은 기사에 등장한 여성들의 외모를 조롱하고, 이들의 비혼 선언에 대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 폄하하며, “비혼주의가 아니고 꼴페미”라 칭하거나, 심지어는 이들의 짧은 머리 스타일, 그리고 옷을 가리켜 “성적 정체성”이냐는 저열한 질문을 던진다. 이처럼 여성들의 비혼 선언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중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유형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혼자 조용히 비혼하면 되지 왜 시끄럽게 하느냐’가 있다. 이 같은 비난은 ‘비혼’을 단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차원으로 환원하며, 그 이면에 담긴 결혼 제도에 대한 다면적 비판을 비가시화 하는 것으로 작동한다. 여성들의 비혼 결심은 때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자유주의적 용법으로 담론장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를 단순히 개인의 호불호에 의한 ‘선택’의 차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결혼이란, 쉽게 말해, 하지 않았을 때는 ‘부족한’ 것이 있어 그렇다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했을 때는 임금 노동과 무임금 돌봄 노동을 이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최저가부장제[27]’의 굴레에 빠지게 하는 이중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혼 선언은 불합리한 결혼 제도와, 결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식에 대한 복합적인 반발인 것이다.

더불어 비혼여성들의 정치화 움직임은 성별화 된 역할로서 개인들을 환원시키는 기존의 이성애 각본,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탈피하여, 자신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맺음 방식, 그리고 생활양식을 만들어 나가고자

30대(33%), 20대(28%), 40대(22%) 순으로 댓글 작성자 연령대의 비율이 높았다.
김지아, 최연수,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 늘어나는 비혼여성공동체, 중앙일보, 2020. 1. 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64835,

[27] 전혜민, “‘최저가부장제’를 아시나요”, 여성신문, 2019.09.19,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089.

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때로 페미니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여성들은, 성차별을 인지는 하지만 적극적 개입의 의지는 없는, 혹은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는, 혹은 역차별론을 바탕으로 하는 포스트페미니즘적 의식을 내제화하고 있는 남성 집단과의 성 인식에 대한 차이를 점점 인지하고 있다[28][29]. 이에 따라 이들은 기존의 연애와 결혼을 통한 평등한 관계맺음의 '불가능성'을 논하며, 다른 방식의 관계맺음과 공동체 형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30]. 다시 말해, 한국 청년 여성들의 비혼 선언, 그리고 실천은, 결혼이 하지 않아도, 해도, 하기에도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한 데에서 발발되는 것이

---

[28] 19세~34세 청년 3000명과 35세~59세 기성세대 2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마경희(2019)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 중 20대 여성의 10% 내외만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수용하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3~40%가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대 여성의 대다수(86.6%)가 여성의 가사와 돌봄 책임에 대한 압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나 남성의 경우 45.2%만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의 생계부양 책임 압력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70%내외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친밀 관계에 관해서는, 연애를 하지 않는 20대 중 여성의 경우 26.7%가, 남성의 경우 18.8%가 향후 연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연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여성들의 경우 34%가 "가부장적 연애가 싫어서"라고 답한 반면 남성은 9.6%만이 그렇게 답했다.
결혼하지 않은 20대 중에서는 약 32%의 여성이, 약 16%의 남성이 결혼 의향이 없다고 밝혀 큰 차이를 보였다. (마경희, 2019)

[29] "(페미니즘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난 그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연애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지아, 최연수, 편광현,""한국남자랑 연애 안해" 20대 여성 절반이 '탈연애' 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81914

[30] "진짜 천운이 좋아서 그렇게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시부모까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략) 원가족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원가족이었으니까, (중략) 가장 기저에 있는 이것은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들,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면 시부모나 남편과 그런 것들이 생길 텐데 굳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내가 선택할 가족들은 좀 그런 감정 소모 안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혼을." <현정>

다. 즉, 비혼 담론은 결혼-가족제도와 규범적 이성애 각본의 불합리함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러한 규범적 영역 바깥의 선택지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중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서 기능한다.

2. 함께살기: 규범적 시공간성을 거슬러 집 꾸리기

2 절에서 살펴보았듯 '집'은 물리적 주거 공간과 거기서 일어나는 생활, 관계맺음, 그리고 문화적 코드 등을 내포하는 총체적 집합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집'의 복잡다단한 면들에 걸쳐 일어나는 비혼여성들의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다.

규범적 시공간성의 제도적 · 상징적 차원에서의 작동, 그리고 불균형한 고용시장 등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은 채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을 획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런데 비혼여성들의 불안은 단지 '그럭저럭 괜찮은' 주거공간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 1 인을 위한 주거가 주로 임시적이고 협소하게 만들어 지는 것, 그리고 공-사의 근대적 구획으로 가족과 공적 교류 이외의 사회적 교류들이 정형화되고 협소해지게 하는 것은 비혼여성들이 미래를 상상할 때 '고립', '고독'을 함께 떠올리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불안은 비혼여성들이 온 ·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모여 고민을 공유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해법을 도모하는 크고 작은 모임들을 형성하도록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혼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들이 특정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특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했다. 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둘러싼 주거 · 인적 상황들과 협상, 재협상을 해나가며 서로 다른 구성의 '집'을 꾸려가는 이들의 유동하는 행위성을 드러내줄 용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living together'의 번역어로서, 그리고 '반달'의 '함께/살기[31]'를 참고하되 그 주거적 측면에 보다 집중하는 용어로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함께살기는 규범적 시공간성을 거스르는 대안적[32]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으로 위치한다. 다시말해, 함께살기는 비혼여성들과 이들의 동료들이 ① 규범적 시공간성의 바깥에서 ② 주거공간에 느슨하거나 촘촘하게 모여 ③ 다종다양한 관계 맺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함께살기는 복합적 특성을 가지는데, 함께살기가 ①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선택하는 궁여지책으로서 촉발되는 측면도 있으나, ② 선택가능한 결혼제도 밖의 외부를 상상가능하게 하고 늘려나가는 효과를 낳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③ 1 가족 1 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온 도시구조, 주거환경에 문제제기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실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이상적인 대안이기만 한 것도, 어쩔수 없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찾아낸 궁여지책이기만 한 것도 아닌 함께살기는 어쨌거나 비혼여성들이 사회 · 경제적으로 대안을 찾

---

[31] 비혼퀴어여성 함께/살기모임 반달은 "페미니즘이라는 지향을 공유하는 비혼 청년들이 모여 주거/생활공동체 혹은 그보다 느슨한 네트워크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고민하는 모임"이다. 반달은 이러한 고민점을 '함께/살기'라는 표현으로 압축하는데, '함께'가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이라면 '살기'는 주거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다.
경서, 초롱, "돈없고 집없고 가족없는 여성들의 '함께/살기' 전략", 일다, 2019.6.1
https://blogs.ildaro.com/3571

[32] 본 연구에서 '대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는 기존의 것은 그대로 둔 채 그 외부에서 선택가능한 것으로의 대안, 즉 자유주의적 의미의 대안을 말하는 것과는 다름을 밝힌다. 기존의 규범체계에서의 선택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실천들로서의 이 '대안'은 그 외부 영역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는 행위일 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규범에 균열을 내며 그것이 형성되어 온 판을 궁극적으로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반발이기도 한 것이다.

고 도시공간과 협상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효과도 낳는,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실천들로 자리한다.

제 3 장 '자기만의 방'을 넘어 함께살기

'자기만의 방'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1929)가 억압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제시한 공간적 조건이다.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자기만의 방'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주거 독립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비혼여성들에게 '자기만의 방'을 향한 여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 개인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획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은 주거의 조건이다. 비혼 생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방 같은' 공간을 넘어선 '집다운' 집은 비혼여성들이 '자기만의 방'을 넘어서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공간이 된다. 이 장에서는 원가족과 함께 사는 집을 벗어나 '자기만의 방'에 다다른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방 같음', 그리고 함께살기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함께살기를 실천하며 겪는 어려움들을 다루고 있다.

제 1 절 주거 독립과 임시적 공간에서의 '밀려남'

1.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과 따로 살게 된 계기는 많은 경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고향에서 나오게 되었을 경우였다. 다만 <다은>의 경우에는 연예인의 팬덤 활동을 하기 위해 올라와 같은 팬덤의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살게 된 계기라 밝혔다. 대도시에 교육기관과 문화 인프라, 일자리 등이 집중됨에 따라 결혼 전의 여성들이 도시로 교육, 노동을 위해 이주하는 일이 잦아지며,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원가족으로부터 공간적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지고 있다. 반면 취직이나 진학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가족과 살던 집에서 가까운 거리로 독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이 같은 근거리로의 주거 독립은 보다 많은 준비를 요하거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용인되는 것이었다. 정은은 가족들에게 성적 지향을 알리고 난 뒤 "쫓겨나"게 되어, 다시 본가로 돌아가기 전까지 한동안 고시원이나 친구 집에 월세를 보태며 살았었다고 말한다.

어떤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었건,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들의 감시망을 벗어나 독립된 공간을 얻어 거주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록 그런 공간이 나중에는 우울하거나 답답한 느낌을 줘 대안을 찾게 되더라도 다시 원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는 없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이에 대해 "상상도 못할 일"이라 표현했다(정은).

> 혼자 사는 거 너무 좋았어요.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서 룸메이트를 구했던 거지 다시 본가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은>
> 문을 못 닫게 해요, 저희 집은. 문 닫으면 뭐 무슨 고민 있니 그래요. (중략) 정서적으로 굉장한 교감을 강요하잖아요. (중략) 그냥 부담감. 효도에 대한 부담감,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고 잘해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고, (중략) 부모님한테는 잘해야 한다, 화내면 안 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 구실을 해야 한다. 저는 사람 구실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아까 그 요구되는 역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구실, 예를 들면 뭔가 어디 때가 되면 뭔가 우리, 간다거나, 인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 사람구실. 안하면 약간 안 될 거 같은 그럼 규범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불편한. <은주>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정서적 교류를 중요시 여기며 “문을 못 닫게” 하는 분위기를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했다(은주). 은주는 그런 정서적 교류가 부담될 뿐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꼭 해내야 하는 “사람 구실”같은 게 있는 것이 불편했다고 말한다. 이런 배경에서 은주에게 처음 고향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한 경험은 “엄마가 뭐라고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것이며, 처음 가족과 따로 살기 시작한 공간은 원 가족과 함께 사는 ‘규범적 집’과 대비되는 “내가 뭘 하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방”이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별화된 가족의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간적 독립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비혼여성들이 그러한 ‘규범적 집’에서 떠나 닿는 곳은 주로 원룸, 고시원과 같은 임시적 1 인가구에 배당된 영역이었다.

2. 주거 공간에서의 밀려남: ‘방 같은’ 주거 경험

주거 공간은 자아감에 영향을 주는 공간으로서, 개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McDowell, 2010[1999]). 연구 참여자들이 처음으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얻어 살게 되었을 때 주로 거주하게 되는 곳은 비교적 주거비가 적게 드는 원룸, 고시원, 민간 셰어하우스, 혹은 학생 기숙사 등이었다. 처음에는 가족과 분리된 자신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게 되어 기뻐하던 연구 참여자들은 점차 원룸이라는 공간이 가진 사회적, 공간적 한계에 부딪혀 다른 주거 형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학업–취업–결혼의 생애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청년 1 인가구의 생활은 주로 다음 단계를 위한 도약의 단계로 그려진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주거사다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들에게는 원룸이란 벗어나고 싶지만 동시에 언제 벗어날 수 있을 지 어떠한 기약도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고용/노동 시장은 이들의 불안감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원룸에서의 오랜 생활을 우울, 잦은 이사에 대한 불만, 안전하지 않음, 사생활의 부재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표현했다.

은주는 처음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가족 생활이 주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냥 좋았지만, 점점 '우울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 원룸에 너무 오래 살면서, 이제 7 년 8 년 사니까 점점 약간 우울해지는, 원래 우울한 성격이 전혀 아닌데 좀, '아, 집이라는 곳에 살고 싶다.' 그 얘기 다들 하던데, 방이 아니라 집에 살고 싶다. 내가 방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밖이야. 그거는 너무, 어, 뭐랄까 그냥, 어딘가에, 그냥 상자 안에 들어가서 사는 느낌? 집이라는 것은 적어도 들어가면, 뭔가, 아 바깥과는 차단이 되어 있다, 라는 느낌과 함께 이제 내가 쉴 곳에 가서 쉬고, 밥은 여기서 먹고 tv 여기서 보고, 빨래는 여기서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뭐든 한 방에서 이루어지니까, 갑갑하다. 그리고 좀, 나는 약간 닭장에 새 같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편안히 좀 몸을 뉘거나. 쉴 곳은 쉬고, 공부할 곳은 공부할 곳,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었으면, 내 마음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이라는 곳이 그냥 사실 박스에 딱 던져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우울감이 좀 있다는 거를 몇 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술 먹고 들어가도 뭔가 집 같지가 않을까? <은주>

은주에게 방문을 열면 바로 밖인, 그리고 쉴 곳도 공부할 곳도 모두 통합되어 있는 원룸 공간은 원래 우울하지 않은 성격을 가진 자신도 우울하게 만드는 공간이었다. 은주는 원룸에서의 거주 경험에 대해 '집'이 아닌 '방 같음', '상자 안에 들어가서 사는 느낌', '닭장에 새 같'음, '박스에

딱 던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런 고민은 은주가 무엇이 '집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인지 질문하게 한다.

현정도 원룸에서 혼자 살던 경험에 대해 외롭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으로 표현했다.

> 혼자 살 때는 되게 가기 싫은 데였어요. 집에 가면 너무 외롭고 집에 가면 딱 집에 왔을 때 안녕~하는 룸메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중략) 전에는 집에서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집에 내가 집에서, 집에서, 깬 상태로 5 시간 이상 있다, 그것은 또 우울증에 무기력증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였는데 <현정>

지금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는 현정은 혼자서 살던 원룸 공간의 물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혼자'인 것에 대해서도 한계를 느꼈다. '룸메'가 있을 때와 다르게 혼자 살 때는 '가기 싫은' 곳으로 인식했으며, 집에서 깬 상태로 오랜 시간을 있는다는 것은 곧 우울과 무기력의 신호였다고 해석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혼자 살던 때의 거주 형태는 원룸이 가장 많았던 한편, 주된 주택의 점유 형태는 월세였다. 월세는 가장 이동성이 높은 점유 형태에 속하며 이는 주거 점유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은주는 20 대때 계속해서 이사를 다녀야만 했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 이제는 [집을] 샀으니까 끝나지 않았을까. 이사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사를 열 번은 다녔어요. 열 번 넘게 한 거 같아. (중략) 엄마가 갑자기 보증금을 빼 달라고 해서 한번 작은 집으로 옮긴 적이 있고, (중략) 학교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옮기는 적도 있고. 좀 큰 집에 살아 보고 싶은 마음에 옮겼지만 실패한 적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엔 집에서, 본가에서 돈을 대줬기 때문에 제 선택은 별로 없었던 거 같고 집 사정이나, 결국은 허락을 받아선데, 허락도 잘 안 해주고 <은주>

오랜 기간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던 경험을 뒤로하고 두 명의 과 후배들과 함께 주택을 구매해 이사한 은주는 더 이상은 이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지원의 경우에는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임대주택을 전전하면서 '부유하고 돌아다니는' 형태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며 '정착'을 통해 '삶을 정립'하고 싶어한다.

> 독립을 했는데, 어쨌든 독립을 좀 더 완전하게 이루려면, 이렇게 해서 막 부유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이런, 그런 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독립을 했으면 다른 뭔가 제가 정착을 하고 제 삶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할 거야, 그러고 싶은데, 그게 그런 주거 문제 때문에. 주거 문제가 걸림돌이. 자꾸. <지원>

흔히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상징되는 주거 빈곤의 문제는 여성들에게는 보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안전 문제로 인해 지옥고에 머무는 것이 더 위협적인 경험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한 방을 쓰더라도 셰어하우스처럼 보다 안전한 공간을 선택하거나, 더 높은 주거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더 좁은 공간을 점유하게 되기도 한다. 다은은 고시원이라는 공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나온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1 층에는 다른 게 있었고, 2 층이 아마 고시원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화장실처럼, 상가 같은 데는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요, 계단과 계단 사이에, 그런 데서 이제 남자들 욕실인 거에요.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샤워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있었고, (중략) 방이 아마, 제가 있던 층에 아마.. 한 열 다섯 개? 근데 방음이 진짜 하나도 안돼요. 진짜 하나도 안 되고,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온 거거든요. (중략) 나이 든 아저씨들이 이제 술 마시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전화하는데 그게 밖에 나가서 하는데도 다 들리는 거에요. 너무 무

> 섭잖아요. 무서워서 그때 바로 검색해서 찾은 게 여기거든요. [같은 동네 셰어하우스에] 타이밍이 좋게 딱 빈 방이 있는걸 발견을 해서 바로 다음 주에 이사를 갔어요. <다은>

편리성을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했으나 개인 공간이 없는 생활에 지쳐 밀려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은 수도권 바깥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 서울로 올라오며 셰어하우스에 살기 시작했었다. 보증금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면서 월세 부담도 적고, 따로 가구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셰어하우스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지원은 셰어하우스를 "오래 살" 만한, "쾌적한 곳"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 이런 것들이 갈수록 좀, 아 여기는 살려고 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빨리 나가게, 거기가 로테이션이 되게 빠르거든요. (중략) 오래 산다고 하기에는, 일인 실은 모르겠지만 4 인실이나 뭐 2 인실은 수납 공간이 너무 현저히, 너무 부족하고, 튼튼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략) 서로 그런 피로도가 쌓여가다 보니까 사실 서로 좀 예민해지고, 많이 지치고, 거의 병들… 병들어서, 저하고, 그때 같이 방 썼던 친구들은, 정말 약간, 정말 병 들어간다 이게, 지쳐서 그랬었어요. 그 와중에 4 인실이 되게 돈독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어떻게 기회가 되서 부모님 지원으로 이렇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들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도 같이 살래? 그래서 그 중에 세 명이 이렇게 나와서… 네. 쉐어하우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지원>

지원이 거주했던 셰어하우스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였음에도 최대 인원이 여덟 명이나 되었기에 지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었다. 화장실이 딸린 가장 큰 방에는 네 명이 한 방을 사용했다. 지원은

이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과 매우 친해져 훗날 함께 쓰리 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지만, 이렇게 한 방에서 부대끼며 지내던 경험을 결코 '건강'한 경험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지원은 이처럼 '방 같은' 셰어하우스에서 각자의 개인 방이 있는 쓰리 룸으로 방을 구해 이사하기까지의 여정을 '탈출'이라 표현한다("탈출, 정말 탈출 했어요.")[33][34].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혼자의, 비좁은, 고립된, 외로운 거주 공간을 '집 같지 않은' 곳, 즉 '방 같은' 곳으로 인식했다. 이 때 연구 참여자들이 바라는 '집 다운 집'은 '방 같은' 곳과는 대립되는 특성을 가진 곳이 된다.

3. '집 다운' 집 열망하기

원가족과 독립해 살게 된 비혼여성들은 하위주거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집 같지 않음'을 감각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나아가 타파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지만, 이유를 모른 채 무기력증과

---

[33]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정은의 경우는 이 같은 민간 셰어하우스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다. "진짜 기가 막히게 가격을 책정해 놨더라구요. (중략) 국가에서 주거권을 보장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딴 데 이 큰 돈을 주고 살게 하는구나. (중략)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건물주들이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셰어하우스 운영 법 같은 게 써 있어요. 이런걸 공유를 하면서…." <정은>

[34] 셰어하우스는 2011년 초 국내에 도입된 후 가파른 속도로 그 시장이 성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적절한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양산되어왔고, 여러 명이서 한 방에 생활하면서도 낮지 않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들을 발생시키며 일명 '예쁜 고시원'이라는 오명을 얻는다. 셰어하우스 문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은 1인 1실이 보편적이지만 국내에서는 2인실은 물론 더 많은 인원이 한 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제제는 없는 실정이다.
최아름, "민간 셰어하우스 '8인 1실' 불법 아닌 이유", 2019.10.21, 더스쿠프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577689&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우울에 시달리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이유를 모른 채 이 같은 무기력함, 우울을 경험한 이들은 ① 더 나은 주거 공간의 경험, 혹은 ② 일상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적 환경을 경험하며 이전의 좁은 공간에서 느끼던 부정적 감정들의 원인을 깨닫게 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들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에 거주하던 곳을 '집 같지 않은' 공간, 즉 '방 같은' 곳으로 의미화했다. 이때 '집 다움'을 말하는 방식은 연구 참여자들마다 조금씩 달랐다. 그렇지만 대게 연구 참여자들이 말한 '집 다운' 집은 '방 같은' 곳과 대비되는 곳으로서, ① 일상적, 이벤트성으로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곳, ②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 ③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 가능한 곳, ④ 건강을 해치지 않는 곳, ⑤ 정주 가능한 곳. ⑥ 안전한 곳 등을 의미했다.

표 4 연구 참여자들에게 '방 같은' 것과 대비되는 '집 다운' 것의 의미

'방 같은'	'집 다운'
고립된	일상적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사생활을 지킬 수 없는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 느낄 수 있는
건강을 해치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정주 불가능한, 떠도는	정주 가능한
안전하지 않은	안전한
…	…

정은에게 '집 다운' 곳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동시에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곳이었다. 정은에게 있어 이러한 조건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 조건이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는 주거 공간이 많은 현실을 비판했다.

지원은 집 같음의 조건으로 관리가 잘 되어서 본인의 통제 하에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을 말했다.

> 깨끗한 거, 관리가 되고 제 물건이 드러나 있고 해서, 깨끗한 그 제가 아는 그 상태로 있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데, 제 통제 하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리하고 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다,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그래야 제 공간 같고, (중략) 내 공간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지원>

'집'은 거주자의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지원에게 이전에 살았던 셰어하우스는 개인의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공간'이라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공간이었다. 또한 '임시적'인 거주의 형태가 통제감 · 소속감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좀 더 정주적인 거주를 원한다고 지원은 말했다.

> 저희가 셰어하우스나 뭐 이런 데에서 계속, 서울에 독립을 해서 왔는데, 계속 집 같은 그런 집이 없고 임시로 계속 거쳐 가는, 계속 이런 곳에 있는 게 다들 너무 지쳐 가지고, 서울에 정착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컸거든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집,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자립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런 포부가 있었는데, (중략) 어디를 전세를 얻고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얻을 수 있는 데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거쳐 갔던 집들을 다 뭔가 정말 잠깐 있을 집들 같은, **방 같은**, 그런 데였어서. <지원>

잦은 이사는 높은 피로도를 유발하고, '(물리적으로는) 독립을 했으나 (제대로 된) 독립을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느끼도록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연구 참여자들을 놓이게 한다. 셰어하우스의 같은 방에서 함께 살던 지원과 두 명의 룸메이트는 이런 불안정한 서울에서의 독립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얻기를 소망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또한 집은 일상 · 비일상적인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칸에 모든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원룸 공간은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기에 타인을 초대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문턱이 높은 일이 되며, 집에서의 사회적 교류를 포기하는 편을 택하게 되기도 한다.

> 원룸에는 그 쪼만한 방에다가 그 플라스틱 협탁 펴가지고 앉아서 친구들이랑 노는게 너무 싫은 거예요. (중략)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상호작용을 할 수 없게 집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밖에서 [다른] 공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카페를 가거나...<정은>

정은은 이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있기에 마땅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집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정은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집 안에서만 한동안 생활하더라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집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이 같은 조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 '방' 같은 공간들을 양산하는 주거 공급 체제에 대해 비판한다.

>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옷을 보관할 만한 공간들이 있어야 되구요, 옷 뿐만이 아니라 창고 같은 의미로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물건들은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 요리, 어쨌건 이 사람이 집에 갇히더라도 살 수 있는, 집에 갇히더라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그걸 갖출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카페가 이렇게 흥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도 자꾸 밖에서 사 먹게 되고 이런 게, (중략) 집에서 못

해먹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은>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집 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거 전략을 구사한다. 이때 함께살기는 '방 같은' 공간에서 탈출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집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되고 상상해 보지 않은 정주형태를 모색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제 2 절 함께살기의 시작

'집'이 전형적인 가족 생활의 근거지로 인식될 때, 가족 생활을 벗어난 함께살기는 재현되지 않는 영역에 위치하거나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살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살게 되며 함께살기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장기적 함께살기를 모색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 명이 사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또는 재생산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혹은 집에 누군가가 있어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집 같음'을 느끼기 위해 함께살기를 선택하기도 했다. 그리고 각자만의 이유로 다시 흩어지거나 구성원이 변하고,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 방법, 혹은 따로 살며 '함께'라는 감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하기도 했다. 이번 절은 '방 같은' 공간을 떠난 연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살기를 모색하기 시작한 지점을 출발 점으로 삼는다.

1. 함께살기 발견하기

1) 우연한 발견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는 시작하기 전에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거나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면이 있다. 주영은 특히 이처럼 주거공간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계기로 불특정 다수와의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기숙사' 생활을 꼽았다.

>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일등 공신이 기숙사라고 생각해요. 학교 기숙사. 거기는 너무나 많은 빌런(villain)들이 있고, (하하하) 내가 내 룸메이트들을 고를 수 없고, 그리고 저는 학교 기숙사가 5 인 1 실이었거든요. 진짜 끔찍했어요. (중략) 우리 둘은 '이제부터 우리 같이 살 사람이야' 이러고서, '안녕, 잘 부탁해'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에. 서로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나이 동갑이고 성별 같고, 뭐 이름 뭐고. 약간 이 정도만 알고 지내다 보니까 이 거를 간극을 전혀 좁힐 수가 없고 대화가 불가능한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이후에는, 그 친구 다음에는 이제 저랑 마음이 맞는 친구랑 같이 들어 갔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 이 차이가 있구나. 이 차이가 있구나. 기숙사가 사람들에게, 함께, 같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는 삶이 좀 끔찍하다는 기억을 심어주는구나, 이걸 좀 그때 생각했어요. <주영>

주영은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숙사 실 배정으로 인해 학생들 간의 불화가 있었던 경험,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지만 나이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방을 함께 사용하게 된 룸메와의 긍정적이지 않았던 경험들을 통해 기숙사라는 곳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는 삶이 좀 끔찍하다는 기억을 심어주"게 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함께 살며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주영은,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경험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우연한 계기로 함께살기의 이점을 발견한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함께살기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게 되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셰어하우스에서 첫 원가족과의 독립을 시작했던 지원은 셰어하우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함께살기의 이점을 발견하게 된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셰어하우스에 살기 전에는, 셰어하우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였고. 그 전에 저는 다른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대 나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산다니, 말도 안된다, 난 가족과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경험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저에게 굉장히 이로운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지원>

지원에게 셰어하우스라는 공간은, 그 곳에서 빠져나와 다른 공간으로 이사한 경험을 “탈출”이라 표현할 정도로 “피로도가 쌓”이고 “지쳤”던 경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살기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공간이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지원은 셰어하우스에서 살아본 경험을 통해 사실은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이로운”부분이 많기에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은주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가족의 간섭을 떠나 혼자 사는 것이 좋았지만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외로움을 느꼈었다. 그러던 중 사업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경제적, 감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이득이 많”다는 것을 느껴 그 이후 함께살기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었다.

> 처음에는 직장을 좀, 사업이죠, 동업을 잘 이끌어 가보려고. 의무적으로 그래서 한 1~2 년은 같이 살아 보자 라고 정했던 게, 같이 살아 보니까 여러모로 이득이 많았던 거에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고, 그리고, 그냥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위안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좋고 그래요. 그리고 뭐 밥을 하나를 해 먹어도 같이 먹고, 같이 나가서 술도 먹고 <은주>

대학 동기의 가족들(오빠, 남편)과 함께 넷이서 살고 있는 민영은 우연히 상황이 맞아떨어져 임시적으로 함께살기를 실천하고 있었지만, 이런 경험에 대해 "너무 좋"다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서로 뭐 축하 파티를 되게 많이 해요. 대단하게가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뭐, 뭘 했는데 어디 가서 뭐 축하 파티나 하자. 어디 가서 같이 저녁 먹고 뭐 와인 한잔 하고, 그 밤에 시간을 같이 보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개인적으로 각자 따로 생활을 하다가 딱 시간이 맞으면 같이 저녁 식사하고 주말에 뭐 브런치 하러 가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민영>

민영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살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 경제적 여건이 될 시 현재 머물고 있는 거처에서 혼자 사는 곳으로 일단은 이사를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같은 함께살기의 좋았던 경험이 "각자 따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도 시간이 맞을 때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말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방식의 함께살기에 대해 새로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소현의 경우에는 비건 지향인으로 생활을 하다 원가족과의 마찰로 인해 집에서 나왔을 때, 우연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비건, 비혼, 페미니스트들의 공동체 하우스에 입주할 기회가 있어 함께살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혼자 살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연히 조건이 맞아떨어져 입주하게 된 공동체 주거에서 소현은 함께살기의 긍정

적 측면을 발견하게 되고 해당 협동 조합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함께 살았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신념을 조합원들과 함께 실현하고자 노력 중이었다.

2) 적극적 시도

공동 거주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우연히 함께살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연구 참여들도 있었다. 다음은 협동조합형 공동체 주택에서 거주했던 한 비혼여성의 인터뷰중 일부이다.

> 최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고 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재까지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진심으로 의지할만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지만 최씨는 "그게 꼭 결혼을 통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35]

위 기사의 인터뷰이는 예전부터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던 인터뷰이는 혈연 가족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의지할 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터뷰이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 비건, 비혼,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주택을 꾸렸었다.

정은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룸메이트를 갖길 원했고 기회가 생겼을 때 실행에 옮겼다.

---

[35] 홍상지, "지금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목소리 내기 시작한 비혼여성들, https://news.joins.com/article/21729708

> 제가 항상 룸메를 갖고 싶어 했었어요. 옛날부터. 원래, 작년에 독립했을 때도 여자친구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혼자 독립하려고 했던게 아니었는데 직전에 깨져 가지고 혼자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맙소사 이러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반달 하면서 현정이한테 '아 나 룸메이트 필요하다, 나중에 너 그때, 그때 막, 룸메이트로 같이 사는 걸 지향해보자' 그런 얘길 했었고 <정은>

정은과 현정은 주거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혼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모임 '반달'의 일원이다. 이 모임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많은 구성원들이 실제로 함께살기를 계획하거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연히 함께살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함께살기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을 명확하게 경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는 주로 쉽게 재현되지 않는 영역에 있어 보다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문턱을 넘어 지속가능한 대안적 거주의 방식으로의 함께살기를 모색하기 시작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함께살기는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3 절에서 다룬다.

2. 공간이 만드는 공동체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데에 있어 적절한 물리적 공간이 뒷받침되는 것은 중요한 조건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 경험에서, 거실과 같이 넓으면서도 어느정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각자의 사생활이 어느정

도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공간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수민의 경우에는 여동생과 함께 거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온 후 그 집을 거점 공간으로 한 좀더 끈끈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제가 원룸에 살기도 했고 원룸에 두 명이 사니까 이미 친구를 초대하기가 [어렵죠] 너무 포화 상태니까. 그래도 오는 친구들이 있기는 했지만 거기는 뭔가 커다랗게 커뮤니티가 생기는 공간 자체가 아니었는데, 16 년을 여기로 이사 와서 공간이 넓어지면서 처음으로 집들이를 초대해 봤는데 여기 열 명이 잘 수 있더라구요. (중략)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집의 캐퍼시티(capacity)를 약간 알게 된 거죠. 아, 이 정도 모임이 될 수 있다, 한 열 명 정도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때부터 계속 뭔가 여러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집들이도 하고. 꾸준히 했던 행사가, 15 년부터 했던 행사가 명절 나기 행사 이런 걸 계속 했었거든요. (중략) 어쨌든 그 커뮤니티 망 안에서 시작이 된 건데, 긴밀하게 붙은 건 공간이 생기면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게 '장소가 만드는 관계망은 따로 있다'. 온라인 기반도 기반이지만 그것을 다른 식으로 연결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꼭 주거지가 아니더라도. <수민>

수민은 2016 년 경부터 원래 활동하던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티가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긴밀한 형태의 공동체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나서야 더 긴밀한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겨난 공동체에 어떤 이름을 붙일 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생활공동체'라는 명명을 생각해 냈다. 이들은 계간지 집필, 세미나, 강연, 토론회 참석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36].

[36] 이윤주,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걸 보여주려고 비혼공동체 만들었죠",

은주의 경우에도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거실 공간을 주변의 혼자 거주하는 동료들을 모으는 구심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 실제로 그렇게 [거점 공간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우리 또래, 이런 좀 같이 모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약사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서 혼자 사는 친구들, 지방에서 와서 혼자 사는 친구들을 L 구 쪽으로 다 모으자. 다 모아서 서로 챙겨주고 살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저희까지 한 여섯 명? (중략) 모여라 하면 또 모이고. [거실에서] 모일 수 있어요. 다같이. <은주>

수민, 은주의 경우에는 적절한 물리적 공간이 뒷받침되었을 경우에 느슨하건 촘촘하건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사를 통해 적당한 공간이 생기고 나서야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한 모임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경우이다. 반면 이미 모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번 적당한 공간을 찾는 일이 벅차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비혼 · 퀴어여성 함께/살기 모임 '반달'의 일원인 정은은 원래 거실 공간을 정치 ·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었으나 충분히 넓지 않아 그러지 못했으며, 외부에서 적절한 모임의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표했다.

>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싶었는데, '반달' 인원이 다 안들어와요. 열세 명이잖아요. 스탠딩 파티 해야돼요. 하하하 (중략)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을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그래도 그나마 S 구는 괜찮은데, H 구, E 구, W 구 이쪽은 진짜 그럴 만한, 그런 정치적으로 뭔가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공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매번 그래서 욕하면서 S 구까지 가요, 막.

한국일보, 2018.11.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71763738044

내가 왜 여기까지? 이러면서. 이쪽은 진짜, 청년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도모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정은>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집 안에 위치할 필요는 없지만, 쉽게,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도시공간에서, 원룸 이상의 집은 때로 그나마 편안히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럴 의도가 있었지만 공간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3. 함께살기와 '집 다운 집'

결혼을 통해 가족을 만들고 이사하는 것은 가장 널리 알려진 '집' 꾸리기 방법이다. 이러한 '집'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꾸려 나가는, '가족'과 '공간'의 집합체이다. 이 절에서는 이처럼 주로 결혼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집'의 각각의 요소들, 즉, 관계 맺음, 물리적 공간, 가사 노동 등의 요소들을 비혼여성들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꾸려 나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는 '방'같은 곳이 아니라 보다 '집 다운'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들의 주거 생활에서 어떤 점들을 새로이 발견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1) 일상적 교류

근대적 공-사 구분은 가족으로 이루어진 사적 영역과 일터인 공적 영역을 양분하며, 주거 공간은 1 가족 1 주거를 기준으로 분절되고 단절된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양분되고 적절한 전이 영역이 없이 구성된 도시주거환경에서, 특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양산된 원룸형 공간은 더더욱 고립적이고 단절적인 좁은 공간성을 가진다. 이는 개인들

을 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스럽고 새로운 관계 맺음을 상상하기도, 실천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원룸의 공간에서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끼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지만 룸메이트가 있는, 그리고 휴식의 공간과 분리되어 생산 활동이 가능하게 해준 거실이 있는 지금의 집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다(현정, 지원).

> 혼자 살 때는 되게 가기 싫은 데였어요. 집에 가면 너무 외롭고 집에 가면 딱 집에 왔을 때 안녕~하는 룸메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중략) 요즘은 가기 싫은 곳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중략) 집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안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정>
>
> [혼자 살면] 밖에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야만, 타인과 뭔가 이렇게, 되는데, 누군가랑 같이 살면 그냥 집에 들어와서 일상적인 소통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을 별로 만나는 편이 아니고, 제 성향상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저의 상황도 그렇고, 해서, 사람과 이렇게 많이 만나거나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거나, 소통이 이렇게 활발하게 있는 편이 아닌데, 집에 누가 있으면 그런 소통을, 일상적인 소통을 계속 하게 되고, 그게 저에게 자극도 주면서 되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되게.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을. 바로 그거, 정서적인 안정감. 해서, 밖에 나가서도, 어딜 가서도 뭔가 제가 안정되어 있는, 정서적으로, 뭔가 지지층이 있는 거 같은 기분이 가장 컸어요.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게,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되게 큰 지지가 되더라고요. <지원>

현정에게 집은 혼자 살 때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룸메와 함께 살고 있고, 모든 것이 한 방에 몰려 있지 않아 침실이 아닌 거실 공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현정에게 집은 더 이상 그 곳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안 좋은 신호가

아니"게 되었다. 지원의 경우, 혼자 살 때는 일부러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타인과 소통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원래 "사람을 별로 만나는 편"이 아니기에 그런 일상적 소통이 어려웠을 것이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집에서 일상적인 교류가 일어난다는 점이,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지지"가 되었다고 말한다. 후에 너무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셰어하우스에 피로감을 느껴 결국 "탈출"하게 되지만,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들과 함께 이사를 하는 것을 택한다.

2) 초대의 문턱이 낮은 공간

연구 참여자들이 함께살기를 실천하고 있는 집은 앞서 본 것처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과 일상적인 일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주거 공간으로 부르는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기도 했다. 은주의 경우에는 혼자 살 때는 집이 너무 사적인 곳이라 "누가 들어오기가 벽이 높"은 공간이라 느꼈지만, 지금은 보다 쉽게 다른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아지트"처럼 쓰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을 만족스러워했다.

> [이제는 집이] 좀 더 퍼블릭한 느낌. (중략) 혼자 산다면 완전 여기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돼서, 누가 들어오기가 벽이 높을텐데, (중략) 저는 이 공간을 약간 좀 퍼블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지트처럼. 같이 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같아요, 더더욱. <은주>

3) 안전 비용이 적은 공간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살기를 통해 혼자 살 때에 비해 훨씬 안전함을 느끼기도 했다. 성별화 된 안전 감각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상황에서 혼

자 사는 여성들에게 도시공간은 끝없이 안전비용을 요구한다. 안전비용은 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에 쏟게 되는 인지적 자원, 그리고 안전에 관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도시공간이 여성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혼 제도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불안을 겪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37]. 함께살기는 이러한 안전비용의 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짐을 덜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실천이기도 했다. 정은은 이러한 안전비용을 줄이고 싶었던 것도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길 원하게 된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 창문을 열고 자고 싶은데 이게 아무리 그 창이 있어도 그 방충망이 있어도, 그 불안한 거예요. 누가 들어오거나 환기같은 거 시키고 싶은데 창문 마음대로 열어두기가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서운 일 같은 거 있으면, 좀 약간 이제 집에 누가 구경을 온다거나 할 때 남자, 남자 분 혼자 들어오거나 이럴 때 되게 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제일 크고. <정은>

---

[37]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안전한 집'과 '높은 월세'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서울 중심가와 가깝고 인적이 많은 주거지일수록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현실 때문이다.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참가자는 "월세가 높아서 거주지를 아예 지방으로 옮겼는데,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다 보니 만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했다.
여성들의 안전 비용은 집을 구한 뒤에도 계속 발생한다. 주거 침입을 막기 위해 도어록이나 창문방범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 연구위원은 "비혼여성들은 '내가 가족제도에 들어가 있지 않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나'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된다"며 "안전비용은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안전한 집 찾자니 높은 월세 '불안 삼중고'", 경향신문, 2019.1.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42137005&code=940100&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csidx8fa97a23caba49699f81d8ea2af7522,

> 최근에 제 룸메가요, 문을 열고 집을 나간 거예요. (중략) 활짝 열려잇는 거에요. 집에 왔는데, 퇴근하고 왔는데, 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중략) 만약에 그런 일을 나 혼자 살 때 겪었다, 그러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 거예요. 경찰이 와서 다 확인을 해 주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불안을 했을 거 같은데, 확실히 현정이가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물론 현정이가 엄청 힘이 세거나 그렇진 않지만 <정은>

혼자 살 때 안전 문제로 걱정이 많았던 정은은, 룸메이트인 현정과 함께 살고부터 훨씬 안전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룸메이트가 실수로 문을 닫지 않고 나가, 돌아왔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어 놀랐던 적도 있지만, 함께 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안심이 됐다고 말한다.

4) 재생산 노동의 효율

혼자 살 때에 비해 함께 살 때 발생하는 또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활비와 가사 노동 시간의 절감을 이야기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정은은 재생산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이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또다른 이유였음을 말했다. 실제로 정은은 훨씬 많은 노동력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소현의 경우에도 혼자 살 때에 비해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나은 컨디션의 공간에서 쉴 수 있어 좋다는 점을 언급한다.

> 생활비랑 가사 노동을 좀 줄이고 싶었어요. (중략) 혼자 살 때는 내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다 이걸 내가 혼자 케어를 해야 되는데, 둘이 살면 일은 1.5 배 정도 늘지만 어쨌건 이거를 둘이서 나눠 하니까 혼자 살 때보다 훨씬 그, 재생산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중략) 줄었거든요. <정은>

> 원룸에서는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청소를] 하지 않는데, 없으니까 저밖에, 그러니까 그냥, 그냥 쉬는데, 똑같이, 거기서도 쉬고 모두들에서도 쉬는데 이제 먼지가 폴폴 날리는 방에서 쉬는가 하면 여기서는 좀 덜 그런 거, 정말 객관적인 컨디션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좀, 제가 그냥 막, 그렇게 제 자신을 돌보는 거에 능숙하지 않은 편이라서 쉴 때는 한 삼일 쉬면 삼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 있기도 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챙겨주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고, 또 그가 그럴 때 제가 챙겨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더 풍요로워졌어요. 같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소현>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말하는 소현은, 혼자 살 때는 힘들고 지칠 때 "먼지가 폴폴 날리는 방에서" 쉬어야 했지만, 구성원들과 가사 일을 분담하게 되면서 자신이 당장 가사 일을 하는 차례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컨디션의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사 노동 뿐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 부족할 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 줄 수 있고, 또 자신도 다른 구성원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살기를 "풍요로"운 것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제 3 절 함께살기의 어려움

한국 사회에서 비혼여성들의 이 같은 대안적 함께살기는 종종 문턱에 부딪힌다. 어려움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난다.

1. 설명하기 어려운 함께살기

규범적 시공간성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거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곧 끊임없는 변명을 요구받는 일이다. 비혼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는 것뿐 아니라, 유일하게 용인된 결혼이라는 규범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일탈적이고 재현되지 않는, 해석 불가능한 영역으로 배치된다. 이런 배경에서 은주는 두 명의 다른 여성들과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며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지만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 각 집에서는, 너무 이 셋이 재미있으니까 결혼을 안 한다, 할 수 있는 애들인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점점. (중략) 그거를 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부모님은 너무, 부모님 입장은 너무 이해가 가요. 내 자녀가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살거나, 여자끼리 사는 건, 사실 괄시당하기 쉬운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하나 씌워지잖아요. 그걸 부모님이 바꿔 줄 순 없는 입장에서 어쨌거나 그냥, 소위, 소위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살았으면 하는 부모님 마음 너무 잘 알겠고, 그래서 다른 명분을 제공해드리는 편이 더 낫겠다, 그냥, 그 명분 중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잘 먹히는 건,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봤을 땐 그 거예요. 또는 뭐 자기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 정도면은 사람들이 '그치 요즘은. 그래~ 능력 있는 사람들은 혼자 살더라.' 정도로 넘어가요. (중략) 그 사람들한테는 혼자 사는 거야. 결혼을 한다, 안 한다만 있지, 그렇지 않아요? '동료들하고 같이 살아' 이 말은, 그 어르신들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결국 혼자 사는 거잖아, 결혼 안 한 거는, 그러니까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세계 밖에 없고, 아 그래, 같이 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그들은 하지 않죠. 어쨌건 혼자 사는 거지. <은주>

은주의 집 꾸리기는 그것이 아무리 안정적이더라도 “혼자 사는”것, 따라서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관념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혼자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축되는 상징 체계 안에서 ‘혼자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는 오직 혼인 여부로만 구축되며 결혼만이 유일하게 이해 받을 수 있는 ‘혼자 아닌’ 집 꾸리기 방식이 된다. 이 때 조금이나마 부모 세대의 주변인들에게 이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제력이 좋으며 결혼 대신 일을 택한 독신 여성’이라는 환상, 즉, ‘골드미스’ 담론을 내세워 회유하는 것이라 은주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함께살기에 대한 몰이해는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 [집 구할 때] 젊은 여자들 셋이서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사는 경우는 잘 못 봤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뭐 요즘 뭐 결혼을 하니 안 하니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최대한 개인정보를, ‘누구 같이 살 거에요’ 그러면 그냥 뭐 ‘사람들 같이 살 거에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이 길어지니까, ‘무슨 일 하시길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왜 결혼 안 하시고’ 부터 해서, ‘결혼 안 하는 게 낫다’는 둥, 그때부터 계속 얘기가 펼쳐지니까. 그냥 얘기 안 했어요. <은주>

은주는 부동산을 통해 방을 알아볼 때에도 결혼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들(“무슨 일 하시길래”, “왜 결혼 안 하시고”)을 마주한다. 반복되는 물음들을 접한 은주는 그 이후 방을 구할 때 최대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편을 선택했다.

한편, 정은의 경우에는 자신이 아직 “결혼 적령기 애들”이 아니기에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방을 구하면서 불편한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정은과 현정의 함께살기는 '청년'이라는 생애주기, 즉 결혼하기 전의 여성들이 행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되기에 비교적 안전하게 주류 담론 속으로 포섭된다.

> 아직 20 대다 보니까 뭔가 그냥 학생들, 대학원까지 다니면 좀 학생이 기간이 길어지나요, 요즘에는. 그래 가지고 막 그렇게 결혼 적령기 애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나보다, 이런 느낌의 시선이었던 거 같아요. 그치. 결혼 안하고 여자 둘이 같이 살아? 이거 보다는 음~ 결혼 하기 전에 친구랑 같이 살 수도 있지~ 이런 느낌으로. <정은>

규범적 시공간성은 상징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도 함께 작동한다. 소현은 정책 속에서 비가시화된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함께살기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 자꾸 청년한테 지원해주는 집이나 뭐, 우리가 그 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집은 원룸 이거나, 투룸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혹은, 또 최근에 했던 얘기는, 신혼부부야 아니야, 아니면 혼자 살겠네 이렇게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 내야만 1 인가구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호적에 올려야만 신혼 부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거나, 관계를 계속 그런 식으로 재단해 버리는, 싹둑 싹둑 잘라 버리는… <소현>

소현은 이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관계를 끊어 내거나 혹은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느끼고 있었다. 결국 결혼 제도 밖의 관계에 대한 부족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주거 지원 제도는 다종다양한 관계들을 납작하고 평면적으로 해석하고 만다.

2. 적절한 주거 공간 구하기의 어려움

도시조직과 주거공간이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획될 때, 젠더와 생애과정의 비규범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비혼여성들에 있어 적합한 주거공간 구하기란 그 자체로 도전적인 것이 된다. 근대적 핵가족 생활을 표준으로 공급되는 주거 공간은 다른 형태의 친밀성 양식을 가진 함께살기를 위한 공간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합한 집을 구하는 일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며칠을 돌아다녀도 일단 아파트가 아니고서야 투룸 이상의 빌라 방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중략) [원하는] 조건을 내면 터무니없이 비싼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 너무 방이 작거나 거실이 너무 작거나.. 그래서 따로 살아야 하나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보라>
>
> 투룸 알아볼 때도 방 크기가 같이 안 나오고, 거의 신혼부부 중심으로 나와서, 2 인이 거주한다 하면 다 신혼부부인 줄 알아가지고. 거실이 이렇게 있고 큰 방 침실로 쓸 거, 옷 방으로 쓸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가 한 명이 월세를 적게 낸다 그래도 도저히 쓸 수 있는 방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지원>
>
> 목표가 그래서 방 사이즈 비슷한 집 구하기 였어요. 햇빛도, 둘 다 햇빛은 드는데 이제 한 쪽은 밤에 들고 이제 한 쪽은 낮에, 해 뜰 때 든다는 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은>

세 명이서 함께 살 곳을 구하러 다녀야 했던 보라는 방을 구하기가 유난히 어려워 함께 사는 걸 포기해야 할 지 고민하던 찰나 마지막으로 본 집이 마침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어서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원은 둘이 살기 위해 방을 보러 다닐 때의 '2 인이 거주한다 하면 다 신혼부부인 줄' 알아서 힘들었으며, 방이 여러 개 있다면 보통

거실, 부부 공간,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되기 때문에 월세를 다르게 내더라도 도저히 주거 구조와의 타협이 어려웠음을 토로했다.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 기획은 이처럼 종종 '방 사이즈 비슷한 집 구하기'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되기도 한다. 부부 공간 중심의 실 배치는 채광이 어느 방에 집중 되는지의 여부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반면 다수의 전문직, 정규직의 구성원들로만 이루어져 보다 경제적 상황이 나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한다.

>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편이었던 것 같은 게, 이번에는 자본의 제약이 좀 덜 했잖아요. 그 전에는 힘들었던 거 같아요. (중략) 지금은 완전 만족스러운데 그러기까지 전문직 고소득 여성 셋이 7~8 년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애를 키우면서, 애는 돈을 못 벌고 쓰기만 하잖아요. 애를 키우면서 둘이서 맞벌이를 한다고 치더라도 애한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셋이 다 돈을 번다는 건 되게 대단한 거구나. 셋이 그렇게 벌어 대니까 돈이 쌓이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약간 이렇게 오래 살아도 되겠다. <은주>

은주는 이처럼 "전문직 고소득 여성 셋이" 돈을 버는 환경이 오히려 "돈을 못 벌고 쓰기만 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경우보다 더 수월했을 것이라 여겼다. 이처럼 경제 계급과 젠더, 그리고 비혼이라는 비규범성은 서로 교차하며 얽혀 있다.

3. 생활 양식과 맞지 않는 공간과 협상하기

1) 가족의 공간

아파트 평면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상품성이 높았던 평면인 '거실중심형' 주택이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나아왔다(서원기,

2010). 이러한 거실중심형 평면은 거실을 중심으로 개방되는 여러 개의 방들을 가지는데, 방들은 주로 '안방'으로 칭해지는 하나의 마스터룸과 다른 한두 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보편적 평면형은 아파트 뿐만이 아닌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안방은 주로 가장 큰 크기를 갖고, 위치상으로도 가장 주요한 지위, 햇빛이 가장 잘 들고 가장 면적도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보편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의 분배는 종종 쉽지만은 않은 문제가 된다.

> 도면을 놓고 약간의 신경전은 물론 있죠, 신경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했죠. 가장 좋아하는, 가장 선호하는 방이 어디야, 그러면은 다 똑같은 거 같지만 또 좀 다르긴 하구요. 근데 겹칠 경우에는, 면 네가 이 방을 쓰면 대신에 내가 집안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집안 일을 안 하고 빛이 안 드는 데서 살고 있어요. 집안일을 하지 않아요, 바빠서. 그냥 도와주겠다,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 메인으로 그러면 큰 방 쓰는 친구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그래도 가끔 억울해하고. 그런 합의 구조가 좀 잘 발달돼 있죠. 같이 살고 하니까 그리고 뭐 붉히고 싸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얘기하는. <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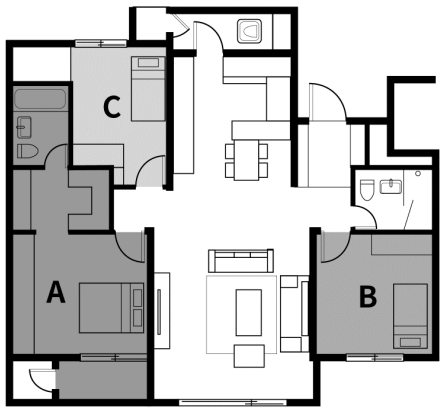


그림 15 아파트 평면도 예시 (자료: 아파트 분양 홍보용 평면을 재구성)

소현의 경우에는 기성품처럼 찍혀 나오는, '가족을 상상하고 만드는 집'에 불평하며, 집 '안방'이 집의 중심적이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서 오는 직접적인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 집이 기성품처럼 뚱뚱뚱 찍혀서 나오니까 뭐, 이런 저희같이 공동주거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 아닌 거예요, 애시당초에. 가족을 상상하고 만드는 집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내가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중략) 창이 안방에 더 좋게 설계가 되니까, 가장 작은 방은 또 빛이 잘 안 들거나 바로 옆에 건물이 또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싫었었는데 근데 그건 또 향이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리고 면적이나, 그리고 저희가 가장 불편해 하는 게 보일러 컨트롤러가 큰 방에 있기 때문에 작은 방에서도 해야 되고, 조심스럽고, 큰 방은 항상 문을 열어 놔야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소현>

소현은 부부 중심의 가족 생활을 전제로 한 투룸, 쓰리룸의 공간은 '안방'에 보일러 조절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아 불편했고, 햇빛이 안방을 중심으로 드는 것이 싫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여곡절 끝에 살 만한 공간을 구하기만 한다면,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비교적 수월하게 공간을 분배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가격을 내더라도 원래 살던 원룸보다 훨씬 질이 좋은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선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발달된 협상과 합의 구조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서로의 방을 정할 때, 크게 이견이 없었던 이유는 직장 생활하는 동거인 B 가 바로 씻고 아침에 출근하기 편하도록 화장실 딸린 안방을 가지면 좋겠다고 동거인 A 와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거인 A 의 방도 화장실만 없을 뿐 전망이나 구조가 예뻐서 동거인 A 도 방을 마음에 들어 했고요. <보라>

> 월세는 저희는 일단 똑같이 나눴는데, 일단 가장 큰 방은, 그 공이 가장 큰 친구에게. (중략) 그 다음에 비슷비슷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큰 작은 방이 있었는데요, (중략) 그 친구가, 아 자기는 원래 가장 작은 방은 써야지 생각을 했었다, 하면서 양보를 해서, (중략) 자기가 이런 공용 공간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겠다, 짐도 많이 내놓고 더, 더 많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지원>
>
> 실제로 지금은 좀 그나마 비슷한 집으로 구했는데, 제 방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이걸 평방미터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 월세를 제가 좀 더 부담하고 있어요. <정은> 그래서 이 친구가 공용 공간에 빨래 같은 걸, 빨래 건조대를 놓을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빨래 건조대 같은 걸 자기 방에 넣어 놓거나. <현정>

보라는 '평등'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에 맞게 양보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라 여겼으며, 동거인 B 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해 모두 이견이 없었고 각자의 공간에 대해 만족스러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물론 치열한 '조건에 맞는 방 구하기'의 이후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임을 이들도 지각하고 있었다. 지원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전에 살던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공이 가장 큰 친구'가 가장 큰 방을 차지하는 데에 이견이 없었으며,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는 친구는 공용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현정과 정은의 경우에는 우여곡절 끝에 구한 방에서 그나마 비슷한 방이지만 월세를 정은이 더 많이 부담하고, 공용 공간에 놓지 못하는 빨래 건조대를 자신의 방에 두는 식으로 조정하고 있었다.

반면, 친밀성의 느슨하기에 비해 주거 공간이 주는 결부감이 구성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지점도 있었다. 청년주거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소현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 확실히 관계가 너무, 너무 밀접할 때, 너무 가까울 때 오는 피로도가 [있다]. (중략) 같이 안 살았으면 안 싸울 일인데 같이 사니까 싸운다. 같이 안 살고 그냥 친구일 때는 누가 설거지를 하든 말들, 너 집에서 설거지 안 한다며? 절교하자,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면만 보여주면 되니까, 사람이 입체적인 모습들 중에 내가 보여 주고 싶은 면만 보여 주면 되니까, 근데 같이 살게 된다는 건 사실 입체적인 면의 모든 면들을 다 보게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면은 발견한다는 거고, 숨기고 싶은 면을 들킨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안 겪어도 되는 갈등을 만나, 굳이 말하자면 안 겪어도 될 것 같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좀 불충분한 거 같긴 하지만, (중략) 나는 나만의 플랜이 있어서 나간다는 조합원들도 있지만 갈등 때문에 나가는 조합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 되게 고민은 계속 많아지는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소현>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전에 형성되었던 주거 공동체들이 와해되고 드물게 남아서 지속되고 있다는 걸 전해들은 소현은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소현이 보았을 때, 주거 공동체들이 흩어지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너무 가까웠을 때 피로감을 유발하기 때문이었다. 함께 살지 않았으면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갈등들이지만, 함께 살면서 입체적인 면의 모든 면들을 다 보게 되면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면들을 낱낱이 서로에게 보이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피로도가 쌓여 결국 다른 방식의 함께살기, 혹은 따로 살기를 모색하게 되는 이유라 추측했다.

2) '

1 인', '청년', '공동체' 임대 주택

수민과 영석, 주영은 공공이 매입 · 임대하는 방식의 공동체 주택에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 인을 기준으로 각각 진행되는 입주자 모집과 심사 과정,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 '공동체'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는 디자인 등에 있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해 활발히 활동을 펼칠 생각이었다.

> 청년 동은 거실 공간이 커뮤니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소파를 기댈 벽면 같은 게 없어요 전혀. (중략) 가운데 앉아 있기가 되게 뻘쭘한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중략) 공간도 공간인데 저희가 지금 엄청 까다로운 상황인 거죠. 왜냐면 가족들은 한 사람이 제일 신용 좋은 사람이 대출받아서 그냥 다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 명씩 다 대출심사 받아야 되고 한 명씩 다 계약금 마련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
> (중략) 명목상에는 '청년들이 너무 1 인가구로 분해되어 있으니 너네도 공동체에 기여라는 것을 좀 해라', 라고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되어 있고, 되게 웃기고, (중략) 그러니까 그냥 명목상 10 동에 커뮤니티실 하나. 뭐 '그 정도면 대충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래? 그럼 청년공동체?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에 데리고 와서 소모임을 만들라고 한번 해 볼까?' 그래서 뭐 '영화모임 모이세요.' 요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임들이 개설이 되어 있긴 한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
> (중략) 방 세 개 있는데 한 명 들어가 있는 방이 딩딩딩딩, 이렇게 일곱 개,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아무도 룸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에요. 서로. 그래서 방 세 개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들어

> 간 거야. 한 호실씩, 이렇게. (중략) 공동체가 이미 있는 사람들은 세 명씩 묶어서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인 가구씩 심사를 한 다음에 '방을 고르세요.' (중략)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사를 저쪽에서 떨어져서. (중략) 혼자서 가서 방을 쓸 순 없으니까. <수민>

이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공동체 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국가유공자를 동으로 구분해 한 단지에서 모여살도록 설계된 곳이었다. 단지에는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신혼부부 동에 있는 도서관 하나와 국가유공자 동 아래 있는 전체 커뮤니티 공간 하나가 전부였다. 이 곳에서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 질 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운 계획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3 인이 함께 사는 호실에는, 원래부터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입주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청년'이면 '1 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방식은, 이들처럼 이미 있는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은 더더욱 없다. 문제는 3 인 1 실인 호실에서 임의의 입주자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다. 수민은 이러한 3 인 1 실의 호실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 결국 한 방만 입주자가 들어와 두 방은 남은 채로 살다 나가는 경우가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결혼하지 않은, 혹은 혈연 관계가 아닌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이 절대적인 금기인 것도 함께살기에 대한 상상력의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이라 지적했다.

4. 주거비 지원 받기의 어려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김하나, 황선우, 2019)」에서 저자는 “자식 결혼시킨다고 생각하라며”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말한다. 소득 대비 주거 비율(PIR: Price Income Ratio)가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 시 부모 세대로부터 주거 지원을 비교적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비혼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놓여 있는 비혼여성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나 규범적 생애과정에서의 ‘결혼 적령기’라는 것을 완전히 지나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 ‘부모님이 보기에’ 결혼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 가족한테 돈을 못 받는 게 진짜.... 절대 안 해줘요, 이게, 저희 세대가, 밀레니얼들이, 이전 베이비 부머보다 돈을 적게 버는 첫 번째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 의지하지 않고 집을 구하는 거는 엄청 막 머리에 힘줘, 능력주의, 이런 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항상 고민이긴 한데 <정은>

때로는 가족에게 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아서 함께 살다가도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 원래 2년 계약이고, 저희도 2년은 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한 1년 좀 안 됐을 때 그 때쯤에, 그,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친구가 부모님과 계속 갈등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속, 그 지원을 해 줬던 명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명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리고 그걸, 그런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해서, 너는 그냥, 부모님 댁 본가로 그냥 와라, (중략) 그 친구가 너무 미안 했나 봐요, (중략) 서울에 독립을 해서 왔는데, 계속 집 같은 그런 집이 없고 임시로 계속 거쳐 가는, 계속 이런 곳에 있는 게 다들 너무 지쳐 가지고, 서울에 정착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컸거든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집,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자립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런 포부가

> 있었는데, 자기가 또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해야 된다는 게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지원>

지원은 '방 같은' 공간들을 전전하는 게 지쳐 두 동거인들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보자는 포부를 안고 함께살기 시작했지만, 보증금을 지원해 주셨던 동거인의 부모님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재정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기도, 공공의 적절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인터뷰이들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이 비교적 쉬운 점을 이용해 "장난스럽지만" "진지하게" 결혼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했다고 말한다.

> 장난스럽게, 그렇지만 진지하게, 신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거인A와 제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혹 더 필요하면 동거인B와 제가 혼인신고를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눠요. 정말 필요하다면 제도를 그런 식으로라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라>

이들은 전통적 친밀 관계의 규범 밖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결혼 제도 안에 안전하게 포섭될 수 없고, 이들 자신도 결혼이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결혼 제도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길 원하진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형태의 주거 공간을 획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결혼은 주거비 획득을 위해 이용을 고려해보게 되는, 그러나 정말로 이용하고 싶은 것은 아닌 최후의 보루처럼 언급되기도 했다.

제 4 장 '집'의 의미 재구성하기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 원리가 가족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을 때, 다른 방식의 주거하기는 결국 구성원들 간의 조율 과정에서 기존의 가족 역할, 집(house)을 '집(home)'일 수 있게 했던 암묵적인 역할과 공간의 분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결국 집의 감각을 다른 방식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주거 공간 내에서 혈연 가족의 성별화된 역할 분담으로 나뉘어 만들어나가는 총체적, 집합적 의미로서의 '집'의 의미를 해체하고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일이 된다. 이는 기존의 주거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주거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아예 새롭게 상상해 그리는 일이 되기도 한다. 달라진 친밀성의 구조가 공간의 구조를 재편할 필요성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제 1 절 함께살기의 다양성과 재조정

1. 다양한 거리와 구조의 친밀성

비혼여성들은 함께살기를 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관계들을 때로는 '가족'이라 부르기도, 다른 방식의 '공동체'라 이름 붙이기도 하고, 이름은 없지만 전략적으로 모이고 흩어질 수 있는 협력적 주거 공동체와 같은 관계를 이루기도 했다.

1) 또 다른 가족, 혹은 가족은 아닌 어떤 것

결혼하지 않은 여성 둘이 함께 살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담아낸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김하나, 황선우, 2019)」에서는 개인들이 결합해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는 형태의 가구원인 자신들을 '분자 가족'이라고 칭한다. 분자 가족이라는 표현은 원자들의 화학적 결합물인 분자 개념에 착안해, 개개인들을 원자로, 개인들이 만나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분자로 빗대어 나타낸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함께 살기의 가구 구성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 저희는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한번 그런 얘기 해 봤었는데 그냥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인데 이제 가업도 있는 거지, [약국을] 가업으로 있는 거지. 우리의, 우리 가족의 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가업이 있는 거죠. 환자들에게 잘하자 이런거. <은주>
>
> 함께 산지 5 개월이 넘어가는데, 정말 식구처럼 느껴져요. (중략) 함께 밥 해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해요. 각자 역할도 정했는데, 저는 인테리어와 대외협력 팀장, 동거인 A 는 회계 팀장, 동거인 B 는 노동 팀장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도 하고, (중략) 이번 주에 지출이 많으면 다음 주에는 지출을 줄이는 계획도 세우고, 반려 동물들 의료비용도 미리 저축하고.. 그런 점들이 저에게도 안정감을 줘요. 정말 가족이 된 느낌. 둘러앉아서 대화하고, 편히 쉬는 시간이 무척 좋아요. <보라>

은주가 구성원들을 처음부터 가족처럼 느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동업을 하기 가장 쉽고 편한 형태로 공동 주거를 기획했던 이들은 함께 살며 점차 이런 생활에 만족을 느끼게 되고, 경제적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점차 더 큰 주거 공간으로 옮겨가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8 여년 간을 함께 하며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라의 경우

에는 당시 5 개월째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서로를 '식구'처럼, 혹은 '가족이 된 느낌'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각자의 역할도 분배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지출 계획도 세우는 이들은 함께 꾸려나가는 생활이 안정감을 준다고 말한다.

한편 정은의 경우 서로를 가족이라고 여기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전 누구랑도 그렇게 [질척질척하고 찐득찐득한 관계가] 되고 싶진 않아요. (중략) 언젠가 그런 정도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묶여 있고 서로 밖에 없는 그런 관계 형태를 지향하진 않아요. [친밀한 관계가 생기더라도]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싶진 않아요. (중략) 애인이 생기면 아마 애인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지 않을까요. 저라면. <정은>

현정과 정은에게 있어 '가족'이라는 것은 '질척질척', '찐득찐득'한 어떤 것이었다. 정은은 누구와도 그런 관계를 새로이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만약 그 정도로 가까운 인연이 생기더라도, 배타적이고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는,'묶여'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애인이 생기더라도, 정은은 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은 규범적 친밀성 각본과 거리 두기를 하며 개별적인 다양한 방식의 친밀성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었다.

2) 대안적 친밀공동체

연애/결혼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인대 개인의 친밀 관계보다 넓은 우정의 네트워크로서의 친밀공동체는 그 자체로 대안적 관계맺기가 되고 있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함께살기를 통해 다양한 거리와 규모의 친밀공동체들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수민, 주영, 성준은 하나의 주거 공간을 구심점으로 형성된 긴

밀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 ‘생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부르는 이들은, 생활공동체는 낭만적 이성애, 그리고 결혼 제도의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친밀관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그러면서도 정치적 활동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긴밀한 공동체로 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생활공동체는 단순히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주거 공동체’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대답했다.

>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그, 만들려면, 그 이름을 붙이려면 뭐라고 붙여야 될까, 이런 식의 공동체를 우리가 구상하고 있고, 공덕동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리고 싶은 소식지를 만들고 싶고, 그런 식의 관계망을 포괄한 이름을 지어서 패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했더니, [주거 공동체라고 하기엔] 주거지를 다 같이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문화모임이라고 하긴 또 이건 너무 느슨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찾다가 '생활공동체' 라는 이름을 찾은 거 거든요. 그랬었고, 그 생활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은 10 월달에 창립총회인 거죠. 그 때 열 명으로그리고 최근에 2019 년 11 월에 한 명이 새로 들어와서 지금은 열 명 입니다. 그러면 그 멤버들이 적을 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아직 안 돼 있어요. 할 지 말 지 고민. (중략) 이 정도면 주거공동체나 경제 아닌 이름을 찾다보니 생활공동체 라는 이름을 찾은 건데 <수민>

3) 전략적 주거 공동체

원래부터 있었던 친밀관계, 혹은 친밀공동체에 기반한 함께살기가 아니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민영).

> 솔직히 저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출을 땡겨와서 서로 부담을 줄이면 좋잖아요. 서로 뭔가 잘 맞는다면. 어 우리 막 같이 살면 재밌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딱, 라이프 스타일 딱 맞고, 돈 딱 되는. 그거를 정말 원하거든요. 이거를, 제 주변에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친구가 없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친구들 밖에 없어요. (중략) 비혼인이 되고 나서 부터 찾게 되는 친구들한테 막무가내로 같이 살래? 같이 살자, 이럴 순 없잖아요. 알게 된지 막 1 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린데, 사람들이 막, 소개팅 어플 알아요? 소개팅 어플에 자기 이렇게 막, 호감도 막 적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어플 하나 생겨서, 소개팅 이런게 아니라, 분명 그것도 악용 되겠지만 그냥 제 상상으로는 진짜 딱, 나랑 아침 시간 점심시간 안 맞고, 맞아도 예민하지 않고, 어디 쪽에서 회사를 다니고 어디쪽 거주를 희망하고, 뭐 이런거 이런거 좋아하고, 이런거 이런거 싫어하고, 딱 맞는 사람 구하면 진짜 같이 살고 싶거든요. <민영>

결혼하지 않고 생애를 계획하며 자력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획득하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비혼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민영은 함께 “대출을 땡겨와서” 주거 공간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이고 협력적인 주거 공동체에 대해 상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주거 공간을 공유하기 위해 반드시 끈끈하고 친한 관계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또다른 가족’, ‘분자가족’, ‘생활공동체’, ‘주거공동체’ 등으로 다양한 명명을 사용해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지칭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관계는 비록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겹치기도 하고,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들의 다양한 관계맺음 방식은, 연구참여자들의 함께살기가 어떤 하나의 형태에 고착되는 상을 보여준다기 보다는 가족제도를 벗어난 개인들

이 어떻게 ‘혼자’ 아닌 ‘합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함께살기는 가족으로 상상되는, 보다 사적이고 긴밀한 형태를 띨 수도 있고, 노동의 분담과 나은 주거공간의 영위를 위한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전략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도 관계는 얼마든지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수 있기도 한 것이었다. 또한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맺음은 주거공간 내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인관관계들로 확장되어 더 넓은 공동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집’이 주로 가족이라는 내밀한 관계와 접착되어 이해되는 것에 비해 연구참여자들은 ‘집’과 그에 담기는 관계들에 대한 유연하고 확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2. ‘집’의 재조정

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거주공간의 특성에 따라 ‘집’에 대한 감각은 주체들마다 동질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 때 가구 구성원들의 관계과 물리적 공간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때, 공간적, 관계적으로 재조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지원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에 살며 정서적 만족을 처음에는 느꼈지만 결국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부딪히게 되는 것에 높은 피로감을 느껴 그 곳에서 “탈출”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이어 나가고 싶어,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들과 함께 집을 얻어 살기를 선택했었다. 지원은 둘이 살 때보다 셋이, 그리고 비록 개인 공간이 없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여럿이 있을 때가 더 각자에게 쓰이는 신경이 적어서 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사를 가고 나서] 개인 공간은, 그 같이 사는 친구도 그렇고 저한테도 개인 공간은 더 넓어졌거든요. (중략) 그 점이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중략) 공용공간을 쓰는 게 어려운 일 같아요. 저희 공용공간이, 거실이 넓었었는데도,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공용 공간을 같이 식사할 때 외에는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그냥 같이 모여서 식사하거나 얘기하거나 술 마시거나 이럴 때 빼고는, 근데 그것도 점점 드물어지고, 횟수가. 각자의 생활이, 더 이렇게 아무래도, 생활이 더 좀 정착, 안정될수록, 각자의 공간이나 각자의 시간이 더 커지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중략) 집에서, 되게 좀 조심하게, 조심하는 그런게 있어요.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같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다른 그 구성원을 보면, 구성원을 마주치는 게 되게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시간에 계속 그렇게 빠져 있다가 갑자기 타인의 보는 게 뭔가 좀 낯설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마주침이. <지원>

이처럼 지원은 각자의 생활이 더 안정적이 될수록, 개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함께살기 위해 나왔던 집이지만 점점 '함께'의 의미는 축소된 것이다. 지원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혼자 사는 곳으로 이사해 당분간은 혼자 살아보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원은 앞으로 주거 공간을 그릴 때에도 완전히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진 않았다. 거실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함께살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원은, 아직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함께살기의 방식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소현의 경우에는 '집'의 구성원들이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 주거에서 살고 있었으나 얼마 후 와해되는 경험을 했다.

> 저희 모였을 때 생활비 가지고 뭐, 뭘 먹고 뭘 살 지, 어떤 샴푸를 쓰고 어떤 세제를 쓸 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과정들이 너무 즐거웠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요.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랬어요. 매달 매달 이제 집 회의 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같이 살면서 막, 뭐든 그냥 이야기들이다 재미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채식, 비건 실천을 하게 된 계기들이 다 다른 거예요,(중략) 단순히 비비페라고 모을 수가 없었다, 조금, 어, 그럴 수가 없었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웰빙을 하고 싶어서 비건을 하는 거구나, 아 이사람은? 네, 이런 식으로 좀, (중략) 결이 확,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지점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더, 그때부터는 더 많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나의 신념에 가까운 것일 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합의하기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많이 어려워[지고] <소현>

처음에는 비건, 비혼, 페미니스트로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재미있었던’ 소현은, 시간이 지나며 더 세세한 것들에 대해 논하고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지향점의 다른 결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이들끼리 한 공간에 사는 것이, 오히려 ‘합의하기 더 어려워지는’ 지점이 많아 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소현은 이 공동체 주거에서 나오고 난 뒤, 결들을 달리하는 신념으로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안좋을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 비슷한 성격의 공간을 만들려고 시도하지는 않고 있었다.

제 2 절 가족 공간과 실 기능의 재해석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에 근거한 주거 공간의 물리적 구성은 그 구성 자체로 '규범적 집'이 지향하는 바를, 즉 단란한 가족 생활과 성별 분업, 이성애적 친밀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 공간을 다르게 해석하고 점유하는 과정을 통해 성별화 되고 한정적인 친밀성의 형태가 자리잡고 있던 '집'을 다르게 운용하게 된다.

1. 안방의 정치학

"안방은 안채의 중심으로서 가장 폐쇄적인 주공간(住空間)이며, 주택의 제일 안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외간남자의 출입이 금지되며 남자로서는 다만 남편과 그의 직계비속만이 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주부의 실내 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안일 중 안살림을 모두 관리하는 생활의 중추가 되는 공간이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택 근대화 이전 양반 주택 구조에서 안방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의 공간으로서, 침실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었다. 주거 공간이 근대화되면서 '안방', '부부침실', '마스터룸'이라는 이름 등으로 불리게 되는 이 공간은 점점 본래의 기능이 사라지고 사적이고 내밀한 이성애적 친밀성을 내포하는 부부침실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안방에서 일어나던 많은 일은 이제 LDK 라고 하는 거실, 주방, 식당이 대신하게 되거나 집 밖으로 활동 공간이 옮겨갔다. 성애적이지 않은 관계의, 동등한 지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안방 공간은 그 너비와 상징성으로 인해 협상의 중심 공간이 된다.

도면을 놓고 약간의 신경전은 물론 있죠, 신경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했죠. 가장 좋아하는, 가장 선호하는 방이 어디야, 그러면은 다 똑같은 거 같지만 또 좀 다르긴 하구요. 근데 겹칠 경우에는, 면 네가 이 방을 쓰면 대신에 내가 집안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집안 일을 안 하고 빛이 안 드는 데서 살고 있어요. 집안일을 하지 않아요, 바빠서. 그냥 도와주겠다,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 메인으로 그러면 큰 방 쓰는 친구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그래도 가끔 억울해하고. 그런 합의 구조가 좀 잘 발달돼 있죠. 같이 살고 하니까 그리고 뭐 붉히고 싸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얘기하는. <은주>

그리고, 막내가 그리고, 이 집 소유자가 아니고 이제 전세로 들어와 있는 격이라, 이 친구 부모님이 봤을때 우리 '우리 딸이 여기서 약간 괄시받고 있다' 그런 생각 들면 안 되기 때문에 큰방으로 주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부모님 어떻게 보느냐도 되게 중요하니까. 너 그러지 말고 나와, 내가 집 얻어 줄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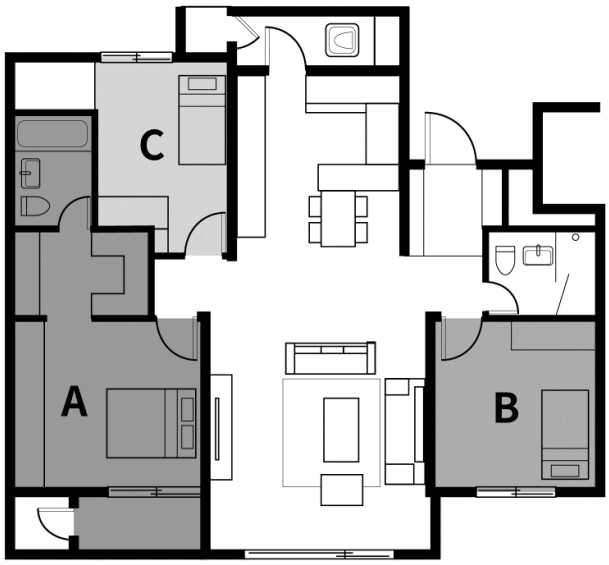


그림 16 아파트 평면 예시 (자료: 아파트 분양 홍보용 평면을 재구성)

A 로 표시된 공간은 흔히 '안방'으로 불리는 마스터 룸이며, 드레스룸과 욕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을 점유하게 될 경우 드레스룸과 욕실, 발코니를 모두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다른 방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넓다. 은주네의 경우 이 공간을 한 명이 사용하는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다른 동거인들은 보조자의 역할을 하기로 협상했다. 가사 노동 시간을 공간 자원을 분배하는 협상의 요소로 사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기여도가 낮았던 구성원의 부모님이 보기에, 이 구성원이 "괄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안방을 내어 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즉, 가능하면 비슷한 크기의 방을 가진 주거지를 구할 수 있다면 비교적 분배가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안방은 단지 '큰 방', 그리고 중요성을 가진다면 '크기 때문에 중요한 방'으로, 당위적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들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배당되는 곳으로 위치했다.

2. 거실 : 커뮤니티 공간 혹은 제 3 의 장소

도시 · 주거 공간의 근대적 변형에 따라 주거공간에서 일어나던 많은 일들은 집 밖으로 재배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함께살기는 이렇게 주거공간의 외부로 밀려났던 기능들을 다시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주거 평면들이 거실 중심형 평면으로 재편되던 시기에 거실은 '가정 단란'이라는 주거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된 공간이었다(서원기, 2010). 이에 점차 가족의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졌던,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어쩌다 간혹 있는' 이벤트가 되어갔던 거실을(전남일 외, 2009) 연구 참여자들은 좀 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했다. 은주는 거실 공간을 사업을 위한 회의를 여는 공간, 그리고 지역의 혼자 살고 있는 또래의 동료들을 모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주변 지역의 네트워크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서울의 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는 비혼여성 모임에 참여하고 있던 민영은, 주로 어디서 모이느냐는 질문에 근처의 야외 공원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투룸에서 혼자 사는 언니가 거실 공간을 내어주기에 그 곳에서도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실 공간을 공동체의 활동 공간으로 삼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집을 구했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그 소망이 좌절되기도 했다(정은). 정은은 집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너무 많은 일들이 집 밖의, 자본가들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주변의 비혼 커뮤니티 내에서 거실 있는 집을 가진 경우는 많지 않았기에, 많은 경우 소모임이나 친목 모임의 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소현은 청년주거협동조합에서 활동하며, 각각의 공동체 주택이 서로의 서로에게 열어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 딱 어디 모델하우스 가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그림은 최대한 안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쪽에 tv 를 놓고 tv 를 보게, 일렬로 앉아서 tv 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파를 일단, 저희는 소파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방석을 두고 둘러 앉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그 공간이 너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 열려 있는 공간,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공간, 이 공간은 나만의 공간은 아니고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공간. 여길 쓰기 위해서. <소현>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그려지는 거실 공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가구 배치와 디자인을 통해 거실이 가구원들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조합원들,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이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작동하길 바랐다.

보라의 경우에도 거실을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보라는 '셋이 같이 사는 이유가 단지 집세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동의 공간에서 '각자의 생활,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고 공부도 하고, 편안하게 여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을 원했으며, '사람들 초대하는 걸 좋아'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실을 여기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적절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데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3. 공간의 재해석과 변용

연구 참여자들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가족 내 역할에 따라 분배된 공간을 재해석해 변용하기도 했다. 수민의 경우, 친밀성의 유형에 따라서 반드시 각자 하나씩 방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으며, 대신 사용성에 따라 방을 나눠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을 구성해 살고 있었다. 안방과 거실 사이의 문을 들어내고 그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방을 '잠만 자는 공간'으로 두었다. 공간이 생긴 후 만들어진 커뮤니티로 인해 주거공간은 더 폭넓은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가 발생하는 장소가 되었고, 훨씬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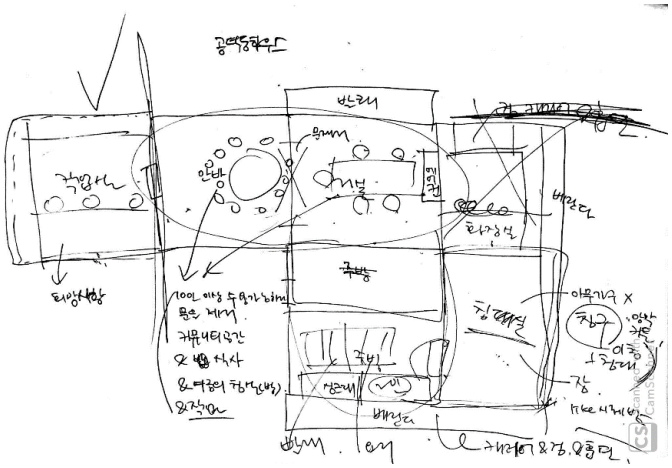


그림 17 공덕동하우스 심상 지도, <수민>

왼 편의 '작업실'은 "지금은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는" 공간

또한 수민은 남녀가 함께 공간을 사용할 경우 이것에 섹슈얼한 의미로 연결지어지는 것에도 문제제기 한다.

> 공덕동하우스 인터뷰할 때도 되게 궁금해하는 게, 그런, "혼성이 같이 방 쓰면...", 쩜쩜쩜 뒤에는 여러가지 질문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네이버 댓글같은 데 보면 그게 노골적으로 나타나죠. '눈이 맞으면 어떡하냐?' '연애하다가 헤어질 거다' '섹스는 어쩌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질문들을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중략) 왜 그러냐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에요. 다 남녀 분리된 공간에서 살다가 같이 산다고 하면, 아 동거? 섹스. 결혼? 섹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본 그런 사람들이 그 틀 그대로 저희도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공간이 그런 공간으로 경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무리없이 그냥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납득을 시키기가 국민들의 경험 자체가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수민>

수민은 분리된 채 살던 남녀가 "같이 산다고 하면" 바로 "동거? 섹스. 결혼? 섹스"와 같은 방식으로, 단박에 섹슈얼한 의미로 읽히는 것이, 남

녀가 서로 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하는 공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수민은 이처럼 서로를 성적으로 보지 않는 공간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며, 자신이 들었던 강연의 내용을 언급했다.

제 3 절 다시 만드는 '집'

"새로운 주거 디자인은 오직 새로운 생활 형식을 위한 투쟁에서 나온다"는 근대 건축가 릴리 라이히(Lilly Reich)[38]와 미스 반 데어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의 생각은, '집'을 다시 생각하는 데 있어 분명 고려할 만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함께살기는 이성애-결혼-가족이 아닌 다른 방식의 관계 맺음과, 이 같은 관계 맺음이 필요로 하는 다른 형태의 주거 공간을 상상하고 또 물리적으로 구현해 내는 힘이 되기도 한다.

1. 공간의 재구성

사적이고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유연성 없이 구획되는 가족 생활 단위의 주거공간은 특히 집 안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주부들에게 주는 고립감과 함께 과중한 육아 부담을 주어 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가족을 제외하면 주거공간 내외부를 경유해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지극히 한정적이게 하는 도시주거환경은, 그 자체로

[38] 미스의 다수 작품을 함께 한 파트너로, 주로 인테리어를 담당했다고 알려졌으나 그가 미스의 작품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재해석되고 있다(이란표, 2006).

도 문제적이지만 비혼 인구에 더더욱 문제적이다. 연구 참여자들과 가구 구성원들은, 집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일상, 비일상적 활동에 있어 기존의 공간들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해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공간의 양식을 만드는 노력을 들이기도 한다. 소현은 그 중에서도 함께 살기가 일어나는 주거공간의 거실 디자인을 재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사실 저희가, 집이니까 거실이라고 생각하지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놓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작업실, 뭐, 거기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공간이 꼭 거실이라고만 상상되지 않아도, 그냥, 텅빈 방? 그냥 텅빈 어떤, 면적? 그래서 거기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좀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된다? <소현>

소현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거실이, 티비를 앞에 두고 소파에 앉아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공간이 아니길 바랐다. 도시주택공사와 협력해 거실 공간을 구상하는 데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소현은 거실 공간이 기존의 용도를 버리고 텅 빈 공간으로서 어떤 이벤트들 일어날 수 있게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싶어 했다.

정은은 '반달'의 모임원들이 각자의 방을 갖고, 1층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하며 살 수 있는 형태의 집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정은은 현재 룸메이트인 현정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거실도 원래 모임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했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에 좌절되었다. 정은은 향후 장기적으로는 지역 거점으로서 정치적 활동이 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따로 또 함께' 사는 집을 만들고 싶어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반달 하우스를 짓고 싶단 말이에요. 반달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각자 다른 방을 쓰는 형태로

> 해서 그런 주거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데 (중략) 이제 1 층을 커뮤니티, 그냥 카페 같은 거 보다는 그냥 지역, 지역거점 운영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 이슈들을, 아젠다를 활성화할 때 쓸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략) 반달 사람들만 쓸 수 있어, 그런 배타적 공간이라기 보다는… 지역 거점이 필요해요, 정말로. 약간 모임 공간 걱정하기도 지치고. <정은>

2. 구성원 관계의 재사유

소현은 청년주거협동조합을 운영하며 공유 주택을 운영하는 기조를 만드는 데에 있어 자연스럽게 “보통 상상하는 집”과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 집을, 보통 상상하는 집이면,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아들 있고 딸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이 아닌 다른 집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 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 살아보면, 혼자 살더라도 같이 살더라도 엄마가 없으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는 엄마가 하던 일이었는데, 당연한 건 또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너무 당연하게 어떤 사람을 엄마로 만들어 버리지 말자. 엄마라는 의미가 그렇게 쓰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흔히 쓰이는 그런 엄마, 너무 당연하게 집안일을 맡기는, 주 가사 노동자로 누군가를 만들어 버리지 말자라는 고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거 같고 <소현>

근대적 공사 구분에 따른 공적 영역에서의 생산 노동은 임금을 발생시키고 쉽게 드러나는 반면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돌봄 노동(care work)는 이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집안일이나 가사노동을 포함하며 “우리의 삶과 노동을 매일같이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와 활동의 복합체(페데리치, 2013: 21, 재인용: 안숙영, 2018: 4)”이다. 이러한 노동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비가시화되기 쉽고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상이 있어, 돌봄 노동의 가시화와 사회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노동을 묵묵히 수행하던 ‘엄마’라는 존재가 부재할 때에 이 노동이 비로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공동의 주거생활을 하는 구성원들간의 비 위계적인 역할의 배분을 고민하며 가려져 있던 노동을 가시화하고 협상의 제 1 주제로 전면적으로 떠오르게 했다.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집’이 내재한 성역할과 위계, 권력 관계와 거리두기를 하며 동등한 개인들의 합으로서 ‘집’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고 있었다.

3. ‘따로 또 함께’ 살아가기를 모색하기

1 인가구를 위해 배당되는 적절한 공유 공간이 부재한 도시구조에서, 그리고 1 인가구가 단순히 결혼 전의 이행 단계로만 이해되는 상황에서, ‘함께살기’에 대한 상상력은 한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실과 화장실, 부엌을 공유하며 함께살기를 행하고 있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방식만이 함께살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일지 고민하며 ‘따로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도모하고자 하기도 했다.

> 저 혼자 사는, 혼자 사는 근데 원룸 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그런 건물? 빌딩을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런 피로도가 최대한 적게, 피로도가 최대한 적게 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모델이 있지 않을까? 저도 찾고 있죠. (중략)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자의 방을 하고, 거실을,

> 화장실을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해 봤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피로도가 있구나, 그러면 어떤 게 최적일까, 싶기도 하고. 주변에도 다, 거의 다 요즘은 대부분 비혼을 꿈꾸는 거 같은데, 다들, 비혼자 타운에 대한 그런게 있잖아요. 너가 돈 많이 벌어서 비혼 타운을 실버타운 처럼 지어라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다들 모여서 살고 싶은? 그래도 혼자 그렇게 늙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지원>

지원은 앞으로 둘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나가 다시 혼자 살아볼 계획이지만, 자신 뿐만 아니라 비혼을 말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들 '혼자 그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거실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피로도가 있었고, '어떤 게 최적'일지, 어떻게 피로도가 적은 함께살기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찾고 있다고 한다. 소현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따로 또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 최근에는 부청주(LH 부천 청년 주택) 안에서도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1인 1도어락을 쓰면서 살고 있지만 그, 나한텐 안전한 이웃이 필요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고 싶고, 내가 이 지역에 눌러 앉기 위해서는 (중략) 더 고민하고 싶고, 뭐 이런 태도들이 생겨서 저희가 또 이들을 조합원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이것을 수익 사업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됐고, 저희가 생각했던 공동주거의 개념도 좀 많이 넓어지고 있는 중인 거 같아요. 그 전에는 한 지붕 아래 세 명 네 명이 같이 살아야만 우리는 공동체고, 공유 주거를 한다, 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어 만약에 이 부청주에서 관계가 생기면 한 빌라 안에서, 오피스텔 안에서, (비비처럼), 네, 그렇게 느슨한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볼 수도 있겠다. 이것도 공동 주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소현>

소현에게 함께살기는 원래는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것이었지만, 만약에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끼리 관계가 생기고 이어진다면 그것 또한 '공동 주거라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1 인 1 도어락을 쓰고 있어도 '안전한 이웃'과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지역에 '눌러 앉기'위해서는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소현은, 원래는 조합의 수익 사업으로만 여기던 청년주택 사업도 다른 하나의 공동주거의 개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활동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전주의 비혼여성 '비비'가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각자의 집을 갖고 생활하는 것처럼 '느슨한' 공동 주거에 대한 가능성을 본 것이다.

소현은 집의 점유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자 했다.

> 집이, 한번 터 잡으면 눌러앉을, 앉아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설계하는 대로 이동해도 되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셰어하우스에 있다가, 혼자 살고 싶을 때 원룸에 있다가. 근데 그걸 다 '모두들'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혹은 커플이 지내고 싶은 집, 이런 식으로 집을 형태별로, 좀 다양한 형태로 구성 해 놓으면 그 사람이, 꼭 그 집에 들어왔으면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 못 살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살다가 나 여기 살고 싶어요, 옮기고, 또 여기 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방이 늘 하나씩 비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도 상상을 해보고 있고. 여러가지 주거 방식이나 형태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소현>

소현은 지금은 집이 일정 기간 이상의 정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곳이지만, 빈 방들을 운용하면서 입주자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며 살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5 장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함께살기를 실천하는 비혼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지금/여기의 한국 사회의 '집'의 물리적, 의미적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고 대안과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혼여성들의 다양한 함께살기 실천들이 중산층 가족, 그리고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공급과 주변화된 주거공간들의 대립 구조로 형성된 한국의 주거규범 속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떤 충돌과 갈등 상황을 겪고 (재)협상을 거치며 '집'에 대한 감각을 재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들의 실천이 나아가 주거문화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근대적 도시주거환경은 공-사의 이분법적 구획으로 이루어졌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된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 운동은 공동 취사 시설, 탁아소 등을 고안했을 뿐 아니라 일과 돌봄, 주거와 일터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적 주거 해법을 제시해 왔다. 한편 한국의 현재의 주거 환경은 주택 여과 과정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중산층 위주의 주거 공급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며, 서구 주택의 평면형이 한국적으로 수정되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족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거실 중심형 평면형이 표준화되어 왔다. 이때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정상적' 생애과정 밖에 위치한 비혼여성들의 머물 곳은, 이들의 경제적 여건과 맞물려 주로 임시의, 저급의, 1 인을 위한 곳으로 한정되었다.

비혼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과의 주거 독립을 이뤄내지만, 원룸, 민간 셰어하우스, 고시원과 같은 공간에서 '무기력함', '생산성이 떨

어짐', '우울'함을 경험하며 '방 같음'을 느끼고, '집 다운' 집을 소망하게 되었다. 이같은 '집 다움'을 감각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살기'를 실천했다. 이들은 결혼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느슨하고 가까운 친밀성을 구성해 투룸, 쓰리룸 등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함께살기는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다층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함께살기는 상징체계에서 재현되지 않는 영역에 위치하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함께살기에 대해 변명하고, 증명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종종 놓였다. 또한 결혼-가족 생활을 전제로 지어진 집의 물리적 구조가 자신들의 생활 양식, 그리고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그 형태에 맞는 주거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 제 1 의 과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한계에 이르러 함께살기를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더불어 이는 '결혼'이 아닌 방식의 함께살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활 방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족들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제도적 이점을 누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혼자 살기에도, 함께살기에도 적절한 공간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관계 맺음을 바탕으로 '집'의 감각을 달리 만들어 냈다.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또다른 가족'일 때도, '전략적 주거 공동체'일 때도, 때로 '데면데면한 동거인'일 때도 있으며 하나의 카테고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결들이 있었다. 느슨하거나 촘촘한 이들의 관계는 일률적인 공간의 양식 안에 완벽히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또한 가족에게 배당되었던 공간 구조를 재해석하여 자신들의 생활 양식에 맞게 사용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그릴 동력을 얻고 추진하기도 한다. '부부침실'의 기능을 하는 '안방'은 문제적 공간으로, '가족단란'의 공간은 주변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사용하는 비교적 열린 공간이 되기도 했다. 위계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주거 공간은 '다시 설계하고 싶은

것', '내가 직접 만들고 싶은' 것이 되기도 하며, 기존의 주거 공간의 문법을 다르게 해석해 전유하기도 했다. '그림자 노동'으로 일컫어지며 암묵적으로 여성들의 일로 여겨졌던 재생산 노동, 가사 노동은 공간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암묵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중요하게 위치했다.'집'의 전통적 의미가 가족의 생활 공간이며 공간도, 역할도 성별화되어 있었다면 이들의 함께살기는 이러한 '집'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재의미화하는 과정이었다. 한 지붕 아래에 함께 사는 것만이 '함께살기'로 여겨졌던 공동 주거의 감각도 재사유되었다.

2.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1 인가구 담론으로 쉽게 흡수되는 비혼여성들의 주거 실천을 '함께살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가족' 아니면 '1 인'으로 상상되는 인구 구성을 바탕으로 하는 주거 정책과 담론, 주거 환경이 비추지 않는 결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하다고 할 수도 있는 '비혼여성'들의 행위성을 다루고 있으나, 이들의 집 꾸리기를 통한 도시주거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국 보편적인 도시주거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비혼여성들은 헤게모니적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를 기반으로 조직된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된다. 그러나 이처럼 제도 안팎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소위 '정상가족'에게도 긍정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제도는 일단은 들어가기만 하면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인 공동체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곳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이라는 완충 공간조차 없는 비혼여성들은 가족의 영역인 '규범적 집'과, 결혼하지 않은 삶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해 내는 열악한 '1 인가구'의 이분법적인 간

극을 드러내며 페미니스트 대안적 영역을 모색해,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혼을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영역을 동시에 발굴해 나가는 가능성을 가진 실천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도시성 내에서 경험되는 비혼여성들의 주거하기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의 주거하기 경험은, 한국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부장적 젠더 질서와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도시 환경과 주거 공급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논문, 단행본 및 자료집

강미선, 장미현, 2009. 가족개념의 대안에 기반한 주거정책의 거시적 방향 제안 -'돌봄 공유'의 물리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25 NO.8 :81-90

권민지, 2018. '내 집'만들기 주거불안계급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65, 271-301.

권은경, 2015. 여성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비혼여성 전용 아파트 계획안.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권희영, 2001. 한국사의근대성연구. 백산서당.

김성희, 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학지사.

김순남, 2016. 이성애 비혼여성으로 살아가기: 지속가능한 비혼, 젠더, 친밀성. 한국여성학 32, 181-217.

김하나, 황선우, 2019.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위즈덤하우스

나영정, 2012. 주거권과 가족상황차별: 소수자 주거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월간 복지동향 46-52.

마경희, 2019. '20 대 현상' : 탈가부장 사회를 위한 도전과 갈등. 119 차 KWDI 양성평등 정책포럼 '포용, 공정과 젠더를 말하다' 발표문.

백미록, 2015. 주거 불안을 통해 본 2,30 대 비혼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미선, 2018.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서용식, 2009. (수익형 부동산의 해답) 도시형 생활주택: 대한민국의 주택 트렌드 대변혁이 시작된다!

서원기, 2010. 해방이후 거실중심형 주택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1957~1980 년 서울에 건설된 중규모 도시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송제숙, 2016. 혼자 살아가기: 비혼여성, 임대주택, 민주화 이후의 정동. 동녘

신혜경, 1995, 「여성의 역할변화를 수용하는 주거 및 도시계획」,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한울 아카데미, 1995

안숙영, 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 1-32.

전남일, 양세화, 홍형옥,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게

정민우, 이나영, 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사회 105-145.

정성훈, 2011.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Vol.41, pp. 347-377

정현주, 2016. 젠더화된 도시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구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기여와 한계 및 한국 도시지리학의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 283-300.

조민정, 2011.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거의 계획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 156-166.

질리언 로즈,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파주: 한길사.

최서아, 2018. 1 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셰어하우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하성규, 2000. 공동주택 대량공급에 따른 주거규범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 123-146.

황정임, 김은지, 2014.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 안전 인식 및 정책 수요-한부모가구 및 비혼 1 인가구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10-15.

Bowlby, S., Gregory, S., McKie, L., 1997. “Doing home”: Patriarchy, caring, and spac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Concepts of Home 20, 343-350.

Butler, Judith.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Gelezeau, V., 2007.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 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Humanit’asŭ.

Halberstam, J., 2005. In a queer time and place: Transgender bodies, subcultural lives. NYU press.

Hayden, D., 1980. “What would a non-sexist city be like? Speculations on housing, urban design, and human work”.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5, S3: S170-S187.

_____, 1982. The grand domestic revolution: A history of feminist designs for American homes, neighborhoods, and cities. mit Press.

_____, 1984,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 Work, home, and family life. New York, NY: WW Norton.

_____, 2002.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 : the future of housing, work, and family life, Rev. and expanded.. ed. New York : W.W. Norton, New York.

McDowell, L., 1992. Doing gender: feminism, feminists and research methods in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99-416.

_____, 1983.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gender division of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 59-72.

_____,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U of Minnesota Press, (번역: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연구회 역, 한울아카데미.)

McDowell, L., Massey, D., 1984. A woman's place. Geography matters 128-47.

Oldenburg, R., 1999. The great good place: Cafes, coffee shops, bookstores, bars, hair salons, and other hangouts at the heart of a community. Da Capo Press.

Saegert, Susan. 1980, "Masculine cities and feminine suburbs: Polarized ideas, contradictory realitie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5, S3. S96-S111.

West, C., Zimmerman, D.H., 1987.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1, 125-151.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1929)". In The People, Place, and Space Reader, 338-342. Routledge, 2014.

White, Naomi Rosh. 2002. "'Not Under My Roof!':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Home." Youth and Society, 34(2): 214~231.

기사 및 온라인 자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김지아, 최연수, [밀실]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 늘어나는 비혼여성공동체, 중앙일보, 2020.1.3,
https://news.joins.com/article/23671197

김지아, 최연수, 편광현,""한국남자랑 연애 안해" 20 대 여성 절반이 '탈연애' 왜”, 중앙일보, 2019.9.20.
https://news.joins.com/article/23581914

김지원, “비혼 1 인가구, ‘청년’과 ‘신혼부부’ 사이 사라진 보금자리”, 경향신문, 2019.10.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62052005&code=940100#csidxd8e9e3bf4e43280b781af88ab1f8cf3

경서, 초롱, “돈없고 집없고 가족없는 여성들의 ‘함께/살기’ 전략”, 2019. 6. 1. https://blogs.ildaro.com/3571

백희림, “비혼, 비건, 페미... 우리가 한 지붕 아래 뭉치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7.08.19.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51226&fbclid=IwAR17rD5AwvhuRKmuV5XYjkzxQwxh9ULbC41S-26U8R2yijLj4B51y_KSeLo#cb

심윤지, “최저주거기준 유명무실… ‘1 인 가구 공공임대’ 에 해법 있다”, 경향신문, 2019.1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30600015&code=940100#csidx2822d17ae44697ab3885875044422a0

_____, “안전한 집 찾자니 높은 월세 ‘불안 삼중고’”, 2019.1.14,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42137005&code=940100&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csidx8fa97a23caba49699f81d8ea2af7522

싱두, 비혼‘들’ 어떻게 같고 다른가,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https://fwdfeminist.com/2019/07/24/vol-2-2/

이윤주,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걸 보여주려고 비혼공동체 만들었죠”, 2018.11.29,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71763738044

진혜민, “‘최저가부장제’를 아시나요”, 여성신문, 2019.9.19,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089

최아름, “민간 셰어하우스 ‘8 인 1 실’ 불법 아닌 이유”, 2019.10.21, 더스쿠프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577689&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Abstract

‘Living Together’ as an Alternative Feminist Housing Strategy

– Focusing on ‘Doing Home’ Practices of Single Young Korean Women –

Shin, Yooj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hows how single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not planning to be married in the future are living together in the give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under normative spatio-temporality that constructs our time and space based on reproductive normative, and also has purpos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se ‘living together’ practices fo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ritical thinking upon how ‘single’ is often considered only as 'living alone' or 'temporary' in policy process or mainstream discourse. In other words, through examining the practice of living together by single women, this study tried to dig deeper into the attributes of ‘not living alone’ and ‘persistive’.

With the wave of feminism re-emerged in the mid-2010s, 'non-marriaged life' has not only emerged as an important political agenda among young women, but also has become the term describing many young women's lives. However, normative spatio-temporality, which is the normative structure of time / space by family, heterosexuality, and reproductive systems, makes the ‘doing home’ practices more difficult for single young women who are prone to be instable both socially and economically. Under these bad conditions, unmarried women seek ‘live separately and together’ in various ways. At this time, the ‘single women living together’ happens at the multiple levels of ① Finding the way of survival ② Making the extension of the imaginative and selectable options outside marriage system ③ Demanding and changing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reated around heterosexuality-reproduction-family.

The living together of these single women was mainly caused by chance, or in the process of actively living together as an awareness of their position as 'non-married', 'young,' and 'women'. The first place that single women gain from independence from their original family, in a system that regards unmarried life as a temporary and limited form, and i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woven around heterosexual families, is mainly studios, Kosiwon, or dormitory wher they should live with random other person. In this space, single women feel 'like a room', that is, 'like a house'. In other words, the imagination and practices of various intimacy and relationships are suppressed, and single women experience a lethargy or a lack of

productivity. Living together begins as part of a voluntary move to break this situation.

These single women who get away from the "home" of the gendered family get a "room-like" space, and want to find out what a "home-like" space is. Such "house-like" is summed up as enjoying a better living environment with respecting each other as equal individuals and not returning each other to roles. Living together is not ideal in a dense influence of normative space-time and in a living environment organized according to the logic of capital. At the symbolic level, the heterosexuality, reproductive, and family-centeredness of “houses” make it seeming that single women are constantly pushing or living together as peripheral. Material spaces do not adequately support their living together practices. In this situation, they constantly encounter and negotiate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barriers. However, single women rediscover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house' and its contents through living together. These practices can be imagined as feminist ‘doing home' through the practice of creating a crack in the existing norms and actively politicizing them at the point where they collide with the barriers as well as in the personal sphere. As such, it is meaningful to expand the physical space that supports it spatially.

Keywords : single women, living together, young women, doing home, feminist, alternative housing
Student Number : 2018-28020

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로서의 '함께살기(living together)'

– 비혼 청년 여성들의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을 중심으로 –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신 유 진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로서의 '함께살기(living together)'

– 비혼 청년 여성들의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정 현 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신 유 진

신유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월

위 원 장 배 은 경 (인)

부위원장 김 두 아 (인)

위 원 정 현 주 (인)

초 록

본 연구는 20, 30 대 비혼여성들이 근대적 공 · 사 구분과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획되는 도시 · 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실천들은 도시 · 주거환경에 어떤 함의를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정책 과정이나 주류 담론 속에서 '비혼'이 종종 '혼자 사는 것', 혹은 '임시의 것'으로만 여겨지는 세태에서 출발했다. 즉, 이 연구는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 실천을 통해 '비혼'의 '독거 아님'과 '지속적임'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시도이다.

2010 년대 중반 재부상한 페미니즘의 물결과 함께 '비혼'은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수많은 청년 여성들의 삶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공간을 가족-이성애-재생산의 제도에 의해 규범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인 규범적 시공간성은 사회 ·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 쉬운 비혼 청년 여성들의 대안적 집 꾸리기(doing home)를 한층 더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작동한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비혼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따로 또 함께 살아가기를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이때 함께살기는 ① 생존을 도모하는 여성들의 궁여지책, ② 선택 가능한 결혼제도 외부를 상상 가능하게 만들며 그 영역을 늘려 나가는 실천, ③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온 도시 · 주거환경에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시키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의 실천으로, 어떤 특정한 주거 형태나 공동체에 수렴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혼하지 않은 삶을 임시의 한정적인 형태로 여기는 제도, 그리고 이성애 가족을 중심으로 직조된 도시 · 주거환경에서 비혼여성들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처음 얻게 되는 공간은 주로 원룸, 고시원, 혹은 임의

의 타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기숙사 등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비혼여성들은 '방 같음', 다시 말해 '집 같지 않음'을 감각하게 된다. 가족과 함께 살던 '규범적 집'에서 벗어나 독립된, 그러나 '방 같은' 공간을 얻은 비혼여성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통해 '집 같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주로 함께살기를 통해 감각되는 '집 같음'은, 자신의 생활을 한정적으로 축소시키지 않는 보다 나은 공간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동등한 개인으로 존중하며 또한 역할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함께 삶으로써 보다 나은 주거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함께살기는 결코 이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상징적 차원에서 규범적 시공간성은 비혼여성들이 실천하고 있는 함께살기를 끊임없이 주변적인 것으로 내몰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작동한다. 가족 생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공간들도 이들의 함께살기를 적절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다층적인 장벽들과 부딪히고 협상하게 된다. 그러나 비혼여성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함께살기를 통해 '집'의 물리적 구조와 그 속의 내용물들을 재탐색해 나간다. 이 같은 실천은 개인적 실천임과 동시에 또한 다층적 장벽들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존 규범에 균열을 만들어 내는 실천이다. 나아가 이러한 균열과 대안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정치화하고자 하는 다각도의 노력은 페미니스트 대안적 '집 꾸리기'를 상상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공간적으로 뒷받침하는 물리적 공간을 구축해나갈 수 있게 하는 역동이다.

주요어 : 비혼, 함께살기(living together), 청년 여성, 집 꾸리기 (doing home),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
학 번 : 2018-28020

목 차

초 록 i
목 차 ii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선행연구 5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9

제 2 장 이론적 틀 16
제 1 절 근대적 주거와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 운동 16
1. 서구 근대 주거와 페미니스트 주거 운동의 역사 16
2. 한국 주거의 근대화와 주거규범 26
1) 한국 주거의 근대화 26
2) 한국의 주거 규범: 아파트, 분양 28
제 2 절 '집 꾸리기' 의 의미와 규범 34
1. '집 꾸리기'와 '집' 34
1) '집'의 의미 34
2) 집 꾸리기(doing home) 35
2. 규범적 시공간성 36
3. 대안적 친밀공동체와 제 3 의 장소 40
제 3 절 비혼 '들' : 규범적 시공간성을 거슬러 함께살기 43
1. 비혼'들', 그리고 비혼이 폭로하는 것 43
2. 함께살기: 규범적 시공간성을 거슬러 집 꾸리기 48

제 3 장 '자기만의 방'을 넘어 함께살기 50
제 1 절 주거 독립과 임시적 공간에서의 '밀려남' 50
1.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50
2. 주거 공간에서의 밀려남: '방 같은' 주거 경험 52
3. '집 다운' 집 열망하기 57
제 2 절 함께살기의 시작 61
1. 함께살기 발견하기 62
1) 우연한 발견 62
2) 적극적 시도 65
2. 공간이 만드는 공동체 66

3. 함께살기와 '집 다운 집' 69
1)일상적 교류 69
2)초대의 문턱이 낮은 공간 71
3)안전 비용이 적은 공간 71
4)재생산 노동의 효율 73
제 3 절 함께살기의 어려움 74
1. 설명하기 어려운 함께살기 75
2. 적절한 주거 공간 구하기의 어려움 78
3. 생활 양식과 맞지 않는 공간과 협상하기 79
1)가족의 공간 79
2)'1 인', '청년', '공동체' 임대 주택 84
4. 주거비 지원 받기의 어려움 85

제 4 장 '집'의 의미 재구성하기 88
제 1 절 함께살기의 다양성과 재조정 88
1. 다양한 거리와 구조의 친밀성 88
1)또 다른 가족, 혹은 가족은 아닌 어떤 것 89
2)대안적 친밀공동체 90
3)전략적 주거 공동체 91
2. '집'의 재조정 93
제 2 절 가족 공간과 실 기능의 재해석 96
1. 안방의 정치학 96
2. 거실 : 커뮤니티 공간 혹은 제 3 의 장소 98
3. 공간의 재해석과 변용 100
제 3 절 다시 만드는 '집' 102
1. 공간의 재구성 102
2. 구성원 관계의 재사유 104
3. '따로 또 함께' 살아가기를 모색하기 105

제 5 장 결론 108
1. 요약 108
2. 의의와 한계 110

Abstract 118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징 (주 참여자) 10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징 (보조 참여자) 11
표 3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 39
표 4 연구 참여자들에게 '방 같은' 것과 대비되는 '집 다운' 것의 의미 . 5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참여자가 그린 주거 공간 (민영, 소현) 15
그림 2 페이어스가 제안한 근린 단위의 다이어그램 18
그림 3 Sven Markelius 와 Alva Myrdal 의 집합 주거 20
그림 4 Nina West House 21
그림 5 Captain Clarence Eldridge House, Hyannis, Massachusetts, Barry Korobkin, 1981, 평면도 23
그림 6 두 유닛의 개폐 여부를 슬라이딩 도어로 조절할 수 있는 벙갈로, Bowen Cour 24
그림 7 1930 년대 가가(假家)의 평면(왼쪽)과 살림집에 연결된 상점(오른쪽) 26
그림 8 거실중심형 평면의 예시 27
그림 9 지역별 주택수(2017), 지역별 주택수 증가(2005~2017) 30
그림 10 서울지역 소형 저가 주택 멸실, 공급 전망 31
그림 11 서울시 가구주 성별에 따른 주거 점유 형태 33
그림 12 서울시 가구주 성별에 따른 주거 형태 34
그림 13 SH 청신호 추진 배경 40
그림 14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 늘어나는 비혼여성공동체" 기사의 댓글 중 일부 45
그림 15 아파트 평면 예시 80
그림 16 아파트 평면 예시 97
그림 17 공덕동하우스 심상 지도, <수민> 10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본 연구는 향후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지속가능한 생애 전망으로 비혼을 받아들이고 있는 비혼여성들의 다양한 함께살기(living together)[1] 실천들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90 년대 '미혼'과 구분되는 용어로 '비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된 이래 비혼 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호명되어 왔다.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비혼이 이해되고 말해지는 방식도 다양했는데, 이러한 비혼 담론은 2010 년 중반 이후로 또 한 번 새 물결을 맞이한다. '영영 페미' 등으로 일컬어지는 페미니스트 주체들이 탄생하며 비혼이 강력한 정치적 의제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 것이다. '비혼'은 지금/여기에서 결혼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청년 여성들의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움직임이며, 또한 정치적 선언으로서 담론장을 형성하고 있다.

경제 불평등과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배경에서, 결혼제도 안으로 포섭되기조차 거부하거나 결혼하지 않길 택한 비혼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끊임없는 불안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로가 서로의 지지 기반이 되어주자는 취지의 '따로 또 함께'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비혼여성들의 네트워크가 다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주거, 경제, 사회적 고민을 나누며 비혼 주체로서 살아갈 방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부하고 토론하며 공동체 내외부로

[1] 2장 2절 참조. 이 같은 함께살기는 ① 규범적 시공간성의 바깥에서 ②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느슨하거나 촘촘하게 모여 ③ 다종다양한 친밀성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 년 발간된, 결혼하지 않은 여성 둘이 함께 아파트를 얻어 살게 된 이야기가 담긴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김하나, 황선우, 2019)』가 끌고 있는 선풍적인 인기는 경제적 불안감이 공유되는 가운데 높아지고 있는 대안적 삶, 대안적 집 꾸리기에 대한 비혼여성들의 관심을 실감하게 한다.

비혼여성들이 적절한 주거 공간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배경은 오랫동안 도시 중산층 가족생활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온 주거규범 위에도 있다. 한국의 주거규범(housing norms)[2] 은 오랫동안 '아파트', '분양', '중산층'을 골자로 이루어져 왔다(하성규, 2000). 1960 년대 서울의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다량 공급을 주도했다. 주택 수요 충족의 수단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근대화의 지표로서도 여겨졌던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은 차후 아파트가 한국 도시 중산층 계급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이내 보편적인 주거규범 및 주거 형태로 자리잡게 되는 배경이 된다(Gelezeau, 2010[1999]; 하성규, 2000). 정부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도록 부추겼으며, 주택을 가지지 못한 이들과 가진 이들의 금융 계급의 격차를 야기한다.

반면 정부는 2000 년대 중반부터 급증하는 1 인, 혹은 2 인 가구에 대한 해법으로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건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른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한다.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으나, 투자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주택 공급은 소형 주

[2] 하성규(2000)는 주택형태(types), 주택점유방식(tenure), 주택재고(양과 질), 주거권(housing rights)의 관점에서 한국의 주거규범에 접근하여 한국주거규범의 특징을 주거 여과 과정(filtering process) 의존적 주택 공급, 중산층 이상이 선호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의 확대, 분양주택을 임대보다 중점으로 하는 공급 패턴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택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켰다. 1 인 가구를 위한 양질의 주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월세와 자가, 원룸과 아파트로 상징되는 불안정성과 안정성, 잠시 머물 곳과 오래 거주할 곳이라는 속성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하위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이들은 상위의 주거 형태로, 이른바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길 열망하는 구조가 직조된다.

이러한 도시 · 주거환경 속에서, 가족-이성애-재생산의 제도에 의해 시간/공간을 규범적으로 구성하고 배치하는 규범적 시공간성은 비혼여성들이 쉽게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하는 배경이 된다. 이때 비혼여성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이들인지는 제대로 탐구되지 않은 채 주로 '1 인', '청년' 담론, 그리고 '안전' 문제와 뒤섞여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혼여성들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집 꾸리기'는 쉽게 재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되기 어려운 것'으로 위치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각종 정책을 통해 규범 바깥의 이들을 '정상성' 안으로 재편입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개별 주거 공간의 설계부터 주거의 공급, 제도적 지원과 이를 통한 도시의 직조방식에 이르기까지 재생산적 시간성은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회 · 경제 · 제도 · 상징적 배경 속에서,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는 ①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여성들의 살 길 찾기 ② 선택 가능한 결혼제도 밖의 외부를 상상 가능하게 하고 늘려 나가는 실천 ③ 가족생활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온 도시구조, 주거환경에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시키는 다층적인 차원에서 오버랩 되며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의 비혼여성들은 어떤 주체들이며, 어떤 배경에서 이들의 함께살기가 일어나고 있는가? 둘째, 규범적 시공간성은 비혼여성들이 '집'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비혼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협상과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고 있나? 셋째, 비혼

여성들은 함께살기를 통해 어떤 집 꾸리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들이 도시 조직과 주거 공간들에 어떤 균열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 균열의 효과는 무엇이며, 어떤 함의를 갖고 있나?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장의 다음 절에서부터는 '비혼'과 '주거', '페미니스트 주거'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 방법과 연구 참여자들을 소개한다. 2 장에서는 '비혼'과 '근대적 주거', '페미니스트 대안주거'를 주 골자로 하는 이 논문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3 장과 4 장은 2 장에서 제시한 이론과 개념들을 바탕으로 비혼여성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서사적 순서를 따라가며 본문을 배치했다. 3 장에서 비혼여성들이 원가족으로부터 공간적 독립을 하는 시점부터 함께살기를 발견하고 실천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을 조명하며 이들이 어떻게 거쳐온 공간들을 의미화하며 다른 방식으로 주거공간을 그리게 되는지 따라갈 것이다.

4 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실천들을 통해 물리적 공간, 그리고 친밀성의 장소로서의 '집(home)'의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먼저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친밀성이 어떻게 변형되고 다르게 이해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가족 공간으로 계획된 주거 공간들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고, 변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런 다음 어떻게 지금 있는 물리적 구조들과 친밀성의 실천들을 넘어 다른 방식의 '집'을 만들 것을 상상하는지 전망해본다. 5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제언을 다루고, 6 장에서 연구 결과들을 아우르고 의의와 한계, 전망을 내놓으며 마무리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비혼여성의 집 꾸리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비혼여성과 주거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여성가구주 가구', '1 인가구', '공동체 주택' 등에 대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조금씩 서로 중첩되는 의미로서 해당 범주들을 다룬다.

우선 장기적 비혼여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김순남(2016)은 '결혼을 중심으로 장기적 삶을 계획하지 않는 이성애 비혼여성'로 연구 대상을 범주화하여 '비혼'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구성되는가를 젠더와 친밀성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송제숙 (2016[2014]) 은 20 대 후반에서 30 대 후반의 비혼여성들을 다루고 있는데, 민주화 이후 삶을 향유해야 한다는 정동을 공유하는 비혼여성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대표되는 불안한 주거상황 등을 어떻게 해쳐나가는지를 통해 이들의 삶을 조명한다. 비혼여성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거 점유 형태로서 임대주택에 주목했다는 점에 있어 본 연구는 일정 부분 송제숙의 논의를 이어 가고자 한다. 그러나 송제숙은 '1 인가구'인, 혹은 가족과 함께 살지만 공간적 독립을 바라는 비혼여성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와 다른 지점이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2010 년 중반 페미니즘의 재부상을 기점으로 확산된 비혼 담론의 자장 안에 위치하는 본 연구와 시기적으로 구분된다.

청년 여성의 주거 불안에 대한 연구도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백미록(2015)은 서울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20~30 대 여성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비혼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권민지(2018)는 주거불안계급의 개념을 이용해 20 대 초반에서 30 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여성들의 주거 경험을 분석하며, 이들이 어떻게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의 양상과 함께 이들이 구현하고 있는 공간 전략을 조명한다. 이들 연구는 대안적 실천으로서의 함께살기를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고 있기도 하지만 불안한 비혼여성들의 주거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의 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황정임 · 김은지(2014)는 한부모가구 및 비혼 1 인가구를 중심으로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여성가구주가구가 안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요구를 최저주거기준에 '안전기준' 포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여성안심주택의 확대를 통해 반영할 것을 주장한다.

1 인가구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동체 주거 형태로 대표되는 대안적 주거 양식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 최서아(2018)는 다양한 요인으로 1 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그 원인으로 비혼과 만혼 현상, 기러기 가족의 증가와 고령화 등을 꼽고, 늘어나는 1, 2 인 가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셰어하우스를 연구하고 있다. 권은경(2015)은 특히 "여성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비혼여성 전용 아파트 계획안"을 제시하며 증가하는 비혼여성들의 수요에 맞추어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지점이 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자 한 비혼여성 1 인가구는 "법적으로 무배우자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권은경, 2015: 7)"로 정의하고 있다[3]. 결혼에 대한 인식과 실제 결혼하

[3] "비혼여성의 경우 장기적으로 머무를 공간이 아닌 임대의 성격을 갖는 가구 일체형 주거 공간의 제안이 요구된다.", "결혼관이 다양해지고 독신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회사 생활과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일 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현재 거주하는 장소를 결혼 전에 머무르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권은경, 2015: 56)

게 될 지의 여부가 특히나 불분명한 상황인 점[4], 더불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혼'은 지속 가능한 생애 양식으로서의 측면을 가졌음을 고려했을 때 이 연구는 '비혼'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상당 부분 참조할 만한 지점이 있음에도, '장기적으로 비혼 생애를 계획하고 있는' 비혼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 본 연구와는 방향이 구분된다.

여성 친화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안전'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연구도 있다. 김재민 등(2012)은 여성 1 인가구의 증가와 여성들의 주거공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도입해 공공원룸주택을 설계 및 건축할 방법을 제안한다.

강미선, 장미현(2009)은 비혼여성들에 주목한 연구는 아니지만, 가족 개념의 대안에 기반해 주거의 '돌봄 공유'의 물리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해 거시적인 주거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가구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비혼여성들의 고민들과 공유되는 지점이 있다.

---

[4] 비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 '고용 불안정' 등 다층적이고 다양한 요인을 찾을 수 있으나, 한국 여성 민우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시대는 변화하지만 집안일이나 육아를 여성의 것으로 여기는 등 남성들의 문화지체현상이 심각하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로 꼽고 있었다. 실제로 전통적인 남성 생계 부양 모델과 다르게 맞벌이나 여성 생계 부양 가정에서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길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14, 생활시간 조사). 서울시의 비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8%가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못 만나서'로 답하였으며, 24.4%의 여성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일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할 자신이 없어서, 배우자나 아이에게 구속되기 싫어서, 현재 결혼제도가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등을 이유로 꼽았다(이성은, 2015).

1 인가구와 청년, 그리고 비혼 인구가 동일한 개념이 아닌 현실에서 이들 연구를 모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 있는 연구로 보기는 어려우나 간혹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은 '1 인가구', '청년', '비혼'이라는 개념이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기에 발생된다. 위 연구들에서 '1 인가구'는 때로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가구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혼자 거주하는 사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한다. '비혼' 여성이라는 개념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여성들을 의미하거나, 미래에 결혼 계획이 없는 여성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혼 1 인가구'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말하자면 1 인가구는 쉽게 비혼 인구를 대표하고, 이 같은 1 인가구의 문제는 쉽게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와 등치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와 대안적 공동체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주거 담론으로 쉽게 흡수되기도 한다. 그러나 1 인가구의 구성원들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가구 구성원의 수를 이유로 쉽게 동질 집단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 가구 구성원의 수보다 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주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주체들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30 대를 '청년'으로 규정해 동일한 생애 과정을 겪어갈 집단으로 상정하며 구분하는 것 또한 이들이 어떤 생애를 구성해 나갈 이들인지는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1 인가구'와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포괄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생애 양식으로서 비혼을 실천하고 있는 여성들의, 함께살기와 혼자 살기를 유동하며 나타나는 주거 전략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개별 비혼여성들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함께살기를 실천하며 '집'의 의미에 내재된 물리적 주거 공간과 그 안에 담기는 친밀성의 의미를 재조직하고 있는지를 유동하는 주거 실천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5]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와 이에 따른 생애과정(life course)의 시공간적 구획을 규범화 하는 규범적 시공간성[6] 아래 비혼여성의 주거는 주로 혼자 사는, 임시적 형태의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비혼여성들 중에서는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살기를 도모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이러한 함께살기는 또한 고정불변하는 형태로 존재하기보다 끊임없이 제도, 주거 환경, 사회 규범 등과 갈등을 겪고 협상, 재협상을 거치며 유동하는 과정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임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면서도 현재 '혼자 사는 상태'가 아닌, 비혼이라는 공통의 생애 전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비혼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거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모집하거나,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 등을 통해 모집했다. 심층면접은 2018 년 10 월 시행한 파일럿 인터뷰 1 회를 바탕으로 2019 년 9 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해 2019 년 10 월 17 일부터 2019 년 12 월 23 일까지 총 11 명을 대상으로 7 회에 걸쳐 진행했다. 심층면접은 보통 1 대 1 로 진행했지만 참여자의 공동 거

[5] 본 연구는 원래 결혼 제도 밖에서 '대안적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연구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 연구 참여자들과 가구 구성원들의 관계가 '대안적 가족'이라 할 만한 개념으로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의 주거 실천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협상과 재협상을 거치며 유동하는 것을 발견하여, 특정 형태의 주거나 공동체가 아닌, '함께살기'라는 행위 자체에 보다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6] 본 논문의 2장 2절 참조. 정민우, 이나영(2011).

주자들, 혹은 참여자의 집을 거점으로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포커스 그룹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원가족으로부터의 주거 독립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거공간에 관한 것들을 질문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으며,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2019 년 모집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비혼여성으로 이루어진 주 참여자들과 남성 보조 참여자 한 명으로 구성된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징 (주 참여자)

이름 (가명)	만 나이	가구 유형	주거 상황	주거 비용[a]	직업	월 소득 (만 원)
민영	26	4 인	쓰리룸 월세	40	정규직 기술직	180~200
다은	26	2 인	쓰리룸 월세	35	정규직 웹디자이너	200 초중반
지원	28	2 인	쓰리룸 월세	2000/ 75	파트타임 사무직	80~120
은주	34	3 인	쓰리룸 아파트 자가	자가 9 억 정도	정규직, 대학원생	500~600
보라	31	3 인	쓰리룸 월세	7500/ 87.5	프리랜서 집필노동자	약 100
정은	27	2 인	투룸 월세	3000/ 70	정규직 연구원	약 300
현정	25	2 인	투룸 월세	3000/ 70	대학생/ 파트 타임	약 100
소현	29	4 인	쓰리룸 공동체 주택	전세/ 월 분담금 26 만원	협동조합 대표	약 160
수민	31	3.5 인[b]	투룸	1000/ 50 네 명이 분담	프리랜서	약 200
주영	23	3.5 인[b]	투룸	1000/ 50 네 명이 분담	무직	없음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징 (보조 참여자)

이름 (가명)	만 나이	가구 유형	주거 상황	주거 비용[a]	직업	월 소득 (만 원)
성준	29	2 인	쓰리룸	자가 (어머니와 거주)	대학생	없음

표 1, 2 공통, a: 주거 비용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월세)로 나타냈으며, 보증금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월세만 나타낸 후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개별 설명 부분에서 후술했다. (단위: 만 원)

b: 세 명이 상주하고, 한 명은 3~4 일 정도를 해당 집에 머무는 형태. 3.5 인이라는 표현은 연구 참여자의 표현을 따른 것.

대학에 가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며 원가족과 따로 살게 된 민영은, 하숙, 원룸, 투룸 등을 전전하다 현재는 임시적으로 대학 동기와 그의 남편, 오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민영은 월세 형태로 주거비를 내며 생활하고 있었지만 집은 동거인 중 한 명이 전세로 얻은 집이었다. 민영은 지금의 생활이 독립적인 생활도 보장되지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같이 저녁 먹을 사람이 있어서 만족스럽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고 싶다고 말한다. 민영은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비혼여성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다은은 연예인 팬덤 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으며, 처음에는 함께 팬덤 활동을 하던 친구들과 투룸에서 거주했지만 갈등으로 인해 다시 이사하게 되었다. 고시원에서 머물던 민영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시원을 나왔고,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은 고시원에 비해서 개인 공간이 보장되고 안전하다는 느낌에 훨씬 만족스럽지만,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가능한한 혼자서 살고 싶다고 다은은 이야기한다.

지원은 상경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처음에는 셰어하우스에 살기를 선택했다. 그러나 한 집에 너무 많은 성인들이 모여 사는 것에 '지치'고 '피로'함을 느껴 이사하게 된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했던 지원이지만, 개인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로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한다. 지원은 셰어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셰어하우스에서 나와 쓰리 룸에서 거주하다, 한 명의 구성원이 본가로 돌아가게 되어 지금은 다른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은주는 함께 일 하던 두 명의 대학 후배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해 오다가 지금은 함께 마련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20 대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힘들었다고 말하는 은주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가능하면 오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은주는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들을 또다른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은주는 자신의 아파트를 '아지트'로 여겨, 주변의 혼자 사는 다른 동료들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로도 거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보라는 폴리아모리(polyamory)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셋은 각자 다른 이유로 원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어 얼마간 따로 지내다, 우연한 기회에 비슷한 지리적 위치에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다.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자금을 모아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이들은, 처음에는 함께하는 생활이 상상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익숙하고 편해져 이제는 서로를 식구처럼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도 주거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었다.

정은과 현정은 투룸에서 각자의 방을 쓰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인터뷰는 진행되었다. 둘은 다양한 방식으

로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비혼 퀴어 · 여성 모임 '반달[7]'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룸메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오래도록 생각했던 정은은 마침 현정과 타이밍과 요구가 맞아 떨어져 함께 살게 되었다. 이들의 집은 '반달'의 소모임 장소로도 종종 사용되고 있었다. 정은은 원래 이 공간을 '반달'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었으나 거실이 충분히 넓지 않아 그러지 못해 아쉬워했다.

소현은 '모두들' 청년주거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소현은 비건, 비혼, 페미니스트를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비비페 하우스[8])에 처음으로 입주하며 모두들과 연이 닿았다. 그러나 그 곳이 사라진 후 현재는 모두들의 다른 공동체 주택에 입주해 있었다. 소현은 함께 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며 활동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꼭 거실을 공유해야만 함께 사는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함께살기의 감각을 공유할 수 있을 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의 멤버 중 세 명인 수민, 주영, 성준은 함께 공덕동하우스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들 중 수민, 주영은 공덕동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고, 성준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종종 공덕동하우스에 들른다고 밝혔다. 수민, 주영, 성준은 공덕동하우스를 거점으로, 거주민과 비 거주민을 포함하는 10 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를 꾸리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구성원들이 모두 함

---

[7] "페미니즘이라는 지향을 공유하는 비혼 청년들이 모여 주거/생활공동체 혹은 그보다 느슨한 네트워크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고민하는 모임" 출처: "돈없고 집없고 가족없는 여성들의 '함께/살기' 전략",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https://blogs.ildaro.com/3571

[8] 백희림, "비혼, 비건, 페미... 우리가 한 지붕 아래 뭉치는 이유",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51226&fbclid=IwAR17rD5AwvhuRKmuV5XYjkzxQwxh9ULbC41S-26U8R2yijLj4B51y_KSeLo#cb

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수민은 이 공간이 생긴 덕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커뮤니티가 좀 더 긴밀한 형태의 공동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현재 공덕동하우스에는 수민, 주영을 포함한 3.5 명이 거주한다고 수민은 표현했는데, 세 명이 항상 거주하고 한 명은 일주일에 세 네 번 정도 머물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들은 곧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공동체 주택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함께살기와 혼자 살기를 오가며 다양한 집 꾸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유동성은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주거의 물리적 공간, 구성원들의 친밀성, 비혼 상태에 대한 주변에서의 곱지 않은 시선과 같은 요소들과 갈등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은 고졸 취업자부터 대학생, 학사, 석사, 대학원 재학생까지 비교적 다양했으며, 고용 형태는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서부터 전문직 정규직인 경우도 있었다. 주거 점유 형태의 경우에는 월세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세와 자가가 각각 한 경우 있었다. 주거 형태는 투룸, 쓰리룸의 다세대 혹은 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경우 뿐이었다. 가구 유형은 2 인, 3 인, 4 인으로 다양했으며 비교적 고른 비율로 있었다.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원래 알던 지인과 함께 지내는 경우와 셰어하우스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경우, 그리고 공동체 주거 관련 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에서 임차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연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의 비율은 많지 않았으며, 인터뷰 당시에는 단 셋 뿐이었다. 자발적으로 이성애 연애 각본과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연애와 멀어진 경우도 있었으나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다. 또한 이들은 '비혼'을 결혼 제도에 반대하는 정치적 선언으

로, 혹은 결혼 생활이 맞지 않는 개인의 선택으로, 혹은 앞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애 양식 등으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상태가 단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생애전망으로 보고 있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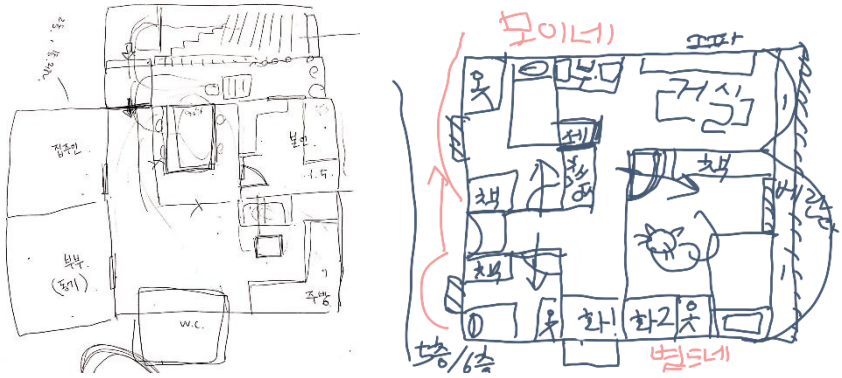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참여자가 그린 주거 공간 (민영, 소현)

심층면접은 주로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지나 회사 주변 등의 조용한 공간, 혹은 연구 참여자들의 집에서 진행되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만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좀 더 자세한 주거 공간에 대한 정보와 공간 이용 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집의 내부 구조를 간략히 그리고 사용 방식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구두 질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방의 분배나 이용 방식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1).

근대적 주거, 비혼,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 등에 관한 문헌 연구도 진행했으며, 그 밖에도 온라인과 간행물로 공개된 문헌 자료, 간담회 또는 포럼, 토크쇼 자료집 등 또한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 2 장 이론적 틀

이 장에서는 비혼여성들의 다양한 주거 실천들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근대적 주거와 페미니스트 대안주거운동, '집 꾸리기(doing home)'에 관한 논의, 그리고 지금/여기의 비혼의 의미와 '함께살기(living together)'에 대해 다룬다.

제 1 절 근대적 주거와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 운동

1. 서구 근대 주거와 페미니스트 주거 운동의 역사

페미니스트 건축가와 지리학자들은 근대적 가족 질서가 주거 공간과 도시 조직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가를 밝혀왔으며, 그에 대응하는 페미니스트 주거 운동의 역사를 정리해왔다.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 2010[1999])은 근대적 도시·주거에 대해 "개별 가정의 내적 구획 뿐만 아니라 도시 구획, 도시 교통 네트워크와 시간표는, 집안일과 보육을 담당하는 아내를 둔, 9 시에서 5 시까지 일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성 생계부양자를 가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성-사적 영역-가정, 남성-공적 영역-일터'라고 하는 근대적 이분법에 기초한 도시 조직은 여성들이 교외의 가정생활 환경이라는 덫에 빠지게 했고, 이 같은 도시 구조는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을 병행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며 핵가족에 포섭되지 않은 개인들을 주변화는 방식으로 작동한다(McDowell, 1983; Hayden, 1980; Saegart, 1980). 페미니스트 건축이론가이자 도시계획가인 헤이든(Dolores Hayden)은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1984)』에서 미 교외의 핵가족 모델을 뒷받침해주는 도시조직

과 주거공간이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대안적 페미니스트 공동체 주거들을 제시했다(정현주, 2016).

19 세기에서 20 세기 초에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양한 거주의 형태를 상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비록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거나 실현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시도들은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비판을 건축 형태라는 물리적인 표현으로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받는다(신혜경, 1995). 그 중에서도 오웬(Owen), 푸리에(Fourier)로 대표되는 유토피안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된 몇몇 모델들의 공간 요소들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혜경, 1995). 이들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가사노동과 탁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주장했으며, 고립된 1 가정 1 주택 정책에 반대했다. 영국에서 오웬은 공동 부엌과 식당, 육아 시설을 포함하는 이상적 커뮤니티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1825 년에는 건축과 휘트웰(S. Whitwell)과 협업해 '파라렐로그램(Pararellogram)'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상커뮤니티 모델을 실현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된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으나, 이는 미국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가진 초기의 집합주거 디자인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여성해방의 정도는 한 사회의 일반적인 해방의 척도"라 여겼던 푸리에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주거공간이 여성의 지위 개선에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했다. 푸리에도 팔란스트리(phalanstery), 통합주거(unitary dwelling) 등의 집합 주거 커뮤니티 계획에서 오웬과 마찬가지로 공동 작업과 공동 육아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페이어스(Melusina Pierce)를 비롯한 당대의 유물론적 페미니스트들은 협동가사관리서비스를 주창했는데, 이들은 개인 사유재산과 개별 주거시스템을 지지했으며, 독립된 주거를 그대로 둔 채 가사관리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즉, 여성들의 통제 하에 가사일을 사

회화하여, 잘 정리되고 좋은 장비를 갖춘 근린 협동가사간리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가사일을 담당할 것과, 그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어스는 36 개의 부엌이 없는 집들과 하나의 큰 협동가사관리 센터로 이루어진 근린 단위를 기획해 냈으며, 존슨(Paul Johnson) 등은 페이어스의 이러한 기획을 다이어그램으로 구현해 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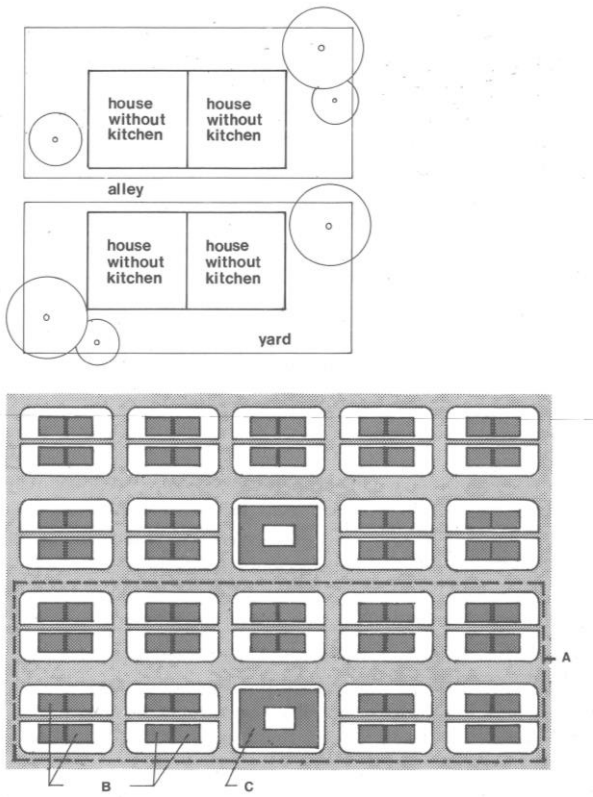


그림 2 페이어스가 제안한 근린 단위의 다이어그램(Paul Johnshon). 이 단위는 협동 가사관리 근린 단위 (A), 36개의 부엌 없는 집(B), 근린 협동가사관리센터 (C). (자료: Hayden, 1982)

이런 시도들은 자본 부족의 문제, 남편들이 가사일을 무상의 것으로 여기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잘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1890 년대 미국 페미니스트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에 의해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아파트먼트의 건설이 제안되면서 제법 인기있는 아이디어가 된다. 길먼은 일 하는 여성들이 주간 탁아소와 음식 조리 배달 서비스가 있어야만 임금노동이 끝난 후 집에서 가정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Hayden, 1984: 89).

시간이 흘러, 전쟁이라는 사건과 함께 일어난 인구구조의 대이동, 산업의 성별 구조 변화를 지나 전쟁 이후 풍요로워진 미국의 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들을 위해 'home, sweet home'을 꾸리는 '집안의 천사'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여성들은 스스로 그들의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디자인에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시도들 중 일부는 앞서 본 페이어스를 비롯한 유물론적 페미니스트들의 작업들과 길먼의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길먼의 제안을 실제로 구현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로 스웨덴의 한 집합 주거 사례를 들 수 있다. Alva Mydral 와 건축가 Sven Markelius 가 협업해 지은 이 실험적 집합주거 시스템은, 1 층에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오피스 시설, 식당과 보육시설을 갖추었으며, 1 층의 식당에서 조리한 음식을 '푸드 리프트(food lift)'를 통해 각각의 유닛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그림 3). 라이프(Life)지는 이 집합 주거를 전쟁 기간 동안 숙달된 커리어를 그만두지 않고 지속하고 싶은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적절한 주거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천했으며, 이 집합 주거는 꾸준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늘 공실이 모자랄 정도였다. 유럽 사회에서는 이 같은 집합 주거 양식이 보다 보편적으로 자리잡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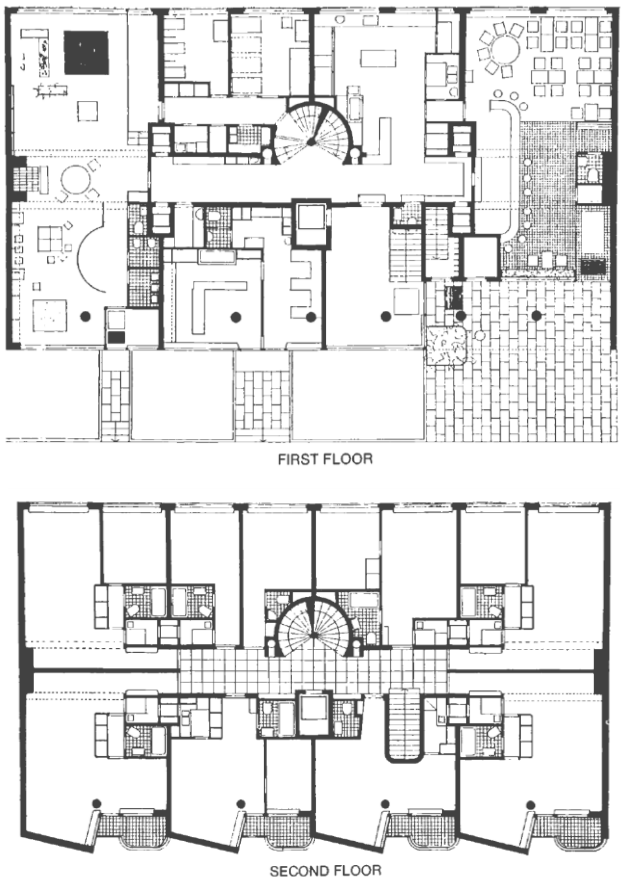


그림 3 Sven Markelius와 Alva Myrdal의 집합 주거. 1935년 스웨덴
(자료: Hayden, 1984)

미국에서는 웨스트(Nina West)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공동 주택을 기획한다(그림 4). 니나 웨스트 하우스로 불린 이 주택은, 두 개의 주동과 이를 잇는 통로, 그리고 지상에 별동으로 위치한 탁아소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주동을 잇는 통로는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져 개별 유닛의 주방으로 창을 통해 이어졌는데,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집 안에서 쉽게 내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부모들은 별동의 주간 탁아소에 아이들을 맡기고 낮 시간동안 임금 노동에 참여할 수 있었음은 물론, 탁아소에 직

접 고용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웨스트의 시도는 재생산 노동의 한 측면을 수익 창출과 연계하고, 그 수익이 주택을 지불 가능하게(affordable) 하는 데에 보태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적 생활과 공적 삶을 잇는 다리를 놓은 것으로 평가받았다(Hayden, 1984: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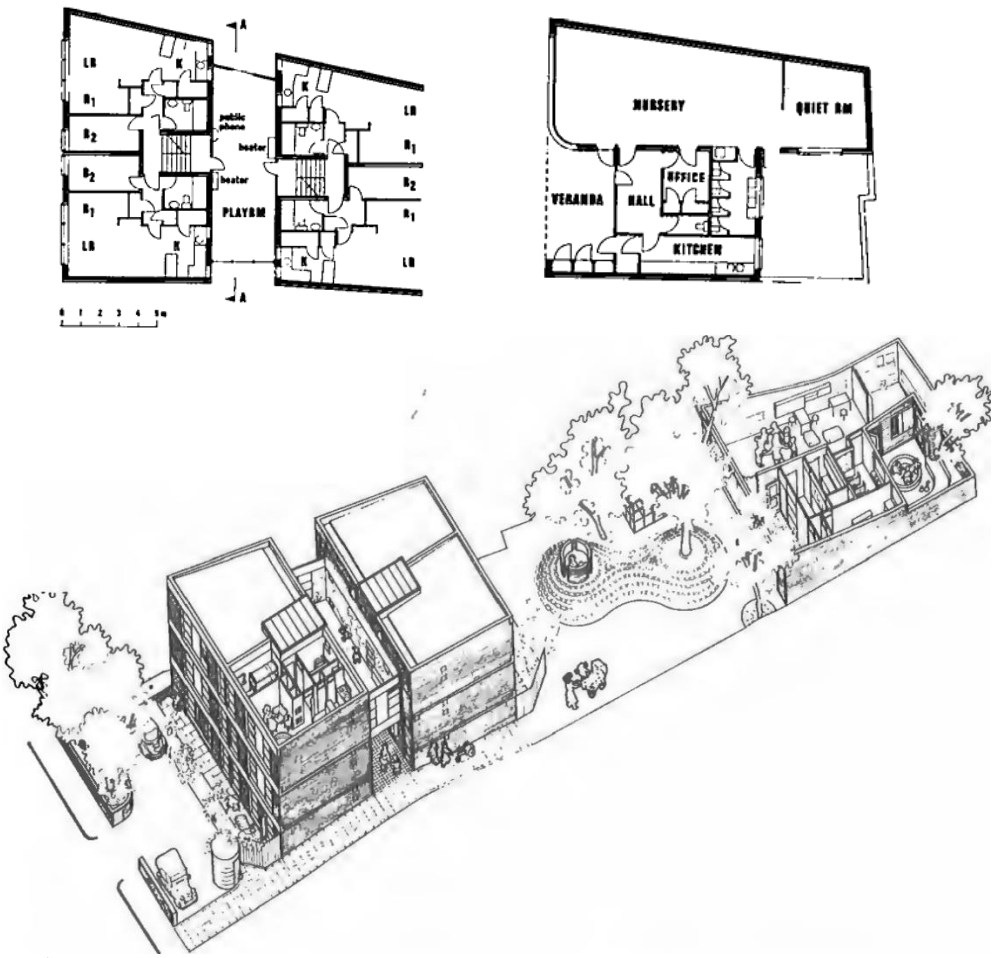


그림 4 Nina West House (자료: Hayden, 1984)

미국의 세 명의 건축가로 이루어진 Women's Development Corporation 는 ‘Housing with Economic Development’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웨스트 하우스의 접근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적용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여성들은 낡은 집들을 물색하여 재생시켜 사용할 방법을 모색했고, 상업 공간을 조사하며 경제 개발 전문가와 지역 소기업 유지 문제를 논의했으며, 여성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공식 보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단체에 속한 여성들 중 12 명이 주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낡은 건물을 재건해 소규모의 협동조합 주택으로 만들어 운영했다. 입주자들은 인근의 상업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소규모 사업체를 설립했으며, 그 수익을 통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업자 및 개발자로서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산업의 성별 분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활동을 지역 사회로 확대하여 상업 거리의 감소에 주목함으로써 더 큰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Hayden, 1984: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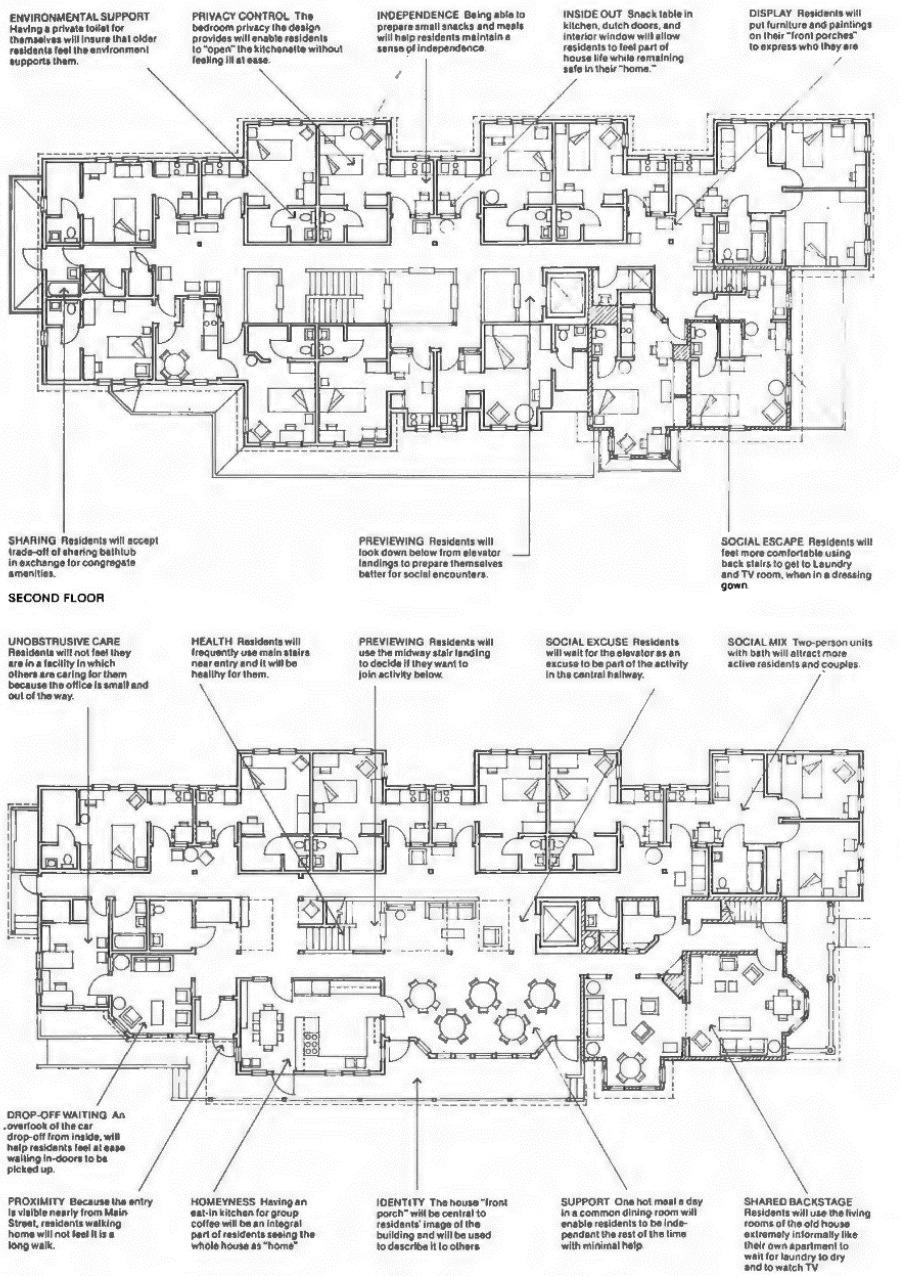


그림 5 Captain Clarence Eldridge House, Hyannis, Massachusetts, Barry Korobkin, 1981, 평면도. 입주자들은 현관, 빨래방, tv방, 식당을 공유했으나 각각의 유닛은 개별 조리시설과 세면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자료: Hayden,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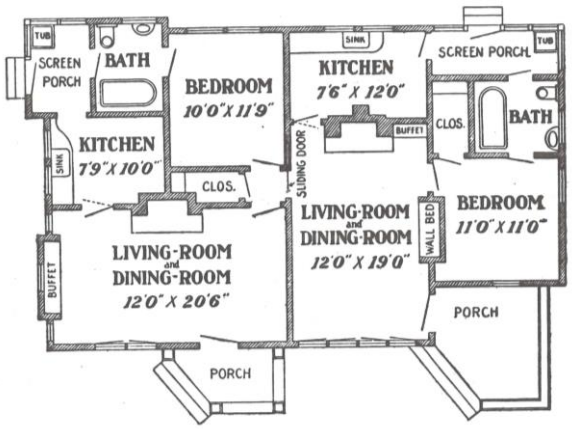


그림 6 두 유닛의 개패 여부를 슬라이딩 도어로 조절할 수 있는 벙갈로, Bowen Court (자료: Hayden, 1984)

한 편으로는 오래된 역사적인 집을 보존하는 정책에 발맞춰 1 인 고령자들을 위한 집으로 개조해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도 있었다. 그 중 하나인 Captain Clarence Eldridge House 에서는 1 층의 현관, 빨래방, tv, 식당을 공유하고 개별 공간의 조리시설, 세면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그림 5). 한 지붕 아래서는 살고 싶지만 반드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싶지는 않은 커플, 혹은 다른 관계 맺음의 양식의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벙갈로도 있었다. 원할 경우 무거운 슬라이딩 도어로 두 공간은 연결될 수 있었다(그림 6).

이상으로 살펴본 페미니스트 주거 운동들은 당시의 시대 배경으로 인해, 주로 가족 내의 여성이 사적 삶과 공적 삶을 어떻게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의 그렇지 않은 예시들만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여기의 대안적 주거도 이러한 과거 페미니스트 주거 운동들이 제시한 개념들을 자양분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충

분히 있다. 또한 실제로도 이미 동일한 형태와 개념은 아니더라도 공유 공간을 운영하며 커뮤니티를 만들고 재생산 노동을 줄이는 등의 협동조합 주택들이 시도 ·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거의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디자인의 요소가 서로 맞물려 연루된 문제라는 점이다. 헤이든은 더 나은 도시계획과 설계는 고용/노동 패턴, 그리고 가사 일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다. 그녀의 주장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적 삶과 공적 삶,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묶여 있으며,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더 풍부하고 복합적인 전이 공간과 활동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나 서비스, 즉 소규모 주거나 공동 주택, 보육 서비스 등을 상품으로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으로는 해결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공정성과 공간적 재통합이 논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때에야, 전통적인 주택 디자인과 소비 개념에 포함된 젠더의 관습을 넘어 서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합의와 그에 맞는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주거공간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Hayden, 1984).

비혼여성들의 집 꾸리기 실천에서 발견되는 문제들도 이처럼 복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먼저 한국의 도시주거환경이 형성되어온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 주거의 근대화와 주거규범

1) 한국 주거의 근대화

한국의 경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서구의 근대적 도시구조와 주거공간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근대화가 진행되기 전 한국의 전통 주택은 지금과는 다른 공간적 구성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공과 사에 대한 개념 또한 현재와 달랐으며 주거의 공간의 기능 분화도도 달랐다. 각 실들은 하나의 기능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도 거의 주거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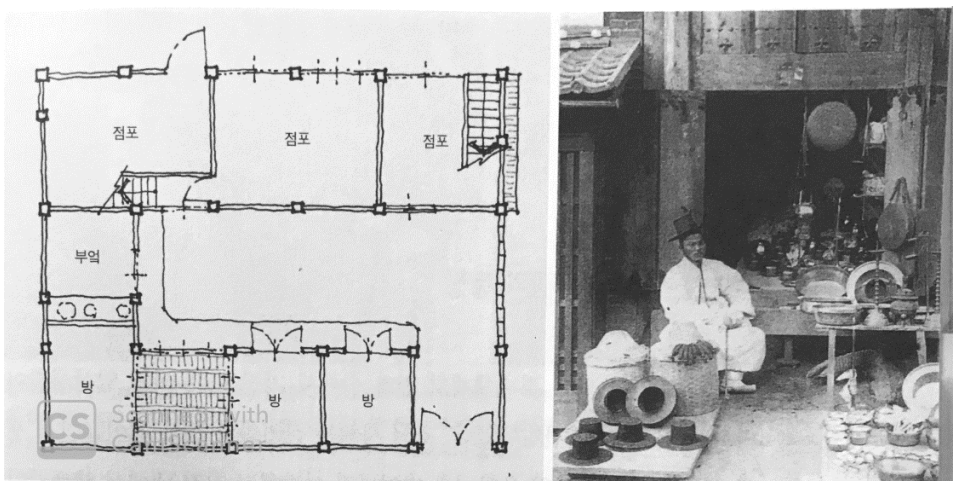


그림 7 1930년대 가가(假家)의 평면(왼쪽)과 살림집에 연결된 상점(오른쪽).
(자료: 전남일 외,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

전통적 주거 문화는 개항으로 인해 도시 경제체제가 변화하며 큰 변화를 맞이한다. 한양이 그 변화의 중심이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며 생산 기능은 주거 공간의 외부로 나오기 시작했으며 여러 가정생활의 기능들이 사회로 편입되고 분업화되어갔다(김성희, 2002). 일제강점

기에 들어서는 신문화와 신문물이 도입되며 사회와 가정의 기능이 보다 본격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일본을 통해 넘어온 서구의 근대적 도시구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과 사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본주의화의 물결과 함께 진행된 도시화는 근대적 공사 구분과 함께 집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들(사교, 휴식, 접대, 오락 등)을 집 밖으로 재위치 시켰다. 카페, 공원, 음식점 등등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집 안보다 집 밖에서의 생활 시간이 많아 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근대적 공사 구분의 도입과 함께 주거공간은 외부와 단절되는 가족들만의 내밀한 공간으로 변모해 간다.

1980 년대 이후에 이르러 찾아온 생활수준의 향상은 더 큰 주택 규모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켰고, 주택 공간 내부에서도 공간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자녀 수가 통계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갖는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아동들은 각자의 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 이 시기 보급되는 아파트에서는 부부 및 성별이 다른 자녀 둘 셋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 침실과 두 개의 아동실을 갖는 평면형이 보편적이었다. 1990 년대에 이르러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주거 공간 밖에서의 사회적 활동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집은 점차 많은 시간이 비어 있거나 주부만이 남아 돌보는 공간이 되어갔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가상의 공간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가 나타났다.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도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시대가 온 것이다.

대단지 아파트가 도시조직의 주거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반면, 평면형의 측면에서는 '거실중심형' 평면이 보편적 평면형으로 자리잡아 갔다(서원기, 2009). 아파트는 검증된 평면이자 상품으로서 구성되어, "삶과 가장 밀접한 건축이면서도 변화에 가장 보수적"인 것이 되었다(홍지원, 2010, 재: 권은경, 201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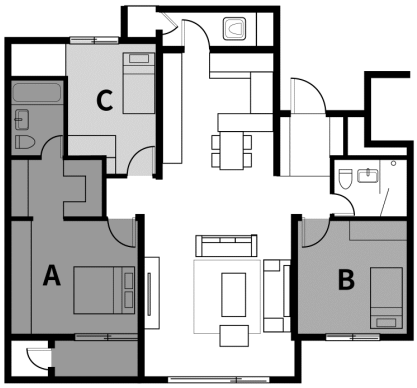


그림 8 거실중심형 평면의 예시 (자료 출처: 아파트 분양공고 재구성)

2) 한국의 주거 규범: 아파트, 분양

서울 인구는 1960 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 증가[9]를 맞이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이었다. 1960 년대 마포아파트의 건설 이래로 아파트 건설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점차 중산층들의 지위를 보여주는 재산의 하나가 되어갔다. 지금은 국민의 50%가 넘는 비율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가히 '아파트 공화국[10]'이라 불릴 만한 한국의 도시 풍경은,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추어 아파트를 공급하며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자 했던 당시의 국가적 공모로 형성된 것이었다[11].

한국 정부는 1960 년대 이후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약을 내세웠다. 정작 대대적 아파트 건설에 공공 재정이 투입되

[9] 1960년에서 1970년 사이 두 배,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두배 가량 증가해 1060만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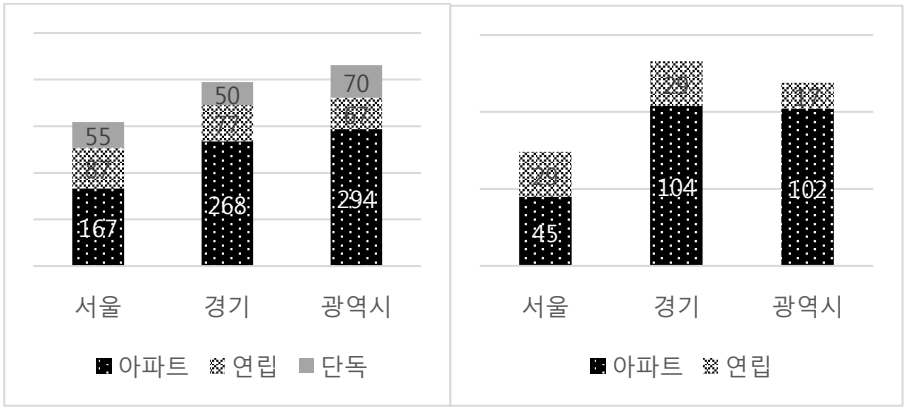
[10] Gelezeau, 2007 참조

[11] 줄레조는 이를 이렇게 요약한다. "요컨대 서울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아파트단지들은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가 재벌과 손을 잡고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만들어 낸 한국형 발전모델의 '압축적 표상'인 셈이다." (Gelezeau, 2007: 101).

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조국 근대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은 이러한 주택 구입의 재정적 부담을 받아들였다. 1957 년에 공식화된 '매매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주택 정책은, '주택의 소유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는 골자를 바탕으로 했다. 자가의 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계층에서든 그만큼의 재산 동원이 가능해질 수 있을 만큼의 물질적 희생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다(Kim, Choe, 1977, 재: Gelezeau, 2010[1999]: 99).

이런 흐름을 타고 1990 년대가 채 되기 전에 도시 전체에 아파트 건설이 일반화되었다. 한국의 아파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1974 년 완공된 반포단지는 강남 개발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알린다. 반포단지의 경우에는 수요가 몰려 분양 아파트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했고, 1977 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분양 제도를 탄생시킨다.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기 희망하는 사람은 주택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이른바 '청약' 제도이다.

줄레조는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 면적에 따른 체계적인 계층화'가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한다(Gelezeau, 2010[1999]). 주택의 장소와 형태, 그리고 생활 방식은 사회 계층을 확인하는 요소로서 작동하며, 고층의 아파트는 그 중에서도 도시 중산층을 의미하는 가장 함축적, 상징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7 년에는 서울 전체 주택의 56%가 넘는 수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연립 = 다세대, 연립, 기타 합산치

서울 및 광역시에서 단독이 감소하여 주택 수 증가에서 제외.

그림 9 지역별 주택수 (2017), 지역별 주택수 증가 (2005~2017)

(자료: 통계청, 단위: 만 호)

한편 한국의 주택정책은 오랫동안 주택 여과 과정(filtering process)의 철학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는 개인적 주거사의 진보에 따라 더 나은 거주지로 부유층이 이동할 때 하위 계층이 그 남은 주거지를 얻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이다. 하지만 주택이 낡지도, 변형되지도 않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서울처럼 중심과 주변이 끊임없이 분화되고 그 분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이런 원리는 무의미하다. 소형 아파트를 희생시키면서 지은 대형 아파트들은 서울 지역의 공간 분화를 심화시켰고, 하위 계층을 주변 지역으로 내몰았다. 아파트단지의 건설 정책은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주로 했으며 지불 능력이 없는 이들은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서울의 보편적인 경관이 되어가는 한편, 서울의 인구 구조는 한 차례 큰 변동을 맞게 된다. 1980 년 15%에서 2010 년 48%로 30 년 사이에 1, 2 인 가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대규모 정비 및 개발 사업을 통해 소규모 주택들은 오히려 다량

멸실되고 중대형의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 위주로 주택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졌다. 이처럼 소규모 주택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소형 주택의 주거비 상승률은 중대형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서용식, 2009: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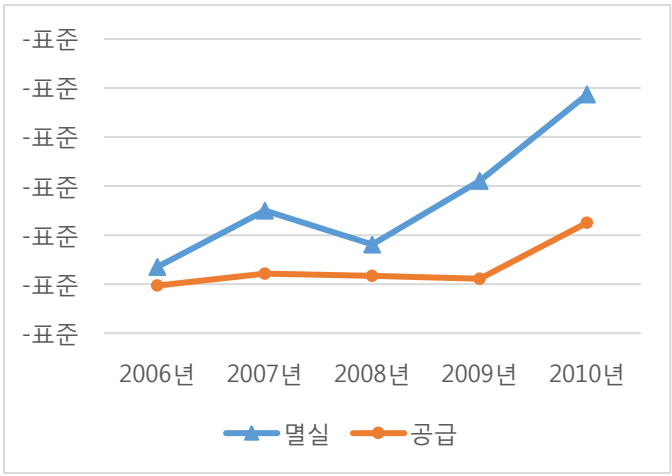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지역 소형 저가 주택 멸실, 공급 전망 (자료: 서용식, 2009)

급증하는 1, 2 인 가구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9 년 5 월 주택법을 개정해 주택건설 기준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주거 공급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른바 '도시형생활주택'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12]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 세대[13] 미만의 규모로 지어진 주택을 의미하며 단지형 연립주택,

[12] 국민주택 규모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를 의미한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m2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13] 원래 150가구였으나 2011년 300가구로 개정되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14],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건축법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15], 어린이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복리 시설과 외부 소음, 배치, 조경 등의 건설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인허가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보완하도록 하는 기준도 도시형생활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16].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최저기준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12m^2 로 설정되어 있다.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이 양산되는 것을 묵인한 것이다. 그러나 저렴한 임대료의 방을 찾는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산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주택의 발 빠른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는 투자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소형 주택이 보급되는 현상을 낳았고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게 된다(권은경, 2015: 47). 공급 기준 완화와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이 초래한 결과이다(조민정, 2011: 157). 완화된 기준으로 소형 주거 공급을 통해 수익성이 확인되자,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2009 년 당시에는 1688 가구만이 인허가가 났지만, 2010 년에는 2 만 529 가구로 늘어났고, 2017 년까지 60 만가구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되었다. 이로서 한국은 양분되고 대립되는 주거구조 속에

[14] 연면적이 660㎡(199.65평) 이하일 경우 다세대주택, 연면적이 660㎡(199.65평)를 초과할 경우 연립 주택으로 구분된다

[15]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제24조 제1항,

[16] 심윤지, " 최저주거기준 유명무실…'1인 가구 공공임대'에 해법 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30600015&code=940100#csidx2822d17ae44697ab3885875044422a0

서 주거사다리의 위층에 있는 아파트로 '오르길' 열망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한국적 주거환경 속에서 통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주거환경과 조건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현실을 보여준다. 가구주의 주택 점유 형태가 월세, 자가, 전세 순으로 많은 반면 남성 가구주(가족 포함)는 자가, 전세, 월세 순으로 높았으며 자가의 경우 50%를 넘었다. 여성 가구주는 20 대에서 50 대에 이르기까지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60 대 이상일 경우에만 '자가'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20 대만이 '월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30 대에는 '전세', 40 대에서 60 대 이상에 이르면 '자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1, 12). 주거 형태 상으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남성 가구주의 경우 훨씬 높았다. 말 그대로 결혼을 통해 가구를 형성하지 여성들은 주거 사다리가 이미 끊어진 한국에서 "끊긴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에[17]" 놓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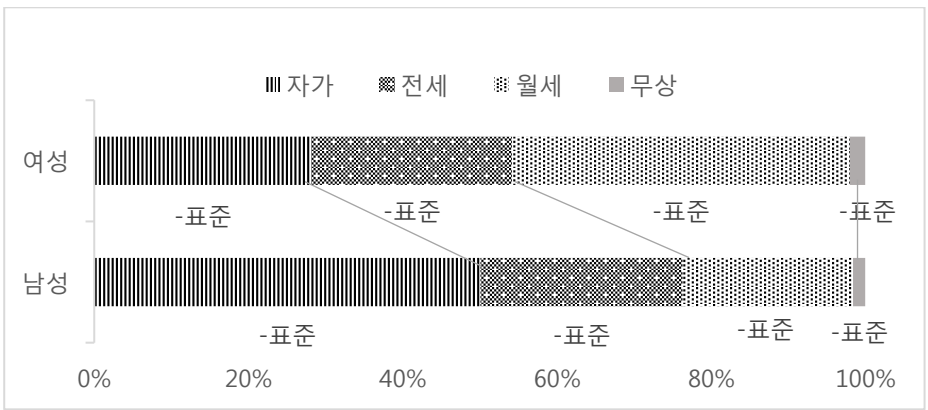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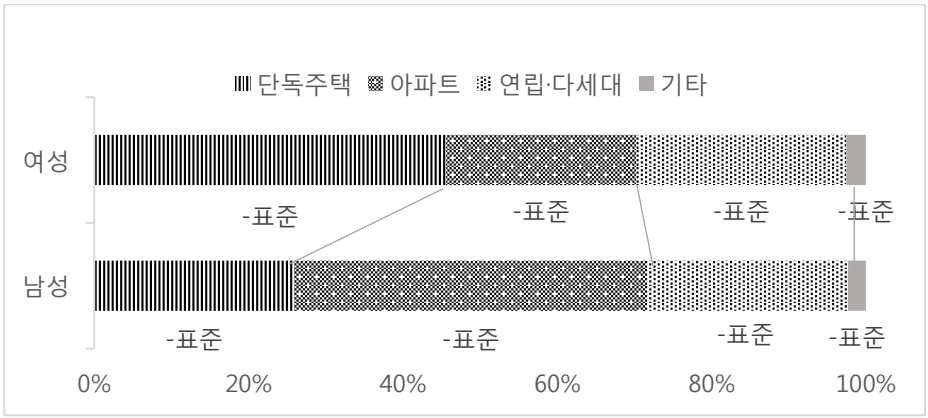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시 가구주 성별에 따른 주거 점유 형태 (자료: 서울시, 2017)

[17] 김지원, "비혼 1인가구, '청년'과 '신혼부부' 사이 사라진 보금자리",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62052005&code=940100#csidxd8e9e3bf4e43280b781af88ab1f8cf3



*여기서 단독주택은 주택법상의 개념으로, 세대가 분리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그림 12 서울시 가구주 성별에 따른 주거 형태 (자료: 서울시, 2017)

제 2 절 '집 꾸리기'의 의미와 규범

1. '집 꾸리기'와 '집'

1) '집'의 의미

'집 꾸리기(doing home)' 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집'에 관한 개념들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집(home)'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적 측면과,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결부된 의미이다. '집'은 '가정'이라는 개념과 종종 중첩되곤 한다. 이 때, 가깝고 사적이며 친밀한 가족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혹은 이런 관계가 위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됨으로써 물리적 주거공간(house)은 비로소 집(home)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Bowlby, Gregory, McKie, 1997: 344).

한 편 볼비 등은 집과 가정의 연계,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복잡성에 대해 주목하기 위해 권력과 가부장제, 집안일과 돌봄, 집 내부의 공간과 경계들이라는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주제를 통해 전통적/규범적 '집'의 속성에 대해 논한다(Bowlby, Gregory, McKie, 1997). 다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집'을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규범적 집'이라 칭하기로 한다. '규범적 집'은 가부장제,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곳이다. '집'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자율성, 그리고 (주로 가족으로 이해되어 온) 구성원들 내의 권력관계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념인 것이다(White, 2002). 이 때 '규범적 집'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의미로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에게는 노동의 장소, 남성에게는 휴식의 장소가 되는 등 불균등하고 성별화된 방식으로 존재한다(McDowell, 1983; Massey, 1984).

2) 집 꾸리기(doing home)

볼비 등(Bowlby, Gregory, McKie, 1997)은 젠더 행하기(doing gender, West, Zimmerman, 1987) 개념을 '집'에 대한 차원으로 확장시켜 적용한다. 이때,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이분법적 젠더 규범을 개별 주체들이 스스로 내재화하고 행함으로써 유지·변형하며 재생산한다고 보는 젠더 행하기의 개념은, 다층적인 '집'의 안팎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성별화된 행동 양식들이 '집'의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때 집 꾸리기는 '집'의 내부에서 친밀성과 관계맺음, 양육과 돌봄을 포함하는 젠더 행하기(doing gender)를 통해 'house'를 비로소 'home'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넘어서,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정하고 거기서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집'을 구성해 나가는 행위들을 포괄한다.

물리적 주거 공간은 가구 구성원들의 이상화된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이를 공간에 반영하여 물리적으로 조직되고 설계된다(Boys, 1990; Johnson, 1993; Madigan & Munro, 1991; Matrix, 1984; Roberts, 1991; Johnson, 1993; Veness, 1994; 재: Bowlby, Gregory, McKie, 1997: 346). 이때, 육아, 가사 노동, 성관계 등의 일상적 행동들을 포함하는 공간의 이용 방식은 젠더 행하기와 집 꾸리기 둘 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용인되는 성 역할에 도전하는 것은 종종 공간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수반하는데, 남성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 여성이 공구 창고에 들어가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분법적 젠더 규범을 위반함과 동시에 성별화된 집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집 만들기는 규범과 비규범의 경계를 넘나들고 일탈적 실천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규범적 집'의 설명가능성(accountability)의 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집'의 규범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규범적 시공간성

근대적 시공간 속에서, 개인들의 생애는 규범적으로 구획된다. 정민우 등은 이러한 생애과정과 공간의 규범적 구획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위해, 할버스탐(Judith Halberstam)이 제시한 '재생산적 시간성(reproductive temporality)'개념의 공간적 차원을 확장시켜 '규범적 시공간성(normative spatio-temporal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정민우, 이나영, 2011).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성별화되고 성애화된 헤게모니적 구성인 재생산적 시간성은, "출산 가능한 몸이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시계, 부르주아적 체통의 규칙, 그리고 기혼자들을 위한 일정에 의해 지배된다(Halberstam, 2005, 재: 정민우, 이나영, 위의 논문: 112)." 다시 말해, 이는 '가족, 이성애, 재생산의 제도에 의해 시간/공간을 규범적으로 구성

하는 방식'인 것이다[18]. 이때 재생산적 시간성 논리의 담론적 효과는 출생에서 교육, 취업, 그리고 결혼과 출생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 과정(life course)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여기서 담론은 이 '정상적' 생애과정 밖의 이들을 '위험'하고 '병리적'인, 그리고 '미성숙'한 존재들로 배치하기에 실제적 효과를 가진다(위의 논문).

정민우 등은 이러한 논의의 공간적 차원을 확장시켜 규범적 시공간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제안한다.

> 규범적 시공간성은 개인의 생애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형적·순차적·위계적인 여러 단계로 나누고(생애과정의 시간화), 이를 특정한 주거 형태와 매치시키며(생애과정의 공간화), 각 단계에서 젠더, 연령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적법한 생애과정을 생산하고, 이를 승인하는 규범체계를 통해 작동하고 재생산되는 담론 체계를 가리킨다. (위의 논문: 114)

생애과정을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정상성' 안에 위치시키는 담론체계인 규범적 시공간성은 제도적 차원과 상징적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인구 집단에게 어떤 주거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지, 또 이를 통해 어떤 이들을 '정상성'의 트랙에 재편입시키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규범적 시공간성의 제도적 차원의 효과는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정상 가족, 그리고 정상 가족을 이루고자

[18] 이는 자녀의 양육과 동반된 일상적 삶의 규범성이라고 하는 '가족의 시간', 가족 유대를 통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가치, 도덕, 부 등을 아우르는 '상속의 시간', 그리고 그런 규범적 가족을 민족의 과거, 또 미래와 연결시키는 '민족의 시간'을 모두 포괄한다(정민우, 이나영, 2011). 할버스탐은 가족과 이성애, 재생산 제도를 통해서 작동하는 이 재생산적 시간성의 규범적 가치를 '탈안정화'하는 시공간으로서 퀴어 시간(queer time)과 퀴어 공간(queer space)을 개념화하며, 이러한 이론화는 LGBT주체들만이 아니라 금융 안전망과 집, 안정적인 직업과 더불어 소수의 부자들을 보호하고자 설정된 시공간 조직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기반하는 것으로 확장시키고자 했다(위와 같은 논문).

하는 단계에 있는 이들(신혼부부)은 비교적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주거 지원 정책에 접근하기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규범적 시공간성은 또한 상징적 차원에서 '정상적' 생애과정의 각각의 단계에 걸맞는 공간을 얻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는 상징체계이자 담론적 현실로서 작동한다. '가족-이성애-재생산'으로 구성되는 제도 하에서 이에 부합하는 영토, 즉 주거공간을 점유하는 이들은 시민의 범주 안으로 안전히 포섭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재현 불가능한 존재', 그리고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해석 불가능한 존재'로 구획되며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위의 논문: 115).

오늘날에는 이러한 규범들이 약화되고 생애과정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차원에서는 이를 다시 규범화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테면 전통적 가족 규범이 약화될 때, 국가는 제도를 통해 가족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그러하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이처럼 규범적 시공간성이 강화되어 작동하는 것 자체가 그 담론 체계의 균열의 징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Butler, 1990).

이 같은 규범적 시공간성은 한국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나영정(2012)은 장애, 성적 지향, 나이, 성별, 인종, 그리고 가족제도에의 포함 여부에 따라 차별 받는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현재의 주거 정책이 계층상승의 욕망과 더불어 특정한 생애주기와 정상가족규범이 맞물려 진행되어 왔음을 지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집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계급재생산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현장"인 규범적인 집으로 위치하며, 이것이 해체된다는 것은 곧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정상가족을 근거로 하는 주거의 형태 이외의 주거는 잔여적인 형태로 한정되어 왔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에 맞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에서는 집을 사고 결혼하고가 같이 패키지로 뭉쳐있는

것 같아요[19].”라는 한 비혼여성 작가의 표현은 이런 규범적 주거 문화의 실태를 정확하게 짚어낸다.

표 3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 (자료: 통계청)

구분	특성
가구 형성기	31 세: 결혼(평균 초혼 연령: 30.6 세), 소득증가, 출산
가구 성장기	39~40 세: 주택구매(결혼 후 주택구입: 평균 8.6 년 소요) 40 대 초중반: 교육비 증가, 소득증가, 주택구입 융자액 증가, 저축 증가
가구 안정기	47~50 세: 주택의 교체(주택 구입 후 평균 8.5 년) 56 세: 퇴직, 자녀 출가, 교육비 부담감소
가구 쇠퇴기	60 세 이상: 주거면적 감소, 소득 감소, 가족 축소

서울시를 중심으로 더 많은 계층으로 주거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와 청년 1 인가구를 위한 지원에 대부분의 정책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는 상황은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규범적 생애주기를 벗어난 이들도 안정적인 생애를 계획할 수 있게 하기 보다는 정책적 유인책을 통해 다시 규범적 생애 주기라고 하는 트랙 위에 재편입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는 또한 비혼 현상에 대한 진단을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축소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19] 위즈덤하우스 인터뷰, “결혼? 비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_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5792036

그림 13 SH 청신호 추진 배경 (자료: SH 홈페이지)

국토연구원에서는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방안'에서 "1 인 청년 → 2 인 커플, 결혼 → 3 인 유자녀 → 4 인 가구로의 연계성 강화 및 지원 확대(국토연구원(박미선), 국토정책 Brief, 2018: 8)"로 이어지는 도식은 결국 주거지원 정책이 목표하는 바가 가족 제도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을 '4 인 가구'라는 이른바 '정상 가족', 혹은 '표준가족'의 형태로 재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규범적 시공간성이 작동하는 예로 볼 수 있다. 한 편 상징적 차원에서의 작동은 비혼여성들의 삶이 '혼자'의 것으로 그려지며 그나마 이해 가능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골드미스 담론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 대안적 친밀공동체와 제 3 의 장소

익명적 도시에 살아가는 개인들은 혈연가족과 직장 이외에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이 부재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정성훈은 이처럼 도시의 익명적 개체성을 보완하는 공동체를 친밀공동체(intimidate

communities)로 개념화한다(정성훈, 2011). 친밀공동체를 다시 밀도 높은,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친밀관계'와 구분하기 위하여, 저자는 친밀공동체를 "기본적인 친밀관계들을 보완하면서 다수의 친밀관계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약화되고 강회되기를 반복하게 하는 관계망"으로 규정한다(위의 논문). 이 때 저자는 친밀공동체의 산물인 '도시마을'을 "이러한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들을 포괄하는 공간"을 지칭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도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도시마을[20]' 대신, 주거 공간이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비혼여성들의 관계맺음 일부를 친밀공동체라는 틀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친밀공동체는 낭만적 사랑, 이성애적 사랑이 처한 위기[21]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자는 "낭만적 사랑에 내재된 남성중심성을 과연 둘만의 '협상'이나 '개인적인 것' 혹은 '성적인 것'의 '민주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친밀공동체는 친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대안이 되고, 둘만의 연애/부부관계와 같은 친밀 관계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 혁신, 지원해주는 '우정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위의 논문).

---

[20] 이 때 정성훈은 이러한 친밀공동체를 도시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그의 연구 대상도 이미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마을을 기반으로 구성한 공동체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비혼여성들이 형성하는 공동체들과는 구분되는 점이 있으나, 친밀공동체의 개념을 기본적 친밀관계를 보완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작동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확장시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정성훈의 연구에서 이러한 친밀공동체는 마을을 공간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특히 비혼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공동체의 형태를 다루고자 한다.

[21] 엄기호, "'이성애적 사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청어람, https://ichungeoram.com/12404

나아가 연구자는 이같은 친밀공동체 대한 논의가 올덴버그(Ray Oldenburg)의 제 3 의 장소에 대한 논의가 각각 공-사의 전이적 영역에 대해 다룬다는 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친밀공동체가 전이적 영역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 다룬다면 제 3 의 장소는 공간적 측면을 논의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제 3 의 장소는 지금의 도시공간이 제 1 의 장소인 집과 제 2 의 장소인 일터로 이분화 됨으로 인해 존재하기 어려워진 '비공식적 공공생활', 즉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의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Oldenburg, 1999). '집'이 물리적 공간임과 동시에 그 내부의 의미망, 관계맺음과 친밀성을 내포하는 의미인 것처럼, 제 3 의 장소는 비공식적 공공생활과 그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공간이라고 하는, 사회적 활동과 공간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올덴버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이분화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영역 또한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집'이 갖고 있는 사적이고 내밀한 속성은, 집에서 가족 생활 이외의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야 할 때는 반드시 '초대'라는 행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만든다. 적절한 제 3 의 장소가 없다면, 개별 가구 구성원들은 결국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스럽고 비공식적인, 가족생활 이외의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는 특수한 경우 집에서의 사생활을 포기하면서라도 공간을 개방하는 편을 택하거나, 많은 경우 그러한 교류를 아예 포기하는 편을 택하게 된다(위의 책). 따라서 비공식적 공공생활을 지원하는 제 3 의 장소는 인간의 사회적 교류를 가족과 공공영역에 국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중요하며, 또한 공공영역에 속하지 못한 이들이 가족 생활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된다.

앞에서 다뤄진 친밀공동체, 제 3 의 장소 등은 기본적으로 가족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전통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형성하지 않는 비혼여성들의 삶에 있어서야 말로 이러한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제 3 의 장소와 같은 적절한 집-일터 사이의 전이공간이 없을 때,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1 인가구들은 더 심각한 고립에 처하기 쉽다. 도시·주거환경이 1 인가구가 곧바로 '고립', '외로움'과 등치되지 않을 수 있는 물리적, 프로그램적 환경을 뒷받침할 때에야 비로소 이어서 살펴볼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가 유일한 대안이 아닌 선택지의 하나로서 위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적 내밀한 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공간에서의 비혼여성들의 생활이 어떠한 저항감을 낳고 있는지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이 보장되면서도 적절한 전이공간을 가진 대안적 주거를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사의 관계를 구분하는 규범과 '가족'이 가지는 헤게모니성을 탈피해 개인들의 유연하고 다양한 관계 맺음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로의 전환이며, 집과 일터의 공간적 이분법을 해체하고 경계를 유연화 하며 틈을 파고드는 영역들을 촘촘히 조직해 나가는 것이다.

제 3 절 비혼'들': 규범적 시공간성을 거슬러 함께살기

1. 비혼'들' [22], 그리고 비혼이 폭로하는 것

1990 년대,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에 기반한 '미혼(未婚)'을 대신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비혼(非婚)'이

[22] 다음에서 참조한 표현: 싱두, "비혼'들' 어떻게 같고 다른가", https://fwdfeminist.com/2019/07/24/vol-2-2/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비혼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해져 왔다. 2010 년대 중반을 즈음해 재부상한 페미니즘의 물결은 다시한번 새로운 청년 비혼 주체들을 탄생시킨다. 온라인 기반 페미니즘 성정치의 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4B'운동, 즉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의 한 구성요소이기도 한 지금의 '비혼'은,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제도적 작동으로서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23], 즉 '반혼[24]'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는 또한 향후 결혼을 하지 않겠음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동료들을 찾아내고 서로를 지지하는, 보다 대대적인 선언과 정치화의 국면으로 가시화된다.

물론 같은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비혼은 단일하게 이해되고 말해지거나 실천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비혼을 때로 개인적 선택의 측면[25]에서 말하기도,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결혼을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나은'것으로 말하기도 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다 적

---

[23] 싱두, 위의 문서

[24] "결혼을 뭐가, 살짝 뭔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어, 결혼이 그래도 좋을 거 같은데? 아니면 비혼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그런 흔들림이 썼는지 이런 이걸 물어보는데 저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중략) 근데 이 비혼이 대체로 좋은 사람 만나면 하겠지, 결혼할 사람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비혼이라는 단어도 솔직히 요즘, 반혼으로 막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혼인 것 같아요. (중략) 솔직히 경제, 그거 주거 문제만 해결이 되면 [비혼 결심이] 정말로 안 흔들리죠. 그, 아는 친구도 이제 '결혼 왜 안 하냐? 안 하냐?'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 들었을 때 친구가 '저 집 있어서 결혼 안 해도 돼요.' 이러니까 '그래?' 이러더래. 딱 말이 끊겼대." <민영>

[25] "제가 생각하는 제 삶의 방식이,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결혼이 이렇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 물론 결혼제도를 통해서도 어떤 조건하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조건 가능한 그런 만남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비혼의 삶이라서 그냥 이걸 그냥 예상하고 있어요. 계속. (중략) 일단 저는 그 로맨틱한 관계가 좀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결혼과 관련해서 가족끼리 엮이고, 뭔가 이렇게, 너무 복잡해지는, 저는 대인관계도 그렇고, 그 외의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관계에서 복잡해지는 걸 못 견디는 편이어서." <지원>

극적인 정치적 선언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혼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비혼주의자임을 선언하건, 그렇지 않건, 비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생애 모델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의 비혼 담론의 자장 안에서 비혼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만큼이나 강하게 드러나는 여성들의 비혼 선언과 비혼의 정치화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은 이러한 비혼 담론을 이해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 늘어나는 비혼여성공동체" 기사의 댓글 중 일부

2010 년 1 월 2 일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 늘어나는 비혼여성공동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게시된 지 불과 이틀만에 6500 여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26]. 댓글 중 가장 높은 공감 수를 얻은 댓글들

[26] 2020.1.5. 접근 기준 64%의 댓글은 남성들에 의해 달렸으며, 남녀를 통틀어

은 단연코 비혼 선언을 한 여성들에 대한 조롱이다. 이들은 기사에 등장한 여성들의 외모를 조롱하고, 이들의 비혼 선언에 대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 폄하하며, “비혼주의가 아니고 꼴페미”라 칭하거나, 심지어는 이들의 짧은 머리 스타일, 그리고 옷을 가리켜 “성적 정체성”이냐는 저열한 질문을 던진다. 이처럼 여성들의 비혼 선언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중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유형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혼자 조용히 비혼하면 되지 왜 시끄럽게 하느냐’가 있다. 이 같은 비난은 ‘비혼’을 단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차원으로 환원하며, 그 이면에 담긴 결혼 제도에 대한 다면적 비판을 비가시화 하는 것으로 작동한다. 여성들의 비혼 결심은 때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자유주의적 용법으로 담론장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를 단순히 개인의 호불호에 의한 ‘선택’의 차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결혼이란, 쉽게 말해, 하지 않았을 때는 ‘부족한’ 것이 있어 그렇다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했을 때는 임금 노동과 무임금 돌봄 노동을 이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최저가부장제[27]’의 굴레에 빠지게 하는 이중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혼 선언은 불합리한 결혼 제도와, 결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식에 대한 복합적인 반발인 것이다.

더불어 비혼여성들의 정치화 움직임은 성별화 된 역할로서 개인들을 환원시키는 기존의 이성애 각본,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탈피하여, 자신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맺음 방식, 그리고 생활양식을 만들어 나가고자

30대(33%), 20대(28%), 40대(22%) 순으로 댓글 작성자 연령대의 비율이 높았다.
김지아, 최연수,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 늘어나는 비혼여성공동체, 중앙일보, 2020. 1. 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64835,

[27] 전혜민, “‘최저가부장제’를 아시나요”, 여성신문, 2019.09.19,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089.

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때로 페미니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여성들은, 성차별을 인지는 하지만 적극적 개입의 의지는 없는, 혹은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는, 혹은 역차별론을 바탕으로 하는 포스트페미니즘적 의식을 내제화하고 있는 남성 집단과의 성 인식에 대한 차이를 점점 인지하고 있다[28][29]. 이에 따라 이들은 기존의 연애와 결혼을 통한 평등한 관계맺음의 '불가능성'을 논하며, 다른 방식의 관계맺음과 공동체 형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30]. 다시 말해, 한국 청년 여성들의 비혼 선언, 그리고 실천은, 결혼이 하지 않아도, 해도, 하기에도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한 데에서 발발되는 것이

---

[28] 19세~34세 청년 3000명과 35세~59세 기성세대 2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마경희(2019)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 중 20대 여성의 10% 내외만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수용하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3~40%가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대 여성의 대다수(86.6%)가 여성의 가사와 돌봄 책임에 대한 압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나 남성의 경우 45.2%만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의 생계부양 책임 압력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70%내외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친밀 관계에 관해서는, 연애를 하지 않는 20대 중 여성의 경우 26.7%가, 남성의 경우 18.8%가 향후 연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연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여성들의 경우 34%가 "가부장적 연애가 싫어서"라고 답한 반면 남성은 9.6%만이 그렇게 답했다.
결혼하지 않은 20대 중에서는 약 32%의 여성이, 약 16%의 남성이 결혼 의향이 없다고 밝혀 큰 차이를 보였다. (마경희, 2019)

[29] "(페미니즘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난 그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연애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지아, 최연수, 편광현,""한국남자랑 연애 안해" 20대 여성 절반이 '탈연애' 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81914

[30] "진짜 천운이 좋아서 그렇게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시부모까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략) 원가족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원가족이었으니까, (중략) 가장 기저에 있는 이것은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들,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면 시부모나 남편과 그런 것들이 생길 텐데 굳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내가 선택할 가족들은 좀 그런 감정 소모 안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혼을." <현정>

다. 즉, 비혼 담론은 결혼-가족제도와 규범적 이성애 각본의 불합리함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러한 규범적 영역 바깥의 선택지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중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서 기능한다.

2. 함께살기: 규범적 시공간성을 거슬러 집 꾸리기

2 절에서 살펴보았듯 '집'은 물리적 주거 공간과 거기서 일어나는 생활, 관계맺음, 그리고 문화적 코드 등을 내포하는 총체적 집합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집'의 복잡다단한 면들에 걸쳐 일어나는 비혼여성들의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다.

규범적 시공간성의 제도적 · 상징적 차원에서의 작동, 그리고 불균형한 고용시장 등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은 채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을 획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런데 비혼여성들의 불안은 단지 '그럭저럭 괜찮은' 주거공간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 1 인을 위한 주거가 주로 임시적이고 협소하게 만들어 지는 것, 그리고 공-사의 근대적 구획으로 가족과 공적 교류 이외의 사회적 교류들이 정형화되고 협소해지게 하는 것은 비혼여성들이 미래를 상상할 때 '고립', '고독'을 함께 떠올리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불안은 비혼여성들이 온 ·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모여 고민을 공유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해법을 도모하는 크고 작은 모임들을 형성하도록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혼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들이 특정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특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했다. 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둘러싼 주거 · 인적 상황들과 협상, 재협상을 해나가며 서로 다른 구성의 '집'을 꾸려가는 이들의 유동하는 행위성을 드러내줄 용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living together'의 번역어로서, 그리고 '반달'의 '함께/살기[31]'를 참고하되 그 주거적 측면에 보다 집중하는 용어로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함께살기는 규범적 시공간성을 거스르는 대안적[32]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으로 위치한다. 다시말해, 함께살기는 비혼여성들과 이들의 동료들이 ① 규범적 시공간성의 바깥에서 ② 주거공간에 느슨하거나 촘촘하게 모여 ③ 다종다양한 관계 맺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함께살기는 복합적 특성을 가지는데, 함께살기가 ①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선택하는 궁여지책으로서 촉발되는 측면도 있으나, ② 선택가능한 결혼제도 밖의 외부를 상상가능하게 하고 늘려나가는 효과를 낳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③ 1 가족 1 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온 도시구조, 주거환경에 문제제기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실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이상적인 대안이기만 한 것도, 어쩔수 없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찾아낸 궁여지책이기만 한 것도 아닌 함께살기는 어쨌거나 비혼여성들이 사회 · 경제적으로 대안을 찾

---

[31] 비혼퀴어여성 함께/살기모임 반달은 "페미니즘이라는 지향을 공유하는 비혼 청년들이 모여 주거/생활공동체 혹은 그보다 느슨한 네트워크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고민하는 모임"이다. 반달은 이러한 고민점을 '함께/살기'라는 표현으로 압축하는데, '함께'가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이라면 '살기'는 주거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다.
경서, 초롱, "돈없고 집없고 가족없는 여성들의 '함께/살기' 전략", 일다, 2019.6.1
https://blogs.ildaro.com/3571

[32] 본 연구에서 '대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는 기존의 것은 그대로 둔 채 그 외부에서 선택가능한 것으로의 대안, 즉 자유주의적 의미의 대안을 말하는 것과는 다름을 밝힌다. 기존의 규범체계에서의 선택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실천들로서의 이 '대안'은 그 외부 영역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는 행위일 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규범에 균열을 내며 그것이 형성되어 온 판을 궁극적으로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반발이기도 한 것이다.

고 도시공간과 협상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효과도 낳는,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실천들로 자리한다.

제 3 장 '자기만의 방'을 넘어 함께살기

'자기만의 방'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1929)가 억압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제시한 공간적 조건이다.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자기만의 방'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주거 독립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비혼여성들에게 '자기만의 방'을 향한 여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 개인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획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은 주거의 조건이다. 비혼 생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방 같은' 공간을 넘어선 '집다운' 집은 비혼여성들이 '자기만의 방'을 넘어서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공간이 된다. 이 장에서는 원가족과 함께 사는 집을 벗어나 '자기만의 방'에 다다른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방 같음', 그리고 함께살기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함께살기를 실천하며 겪는 어려움들을 다루고 있다.

제 1 절 주거 독립과 임시적 공간에서의 '밀려남'

1.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과 따로 살게 된 계기는 많은 경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고향에서 나오게 되었을 경우였다. 다만 <다은>의 경우에는 연예인의 팬덤 활동을 하기 위해 올라와 같은 팬덤의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살게 된 계기라 밝혔다. 대도시에 교육기관과 문화 인프라, 일자리 등이 집중됨에 따라 결혼 전의 여성들이 도시로 교육, 노동을 위해 이주하는 일이 잦아지며,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원가족으로부터 공간적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지고 있다. 반면 취직이나 진학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가족과 살던 집에서 가까운 거리로 독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이 같은 근거리로의 주거 독립은 보다 많은 준비를 요하거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용인되는 것이었다. 정은은 가족들에게 성적 지향을 알리고 난 뒤 "쫓겨나"게 되어, 다시 본가로 돌아가기 전까지 한동안 고시원이나 친구 집에 월세를 보태며 살았었다고 말한다.

어떤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었건,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들의 감시망을 벗어나 독립된 공간을 얻어 거주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록 그런 공간이 나중에는 우울하거나 답답한 느낌을 줘 대안을 찾게 되더라도 다시 원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는 없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이에 대해 "상상도 못할 일"이라 표현했다(정은).

> 혼자 사는 거 너무 좋았어요.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서 룸메이트를 구했던 거지 다시 본가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은>
> 문을 못 닫게 해요, 저희 집은. 문 닫으면 뭐 무슨 고민 있니 그래요. (중략) 정서적으로 굉장한 교감을 강요하잖아요. (중략) 그냥 부담감. 효도에 대한 부담감,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고 잘해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고, (중략) 부모님한테는 잘해야 한다, 화내면 안 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 구실을 해야 한다. 저는 사람 구실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아까 그 요구되는 역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구실, 예를 들면 뭔가 어디 때가 되면 뭔가 우리, 간다거나, 인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 사람구실. 안하면 약간 안 될 거 같은 그럼 규범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불편한. <은주>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정서적 교류를 중요시 여기며 “문을 못 닫게” 하는 분위기를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했다(은주). 은주는 그런 정서적 교류가 부담될 뿐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꼭 해내야 하는 “사람 구실”같은 게 있는 것이 불편했다고 말한다. 이런 배경에서 은주에게 처음 고향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한 경험은 “엄마가 뭐라고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것이며, 처음 가족과 따로 살기 시작한 공간은 원 가족과 함께 사는 ‘규범적 집’과 대비되는 “내가 뭘 하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방”이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별화된 가족의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간적 독립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비혼여성들이 그러한 ‘규범적 집’에서 떠나 닿는 곳은 주로 원룸, 고시원과 같은 임시적 1 인가구에 배당된 영역이었다.

2. 주거 공간에서의 밀려남: ‘방 같은’ 주거 경험

주거 공간은 자아감에 영향을 주는 공간으로서, 개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McDowell, 2010[1999]). 연구 참여자들이 처음으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얻어 살게 되었을 때 주로 거주하게 되는 곳은 비교적 주거비가 적게 드는 원룸, 고시원, 민간 셰어하우스, 혹은 학생 기숙사 등이었다. 처음에는 가족과 분리된 자신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게 되어 기뻐하던 연구 참여자들은 점차 원룸이라는 공간이 가진 사회적, 공간적 한계에 부딪혀 다른 주거 형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학업–취업–결혼의 생애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청년 1 인가구의 생활은 주로 다음 단계를 위한 도약의 단계로 그려진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주거사다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들에게는 원룸이란 벗어나고 싶지만 동시에 언제 벗어날 수 있을 지 어떠한 기약도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고용/노동 시장은 이들의 불안감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원룸에서의 오랜 생활을 우울, 잦은 이사에 대한 불만, 안전하지 않음, 사생활의 부재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표현했다.

은주는 처음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가족 생활이 주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냥 좋았지만, 점점 '우울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 원룸에 너무 오래 살면서, 이제 7 년 8 년 사니까 점점 약간 우울해지는, 원래 우울한 성격이 전혀 아닌데 좀, '아, 집이라는 곳에 살고 싶다.' 그 얘기 다들 하던데, 방이 아니라 집에 살고 싶다. 내가 방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밖이야. 그거는 너무, 어, 뭐랄까 그냥, 어딘가에, 그냥 상자 안에 들어가서 사는 느낌? 집이라는 것은 적어도 들어가면, 뭔가, 아 바깥과는 차단이 되어 있다, 라는 느낌과 함께 이제 내가 쉴 곳에 가서 쉬고, 밥은 여기서 먹고 tv 여기서 보고, 빨래는 여기서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뭐든 한 방에서 이루어지니까, 갑갑하다. 그리고 좀, 나는 약간 닭장에 새 같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편안히 좀 몸을 뉘거나. 쉴 곳은 쉬고, 공부할 곳은 공부할 곳,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었으면, 내 마음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이라는 곳이 그냥 사실 박스에 딱 던져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우울감이 좀 있다는 거를 몇 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술 먹고 들어가도 뭔가 집 같지가 않을까? <은주>

은주에게 방문을 열면 바로 밖인, 그리고 쉴 곳도 공부할 곳도 모두 통합되어 있는 원룸 공간은 원래 우울하지 않은 성격을 가진 자신도 우울하게 만드는 공간이었다. 은주는 원룸에서의 거주 경험에 대해 '집'이 아닌 '방 같음', '상자 안에 들어가서 사는 느낌', '닭장에 새 같'음, '박스에

딱 던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런 고민은 은주가 무엇이 '집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인지 질문하게 한다.

현정도 원룸에서 혼자 살던 경험에 대해 외롭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으로 표현했다.

> 혼자 살 때는 되게 가기 싫은 데였어요. 집에 가면 너무 외롭고 집에 가면 딱 집에 왔을 때 안녕~하는 룸메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중략) 전에는 집에서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집에 내가 집에서, 집에서, 깬 상태로 5 시간 이상 있다, 그것은 또 우울증에 무기력증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였는데 <현정>

지금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는 현정은 혼자서 살던 원룸 공간의 물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혼자'인 것에 대해서도 한계를 느꼈다. '룸메'가 있을 때와 다르게 혼자 살 때는 '가기 싫은' 곳으로 인식했으며, 집에서 깬 상태로 오랜 시간을 있는다는 것은 곧 우울과 무기력의 신호였다고 해석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혼자 살던 때의 거주 형태는 원룸이 가장 많았던 한편, 주된 주택의 점유 형태는 월세였다. 월세는 가장 이동성이 높은 점유 형태에 속하며 이는 주거 점유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은주는 20 대때 계속해서 이사를 다녀야만 했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 이제는 [집을] 샀으니까 끝나지 않았을까. 이사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사를 열 번은 다녔어요. 열 번 넘게 한 거 같아. (중략) 엄마가 갑자기 보증금을 빼 달라고 해서 한번 작은 집으로 옮긴 적이 있고, (중략) 학교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옮기는 적도 있고. 좀 큰 집에 살아 보고 싶은 마음에 옮겼지만 실패한 적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엔 집에서, 본가에서 돈을 대줬기 때문에 제 선택은 별로 없었던 거 같고 집 사정이나, 결국은 허락을 받아선데, 허락도 잘 안 해주고 <은주>

오랜 기간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던 경험을 뒤로하고 두 명의 과 후배들과 함께 주택을 구매해 이사한 은주는 더 이상은 이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지원의 경우에는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임대주택을 전전하면서 '부유하고 돌아다니는' 형태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며 '정착'을 통해 '삶을 정립'하고 싶어한다.

> 독립을 했는데, 어쨌든 독립을 좀 더 완전하게 이루려면, 이렇게 해서 막 부유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이런, 그런 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독립을 했으면 다른 뭔가 제가 정착을 하고 제 삶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할 거야, 그러고 싶은데, 그게 그런 주거 문제 때문에. 주거 문제가 걸림돌이. 자꾸. <지원>

흔히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상징되는 주거 빈곤의 문제는 여성들에게는 보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안전 문제로 인해 지옥고에 머무는 것이 더 위협적인 경험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한 방을 쓰더라도 셰어하우스처럼 보다 안전한 공간을 선택하거나, 더 높은 주거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더 좁은 공간을 점유하게 되기도 한다. 다은은 고시원이라는 공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나온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1 층에는 다른 게 있었고, 2 층이 아마 고시원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화장실처럼, 상가 같은 데는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요, 계단과 계단 사이에, 그런 데서 이제 남자들 욕실인 거에요.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샤워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있었고, (중략) 방이 아마, 제가 있던 층에 아마.. 한 열 다섯 개? 근데 방음이 진짜 하나도 안돼요. 진짜 하나도 안 되고,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온 거거든요. (중략) 나이 든 아저씨들이 이제 술 마시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전화하는데 그게 밖에 나가서 하는데도 다 들리는 거에요. 너무 무

> 섭잖아요. 무서워서 그때 바로 검색해서 찾은 게 여기거든요. [같은 동네 셰어하우스에] 타이밍이 좋게 딱 빈 방이 있는걸 발견을 해서 바로 다음 주에 이사를 갔어요. <다은>

편리성을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했으나 개인 공간이 없는 생활에 지쳐 밀려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은 수도권 바깥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 서울로 올라오며 셰어하우스에 살기 시작했었다. 보증금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면서 월세 부담도 적고, 따로 가구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셰어하우스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지원은 셰어하우스를 "오래 살" 만한, "쾌적한 곳"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 이런 것들이 갈수록 좀, 아 여기는 살려고 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빨리 나가게, 거기가 로테이션이 되게 빠르거든요. (중략) 오래 산다고 하기에는, 일인 실은 모르겠지만 4 인실이나 뭐 2 인실은 수납 공간이 너무 현저히, 너무 부족하고, 튼튼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략) 서로 그런 피로도가 쌓여가다 보니까 사실 서로 좀 예민해지고, 많이 지치고, 거의 병들… 병들어서, 저하고, 그때 같이 방 썼던 친구들은, 정말 약간, 정말 병 들어간다 이게, 지쳐서 그랬었어요. 그 와중에 4 인실이 되게 돈독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어떻게 기회가 되서 부모님 지원으로 이렇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들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도 같이 살래? 그래서 그 중에 세 명이 이렇게 나와서… 네. 쉐어하우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지원>

지원이 거주했던 셰어하우스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였음에도 최대 인원이 여덟 명이나 되었기에 지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었다. 화장실이 딸린 가장 큰 방에는 네 명이 한 방을 사용했다. 지원은

이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과 매우 친해져 훗날 함께 쓰리 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지만, 이렇게 한 방에서 부대끼며 지내던 경험을 결코 '건강'한 경험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지원은 이처럼 '방 같은' 셰어하우스에서 각자의 개인 방이 있는 쓰리 룸으로 방을 구해 이사하기까지의 여정을 '탈출'이라 표현한다("탈출, 정말 탈출 했어요.")[33][34].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혼자의, 비좁은, 고립된, 외로운 거주 공간을 '집 같지 않은' 곳, 즉 '방 같은' 곳으로 인식했다. 이 때 연구 참여자들이 바라는 '집 다운 집'은 '방 같은' 곳과는 대립되는 특성을 가진 곳이 된다.

3. '집 다운' 집 열망하기

원가족과 독립해 살게 된 비혼여성들은 하위주거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집 같지 않음'을 감각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나아가 타파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지만, 이유를 모른 채 무기력증과

---

[33]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정은의 경우는 이 같은 민간 셰어하우스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다. "진짜 기가 막히게 가격을 책정해 놨더라구요. (중략) 국가에서 주거권을 보장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딴 데 이 큰 돈을 주고 살게 하는구나. (중략)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건물주들이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셰어하우스 운영 법 같은 게 써 있어요. 이런걸 공유를 하면서…." <정은>

[34] 셰어하우스는 2011년 초 국내에 도입된 후 가파른 속도로 그 시장이 성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적절한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양산되어왔고, 여러 명이서 한 방에 생활하면서도 낮지 않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들을 발생시키며 일명 '예쁜 고시원'이라는 오명을 얻는다. 셰어하우스 문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은 1인 1실이 보편적이지만 국내에서는 2인실은 물론 더 많은 인원이 한 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제제는 없는 실정이다.
최아름, "민간 셰어하우스 '8인 1실' 불법 아닌 이유", 2019.10.21, 더스쿠프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577689&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우울에 시달리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이유를 모른 채 이 같은 무기력함, 우울을 경험한 이들은 ① 더 나은 주거 공간의 경험, 혹은 ② 일상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적 환경을 경험하며 이전의 좁은 공간에서 느끼던 부정적 감정들의 원인을 깨닫게 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들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에 거주하던 곳을 '집 같지 않은' 공간, 즉 '방 같은' 곳으로 의미화했다. 이때 '집 다움'을 말하는 방식은 연구 참여자들마다 조금씩 달랐다. 그렇지만 대게 연구 참여자들이 말한 '집 다운' 집은 '방 같은' 곳과 대비되는 곳으로서, ① 일상적, 이벤트성으로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곳, ②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 ③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 가능한 곳, ④ 건강을 해치지 않는 곳, ⑤ 정주 가능한 곳. ⑥ 안전한 곳 등을 의미했다.

표 4 연구 참여자들에게 '방 같은' 것과 대비되는 '집 다운' 것의 의미

'방 같은'	'집 다운'
고립된	일상적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사생활을 지킬 수 없는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 느낄 수 있는
건강을 해치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정주 불가능한, 떠도는	정주 가능한
안전하지 않은	안전한
…	…

정은에게 '집 다운' 곳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동시에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곳이었다. 정은에게 있어 이러한 조건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 조건이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는 주거 공간이 많은 현실을 비판했다.

지원은 집 같음의 조건으로 관리가 잘 되어서 본인의 통제 하에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을 말했다.

> 깨끗한 거, 관리가 되고 제 물건이 드러나 있고 해서, 깨끗한 그 제가 아는 그 상태로 있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데, 제 통제 하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리하고 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다,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그래야 제 공간 같고, (중략) 내 공간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지원>

'집'은 거주자의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지원에게 이전에 살았던 셰어하우스는 개인의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공간'이라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공간이었다. 또한 '임시적'인 거주의 형태가 통제감 · 소속감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좀 더 정주적인 거주를 원한다고 지원은 말했다.

> 저희가 셰어하우스나 뭐 이런 데에서 계속, 서울에 독립을 해서 왔는데, 계속 집 같은 그런 집이 없고 임시로 계속 거쳐 가는, 계속 이런 곳에 있는 게 다들 너무 지쳐 가지고, 서울에 정착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컸거든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집,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자립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런 포부가 있었는데, (중략) 어디를 전세를 얻고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얻을 수 있는 데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거쳐 갔던 집들을 다 뭔가 정말 잠깐 있을 집들 같은, **방 같은**, 그런 데였어서. <지원>

잦은 이사는 높은 피로도를 유발하고, '(물리적으로는) 독립을 했으나 (제대로 된) 독립을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느끼도록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연구 참여자들을 놓이게 한다. 셰어하우스의 같은 방에서 함께 살던 지원과 두 명의 룸메이트는 이런 불안정한 서울에서의 독립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얻기를 소망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또한 집은 일상 · 비일상적인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칸에 모든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원룸 공간은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기에 타인을 초대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문턱이 높은 일이 되며, 집에서의 사회적 교류를 포기하는 편을 택하게 되기도 한다.

> 원룸에는 그 쪼만한 방에다가 그 플라스틱 협탁 펴가지고 앉아서 친구들이랑 노는게 너무 싫은 거예요. (중략)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상호작용을 할 수 없게 집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밖에서 [다른] 공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카페를 가거나...<정은>

정은은 이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있기에 마땅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집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정은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집 안에서만 한동안 생활하더라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집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이 같은 조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 '방' 같은 공간들을 양산하는 주거 공급 체제에 대해 비판한다.

>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옷을 보관할 만한 공간들이 있어야 되구요, 옷 뿐만이 아니라 창고 같은 의미로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물건들은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 요리, 어쨌건 이 사람이 집에 갇히더라도 살 수 있는, 집에 갇히더라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그걸 갖출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카페가 이렇게 흥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도 자꾸 밖에서 사 먹게 되고 이런 게, (중략) 집에서 못

해먹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은>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집 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거 전략을 구사한다. 이때 함께살기는 '방 같은' 공간에서 탈출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집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되고 상상해 보지 않은 정주형태를 모색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제 2 절 함께살기의 시작

'집'이 전형적인 가족 생활의 근거지로 인식될 때, 가족 생활을 벗어난 함께살기는 재현되지 않는 영역에 위치하거나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살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살게 되며 함께살기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장기적 함께살기를 모색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 명이 사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또는 재생산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혹은 집에 누군가가 있어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집 같음'을 느끼기 위해 함께살기를 선택하기도 했다. 그리고 각자만의 이유로 다시 흩어지거나 구성원이 변하고,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 방법, 혹은 따로 살며 '함께'라는 감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하기도 했다. 이번 절은 '방 같은' 공간을 떠난 연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살기를 모색하기 시작한 지점을 출발 점으로 삼는다.

1. 함께살기 발견하기

1) 우연한 발견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는 시작하기 전에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거나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면이 있다. 주영은 특히 이처럼 주거공간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계기로 불특정 다수와의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기숙사' 생활을 꼽았다.

>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일등 공신이 기숙사라고 생각해요. 학교 기숙사. 거기는 너무나 많은 빌런(villain)들이 있고, (하하하) 내가 내 룸메이트들을 고를 수 없고, 그리고 저는 학교 기숙사가 5 인 1 실이었거든요. 진짜 끔찍했어요. (중략) 우리 둘은 '이제부터 우리 같이 살 사람이야' 이러고서, '안녕, 잘 부탁해'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에. 서로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나이 동갑이고 성별 같고, 뭐 이름 뭐고. 약간 이 정도만 알고 지내다 보니까 이 거를 간극을 전혀 좁힐 수가 없고 대화가 불가능한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이후에는, 그 친구 다음에는 이제 저랑 마음이 맞는 친구랑 같이 들어 갔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 이 차이가 있구나. 이 차이가 있구나. 기숙사가 사람들에게, 함께, 같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는 삶이 좀 끔찍하다는 기억을 심어주는구나, 이걸 좀 그때 생각했어요. <주영>

주영은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숙사 실 배정으로 인해 학생들 간의 불화가 있었던 경험,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지만 나이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방을 함께 사용하게 된 룸메와의 긍정적이지 않았던 경험들을 통해 기숙사라는 곳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는 삶이 좀 끔찍하다는 기억을 심어주"게 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함께 살며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주영은,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경험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우연한 계기로 함께살기의 이점을 발견한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함께살기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게 되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셰어하우스에서 첫 원가족과의 독립을 시작했던 지원은 셰어하우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함께살기의 이점을 발견하게 된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셰어하우스에 살기 전에는, 셰어하우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였고. 그 전에 저는 다른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대 나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산다니, 말도 안된다, 난 가족과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경험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저에게 굉장히 이로운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지원>

지원에게 셰어하우스라는 공간은, 그 곳에서 빠져나와 다른 공간으로 이사한 경험을 “탈출”이라 표현할 정도로 “피로도가 쌓”이고 “지쳤”던 경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살기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공간이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지원은 셰어하우스에서 살아본 경험을 통해 사실은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이로운”부분이 많기에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은주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가족의 간섭을 떠나 혼자 사는 것이 좋았지만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외로움을 느꼈었다. 그러던 중 사업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경제적, 감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이득이 많”다는 것을 느껴 그 이후 함께살기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었다.

> 처음에는 직장을 좀, 사업이죠, 동업을 잘 이끌어 가보려고. 의무적으로 그래서 한 1~2 년은 같이 살아 보자 라고 정했던 게, 같이 살아 보니까 여러모로 이득이 많았던 거에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고, 그리고, 그냥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위안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좋고 그래요. 그리고 뭐 밥을 하나를 해 먹어도 같이 먹고, 같이 나가서 술도 먹고 <은주>

대학 동기의 가족들(오빠, 남편)과 함께 넷이서 살고 있는 민영은 우연히 상황이 맞아떨어져 임시적으로 함께살기를 실천하고 있었지만, 이런 경험에 대해 "너무 좋"다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서로 뭐 축하 파티를 되게 많이 해요. 대단하게가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뭐, 뭘 했는데 어디 가서 뭐 축하 파티나 하자. 어디 가서 같이 저녁 먹고 뭐 와인 한잔 하고, 그 밤에 시간을 같이 보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개인적으로 각자 따로 생활을 하다가 딱 시간이 맞으면 같이 저녁 식사하고 주말에 뭐 브런치 하러 가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민영>

민영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살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 경제적 여건이 될 시 현재 머물고 있는 거처에서 혼자 사는 곳으로 일단은 이사를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같은 함께살기의 좋았던 경험이 "각자 따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도 시간이 맞을 때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말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방식의 함께살기에 대해 새로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소현의 경우에는 비건 지향인으로 생활을 하다 원가족과의 마찰로 인해 집에서 나왔을 때, 우연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비건, 비혼, 페미니스트들의 공동체 하우스에 입주할 기회가 있어 함께살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혼자 살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연히 조건이 맞아떨어져 입주하게 된 공동체 주거에서 소현은 함께살기의 긍정

적 측면을 발견하게 되고 해당 협동 조합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함께 살았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신념을 조합원들과 함께 실현하고자 노력 중이었다.

2) 적극적 시도

공동 거주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우연히 함께살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연구 참여들도 있었다. 다음은 협동조합형 공동체 주택에서 거주했던 한 비혼여성의 인터뷰중 일부이다.

> 최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고 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재까지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진심으로 의지할만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지만 최씨는 "그게 꼭 결혼을 통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35]

위 기사의 인터뷰이는 예전부터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던 인터뷰이는 혈연 가족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의지할 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터뷰이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 비건, 비혼,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주택을 꾸렸었다.

정은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룸메이트를 갖길 원했고 기회가 생겼을 때 실행에 옮겼다.

---

[35] 홍상지, "지금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목소리 내기 시작한 비혼여성들, https://news.joins.com/article/21729708

> 제가 항상 룸메를 갖고 싶어 했었어요. 옛날부터. 원래, 작년에 독립했을 때도 여자친구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혼자 독립하려고 했던게 아니었는데 직전에 깨져 가지고 혼자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맙소사 이러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반달 하면서 현정이한테 '아 나 룸메이트 필요하다, 나중에 너 그때, 그때 막, 룸메이트로 같이 사는 걸 지향해보자' 그런 얘길 했었고 <정은>

정은과 현정은 주거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혼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모임 '반달'의 일원이다. 이 모임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많은 구성원들이 실제로 함께살기를 계획하거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연히 함께살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함께살기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을 명확하게 경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는 주로 쉽게 재현되지 않는 영역에 있어 보다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문턱을 넘어 지속가능한 대안적 거주의 방식으로의 함께살기를 모색하기 시작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함께살기는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3 절에서 다룬다.

2. 공간이 만드는 공동체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데에 있어 적절한 물리적 공간이 뒷받침되는 것은 중요한 조건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 경험에서, 거실과 같이 넓으면서도 어느정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각자의 사생활이 어느정

도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공간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수민의 경우에는 여동생과 함께 거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온 후 그 집을 거점 공간으로 한 좀더 끈끈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제가 원룸에 살기도 했고 원룸에 두 명이 사니까 이미 친구를 초대하기가 [어렵죠] 너무 포화 상태니까. 그래도 오는 친구들이 있기는 했지만 거기는 뭔가 커다랗게 커뮤니티가 생기는 공간 자체가 아니었는데, 16 년을 여기로 이사 와서 공간이 넓어지면서 처음으로 집들이를 초대해 봤는데 여기 열 명이 잘 수 있더라구요. (중략)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집의 캐퍼시티(capacity)를 약간 알게 된 거죠. 아, 이 정도 모임이 될 수 있다, 한 열 명 정도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때부터 계속 뭔가 여러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집들이도 하고. 꾸준히 했던 행사가, 15 년부터 했던 행사가 명절 나기 행사 이런 걸 계속 했었거든요. (중략) 어쨌든 그 커뮤니티 망 안에서 시작이 된 건데, 긴밀하게 붙은 건 공간이 생기면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게 '장소가 만드는 관계망은 따로 있다'. 온라인 기반도 기반이지만 그것을 다른 식으로 연결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꼭 주거지가 아니더라도. <수민>

수민은 2016 년 경부터 원래 활동하던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티가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긴밀한 형태의 공동체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나서야 더 긴밀한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겨난 공동체에 어떤 이름을 붙일 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생활공동체'라는 명명을 생각해 냈다. 이들은 계간지 집필, 세미나, 강연, 토론회 참석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36].

[36] 이윤주,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걸 보여주려고 비혼공동체 만들었죠",

은주의 경우에도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거실 공간을 주변의 혼자 거주하는 동료들을 모으는 구심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 실제로 그렇게 [거점 공간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우리 또래, 이런 좀 같이 모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약사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서 혼자 사는 친구들, 지방에서 와서 혼자 사는 친구들을 L 구 쪽으로 다 모으자. 다 모아서 서로 챙겨주고 살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저희까지 한 여섯 명? (중략) 모여라 하면 또 모이고. [거실에서] 모일 수 있어요. 다같이. <은주>

수민, 은주의 경우에는 적절한 물리적 공간이 뒷받침되었을 경우에 느슨하건 촘촘하건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사를 통해 적당한 공간이 생기고 나서야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한 모임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경우이다. 반면 이미 모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번 적당한 공간을 찾는 일이 벅차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비혼 · 퀴어여성 함께/살기 모임 '반달'의 일원인 정은은 원래 거실 공간을 정치 ·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었으나 충분히 넓지 않아 그러지 못했으며, 외부에서 적절한 모임의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표했다.

>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싶었는데, '반달' 인원이 다 안들어와요. 열세 명이잖아요. 스탠딩 파티 해야돼요. 하하하 (중략)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을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그래도 그나마 S 구는 괜찮은데, H 구, E 구, W 구 이쪽은 진짜 그럴 만한, 그런 정치적으로 뭔가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공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매번 그래서 욕하면서 S 구까지 가요, 막.

한국일보, 2018.11.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71763738044

내가 왜 여기까지? 이러면서. 이쪽은 진짜, 청년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도모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정은>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집 안에 위치할 필요는 없지만, 쉽게,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도시공간에서, 원룸 이상의 집은 때로 그나마 편안히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럴 의도가 있었지만 공간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3. 함께살기와 '집 다운 집'

결혼을 통해 가족을 만들고 이사하는 것은 가장 널리 알려진 '집' 꾸리기 방법이다. 이러한 '집'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꾸려 나가는, '가족'과 '공간'의 집합체이다. 이 절에서는 이처럼 주로 결혼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집'의 각각의 요소들, 즉, 관계 맺음, 물리적 공간, 가사 노동 등의 요소들을 비혼여성들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꾸려 나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는 '방'같은 곳이 아니라 보다 '집 다운'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들의 주거 생활에서 어떤 점들을 새로이 발견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1) 일상적 교류

근대적 공-사 구분은 가족으로 이루어진 사적 영역과 일터인 공적 영역을 양분하며, 주거 공간은 1 가족 1 주거를 기준으로 분절되고 단절된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양분되고 적절한 전이 영역이 없이 구성된 도시주거환경에서, 특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양산된 원룸형 공간은 더더욱 고립적이고 단절적인 좁은 공간성을 가진다. 이는 개인들

을 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스럽고 새로운 관계 맺음을 상상하기도, 실천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원룸의 공간에서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끼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지만 룸메이트가 있는, 그리고 휴식의 공간과 분리되어 생산 활동이 가능하게 해준 거실이 있는 지금의 집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다(현정, 지원).

> 혼자 살 때는 되게 가기 싫은 데였어요. 집에 가면 너무 외롭고 집에 가면 딱 집에 왔을 때 안녕~하는 룸메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중략) 요즘은 가기 싫은 곳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중략) 집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안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정>
>
> [혼자 살면] 밖에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야만, 타인과 뭔가 이렇게, 되는데, 누군가랑 같이 살면 그냥 집에 들어와서 일상적인 소통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을 별로 만나는 편이 아니고, 제 성향상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저의 상황도 그렇고, 해서, 사람과 이렇게 많이 만나거나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거나, 소통이 이렇게 활발하게 있는 편이 아닌데, 집에 누가 있으면 그런 소통을, 일상적인 소통을 계속 하게 되고, 그게 저에게 자극도 주면서 되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되게.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을. 바로 그거, 정서적인 안정감. 해서, 밖에 나가서도, 어딜 가서도 뭔가 제가 안정되어 있는, 정서적으로, 뭔가 지지층이 있는 거 같은 기분이 가장 컸어요.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게,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되게 큰 지지가 되더라고요. <지원>

현정에게 집은 혼자 살 때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룸메와 함께 살고 있고, 모든 것이 한 방에 몰려 있지 않아 침실이 아닌 거실 공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현정에게 집은 더 이상 그 곳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안 좋은 신호가

아니"게 되었다. 지원의 경우, 혼자 살 때는 일부러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타인과 소통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원래 "사람을 별로 만나는 편"이 아니기에 그런 일상적 소통이 어려웠을 것이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집에서 일상적인 교류가 일어난다는 점이,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지지"가 되었다고 말한다. 후에 너무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셰어하우스에 피로감을 느껴 결국 "탈출"하게 되지만,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들과 함께 이사를 하는 것을 택한다.

2) 초대의 문턱이 낮은 공간

연구 참여자들이 함께살기를 실천하고 있는 집은 앞서 본 것처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과 일상적인 일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주거 공간으로 부르는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기도 했다. 은주의 경우에는 혼자 살 때는 집이 너무 사적인 곳이라 "누가 들어오기가 벽이 높"은 공간이라 느꼈지만, 지금은 보다 쉽게 다른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아지트"처럼 쓰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을 만족스러워했다.

> [이제는 집이] 좀 더 퍼블릭한 느낌. (중략) 혼자 산다면 완전 여기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돼서, 누가 들어오기가 벽이 높을텐데, (중략) 저는 이 공간을 약간 좀 퍼블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지트처럼. 같이 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같아요, 더더욱. <은주>

3) 안전 비용이 적은 공간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살기를 통해 혼자 살 때에 비해 훨씬 안전함을 느끼기도 했다. 성별화 된 안전 감각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상황에서 혼

자 사는 여성들에게 도시공간은 끝없이 안전비용을 요구한다. 안전비용은 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에 쏟게 되는 인지적 자원, 그리고 안전에 관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도시공간이 여성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혼 제도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불안을 겪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37]. 함께살기는 이러한 안전비용의 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짐을 덜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실천이기도 했다. 정은은 이러한 안전비용을 줄이고 싶었던 것도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길 원하게 된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 창문을 열고 자고 싶은데 이게 아무리 그 창이 있어도 그 방충망이 있어도, 그 불안한 거예요. 누가 들어오거나 환기같은 거 시키고 싶은데 창문 마음대로 열어두기가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서운 일 같은 거 있으면, 좀 약간 이제 집에 누가 구경을 온다거나 할 때 남자, 남자 분 혼자 들어오거나 이럴 때 되게 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제일 크고. <정은>

---

[37]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안전한 집'과 '높은 월세'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서울 중심가와 가깝고 인적이 많은 주거지일수록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현실 때문이다.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참가자는 "월세가 높아서 거주지를 아예 지방으로 옮겼는데,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다 보니 만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했다.
여성들의 안전 비용은 집을 구한 뒤에도 계속 발생한다. 주거 침입을 막기 위해 도어록이나 창문방범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 연구위원은 "비혼여성들은 '내가 가족제도에 들어가 있지 않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나'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된다"며 "안전비용은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안전한 집 찾자니 높은 월세 '불안 삼중고'", 경향신문, 2019.1.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42137005&code=940100&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csidx8fa97a23caba49699f81d8ea2af7522,

> 최근에 제 룸메가요, 문을 열고 집을 나간 거예요. (중략) 활짝 열려잇는 거에요. 집에 왔는데, 퇴근하고 왔는데, 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중략) 만약에 그런 일을 나 혼자 살 때 겪었다, 그러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 거예요. 경찰이 와서 다 확인을 해 주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불안을 했을 거 같은데, 확실히 현정이가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물론 현정이가 엄청 힘이 세거나 그렇진 않지만 <정은>

혼자 살 때 안전 문제로 걱정이 많았던 정은은, 룸메이트인 현정과 함께 살고부터 훨씬 안전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룸메이트가 실수로 문을 닫지 않고 나가, 돌아왔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어 놀랐던 적도 있지만, 함께 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안심이 됐다고 말한다.

4) 재생산 노동의 효율

혼자 살 때에 비해 함께 살 때 발생하는 또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활비와 가사 노동 시간의 절감을 이야기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정은은 재생산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이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또다른 이유였음을 말했다. 실제로 정은은 훨씬 많은 노동력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소현의 경우에도 혼자 살 때에 비해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나은 컨디션의 공간에서 쉴 수 있어 좋다는 점을 언급한다.

> 생활비랑 가사 노동을 좀 줄이고 싶었어요. (중략) 혼자 살 때는 내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다 이걸 내가 혼자 케어를 해야 되는데, 둘이 살면 일은 1.5 배 정도 늘지만 어쨌건 이거를 둘이서 나눠 하니까 혼자 살 때보다 훨씬 그, 재생산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중략) 줄었거든요. <정은>

> 원룸에서는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청소를] 하지 않는데, 없으니까 저밖에, 그러니까 그냥, 그냥 쉬는데, 똑같이, 거기서도 쉬고 모두들에서도 쉬는데 이제 먼지가 폴폴 날리는 방에서 쉬는가 하면 여기서는 좀 덜 그런 거, 정말 객관적인 컨디션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좀, 제가 그냥 막, 그렇게 제 자신을 돌보는 거에 능숙하지 않은 편이라서 쉴 때는 한 삼일 쉬면 삼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 있기도 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챙겨주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고, 또 그가 그럴 때 제가 챙겨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더 풍요로워졌어요. 같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소현>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말하는 소현은, 혼자 살 때는 힘들고 지칠 때 "먼지가 폴폴 날리는 방에서" 쉬어야 했지만, 구성원들과 가사 일을 분담하게 되면서 자신이 당장 가사 일을 하는 차례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컨디션의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사 노동 뿐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 부족할 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 줄 수 있고, 또 자신도 다른 구성원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살기를 "풍요로"운 것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제 3 절 함께살기의 어려움

한국 사회에서 비혼여성들의 이 같은 대안적 함께살기는 종종 문턱에 부딪힌다. 어려움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난다.

1. 설명하기 어려운 함께살기

규범적 시공간성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거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곧 끊임없는 변명을 요구받는 일이다. 비혼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는 것뿐 아니라, 유일하게 용인된 결혼이라는 규범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일탈적이고 재현되지 않는, 해석 불가능한 영역으로 배치된다. 이런 배경에서 은주는 두 명의 다른 여성들과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며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지만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 각 집에서는, 너무 이 셋이 재미있으니까 결혼을 안 한다, 할 수 있는 애들인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점점. (중략) 그거를 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부모님은 너무, 부모님 입장은 너무 이해가 가요. 내 자녀가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살거나, 여자끼리 사는 건, 사실 괄시당하기 쉬운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하나 씌워지잖아요. 그걸 부모님이 바꿔 줄 순 없는 입장에서 어쨌거나 그냥, 소위, 소위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살았으면 하는 부모님 마음 너무 잘 알겠고, 그래서 다른 명분을 제공해드리는 편이 더 낫겠다, 그냥, 그 명분 중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잘 먹히는 건,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봤을 땐 그 거예요. 또는 뭐 자기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 정도면은 사람들이 '그치 요즘은. 그래~ 능력 있는 사람들은 혼자 살더라.' 정도로 넘어가요. (중략) 그 사람들한테는 혼자 사는 거야. 결혼을 한다, 안 한다만 있지, 그렇지 않아요? '동료들하고 같이 살아' 이 말은, 그 어르신들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결국 혼자 사는 거잖아, 결혼 안 한 거는, 그러니까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세계 밖에 없고, 아 그래, 같이 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그들은 하지 않죠. 어쨌건 혼자 사는 거지. <은주>

은주의 집 꾸리기는 그것이 아무리 안정적이더라도 “혼자 사는”것, 따라서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관념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혼자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축되는 상징 체계 안에서 ‘혼자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는 오직 혼인 여부로만 구축되며 결혼만이 유일하게 이해 받을 수 있는 ‘혼자 아닌’ 집 꾸리기 방식이 된다. 이 때 조금이나마 부모 세대의 주변인들에게 이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제력이 좋으며 결혼 대신 일을 택한 독신 여성’이라는 환상, 즉, ‘골드미스’ 담론을 내세워 회유하는 것이라 은주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함께살기에 대한 몰이해는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 [집 구할 때] 젊은 여자들 셋이서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사는 경우는 잘 못 봤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뭐 요즘 뭐 결혼을 하니 안 하니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최대한 개인정보를, ‘누구 같이 살 거에요’ 그러면 그냥 뭐 ‘사람들 같이 살 거에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이 길어지니까, ‘무슨 일 하시길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왜 결혼 안 하시고’ 부터 해서, ‘결혼 안 하는 게 낫다’는 둥, 그때부터 계속 얘기가 펼쳐지니까. 그냥 얘기 안 했어요. <은주>

은주는 부동산을 통해 방을 알아볼 때에도 결혼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들(“무슨 일 하시길래”, “왜 결혼 안 하시고”)을 마주한다. 반복되는 물음들을 접한 은주는 그 이후 방을 구할 때 최대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편을 선택했다.

한편, 정은의 경우에는 자신이 아직 “결혼 적령기 애들”이 아니기에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방을 구하면서 불편한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정은과 현정의 함께살기는 '청년'이라는 생애주기, 즉 결혼하기 전의 여성들이 행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되기에 비교적 안전하게 주류 담론 속으로 포섭된다.

> 아직 20 대다 보니까 뭔가 그냥 학생들, 대학원까지 다니면 좀 학생이 기간이 길어지나요, 요즘에는. 그래 가지고 막 그렇게 결혼 적령기 애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나보다, 이런 느낌의 시선이었던 거 같아요. 그치. 결혼 안하고 여자 둘이 같이 살아? 이거 보다는 음~ 결혼 하기 전에 친구랑 같이 살 수도 있지~ 이런 느낌으로. <정은>

규범적 시공간성은 상징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도 함께 작동한다. 소현은 정책 속에서 비가시화된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함께살기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 자꾸 청년한테 지원해주는 집이나 뭐, 우리가 그 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집은 원룸 이거나, 투룸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혹은, 또 최근에 했던 얘기는, 신혼부부야 아니야, 아니면 혼자 살겠네 이렇게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 내야만 1 인가구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호적에 올려야만 신혼 부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거나, 관계를 계속 그런 식으로 재단해 버리는, 싹둑 싹둑 잘라 버리는… <소현>

소현은 이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관계를 끊어 내거나 혹은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느끼고 있었다. 결국 결혼 제도 밖의 관계에 대한 부족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주거 지원 제도는 다종다양한 관계들을 납작하고 평면적으로 해석하고 만다.

2. 적절한 주거 공간 구하기의 어려움

도시조직과 주거공간이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획될 때, 젠더와 생애과정의 비규범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비혼여성들에 있어 적합한 주거공간 구하기란 그 자체로 도전적인 것이 된다. 근대적 핵가족 생활을 표준으로 공급되는 주거 공간은 다른 형태의 친밀성 양식을 가진 함께살기를 위한 공간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합한 집을 구하는 일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며칠을 돌아다녀도 일단 아파트가 아니고서야 투룸 이상의 빌라 방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중략) [원하는] 조건을 내면 터무니없이 비싼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 너무 방이 작거나 거실이 너무 작거나.. 그래서 따로 살아야 하나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보라>
>
> 투룸 알아볼 때도 방 크기가 같이 안 나오고, 거의 신혼부부 중심으로 나와서, 2 인이 거주한다 하면 다 신혼부부인 줄 알아가지고. 거실이 이렇게 있고 큰 방 침실로 쓸 거, 옷 방으로 쓸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가 한 명이 월세를 적게 낸다 그래도 도저히 쓸 수 있는 방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지원>
>
> 목표가 그래서 방 사이즈 비슷한 집 구하기 였어요. 햇빛도, 둘 다 햇빛은 드는데 이제 한 쪽은 밤에 들고 이제 한 쪽은 낮에, 해 뜰 때 든다는 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은>

세 명이서 함께 살 곳을 구하러 다녀야 했던 보라는 방을 구하기가 유난히 어려워 함께 사는 걸 포기해야 할 지 고민하던 찰나 마지막으로 본 집이 마침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어서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원은 둘이 살기 위해 방을 보러 다닐 때의 '2 인이 거주한다 하면 다 신혼부부인 줄' 알아서 힘들었으며, 방이 여러 개 있다면 보통

거실, 부부 공간,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되기 때문에 월세를 다르게 내더라도 도저히 주거 구조와의 타협이 어려웠음을 토로했다.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 기획은 이처럼 종종 '방 사이즈 비슷한 집 구하기'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되기도 한다. 부부 공간 중심의 실 배치는 채광이 어느 방에 집중 되는지의 여부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반면 다수의 전문직, 정규직의 구성원들로만 이루어져 보다 경제적 상황이 나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한다.

>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편이었던 것 같은 게, 이번에는 자본의 제약이 좀 덜 했잖아요. 그 전에는 힘들었던 거 같아요. (중략) 지금은 완전 만족스러운데 그러기까지 전문직 고소득 여성 셋이 7~8 년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애를 키우면서, 애는 돈을 못 벌고 쓰기만 하잖아요. 애를 키우면서 둘이서 맞벌이를 한다고 치더라도 애한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셋이 다 돈을 번다는 건 되게 대단한 거구나. 셋이 그렇게 벌어 대니까 돈이 쌓이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약간 이렇게 오래 살아도 되겠다. <은주>

은주는 이처럼 "전문직 고소득 여성 셋이" 돈을 버는 환경이 오히려 "돈을 못 벌고 쓰기만 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경우보다 더 수월했을 것이라 여겼다. 이처럼 경제 계급과 젠더, 그리고 비혼이라는 비규범성은 서로 교차하며 얽혀 있다.

3. 생활 양식과 맞지 않는 공간과 협상하기

1) 가족의 공간

아파트 평면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상품성이 높았던 평면인 '거실중심형' 주택이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나아왔다(서원기,

2010). 이러한 거실중심형 평면은 거실을 중심으로 개방되는 여러 개의 방들을 가지는데, 방들은 주로 '안방'으로 칭해지는 하나의 마스터룸과 다른 한두 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보편적 평면형은 아파트 뿐만이 아닌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안방은 주로 가장 큰 크기를 갖고, 위치상으로도 가장 주요한 지위, 햇빛이 가장 잘 들고 가장 면적도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보편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의 분배는 종종 쉽지만은 않은 문제가 된다.

> 도면을 놓고 약간의 신경전은 물론 있죠, 신경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했죠. 가장 좋아하는, 가장 선호하는 방이 어디야, 그러면은 다 똑같은 거 같지만 또 좀 다르긴 하구요. 근데 겹칠 경우에는, 면 네가 이 방을 쓰면 대신에 내가 집안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집안 일을 안 하고 빛이 안 드는 데서 살고 있어요. 집안일을 하지 않아요, 바빠서. 그냥 도와주겠다,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 메인으로 그러면 큰 방 쓰는 친구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그래도 가끔 억울해하고. 그런 합의 구조가 좀 잘 발달돼 있죠. 같이 살고 하니까 그리고 뭐 붉히고 싸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얘기하는. <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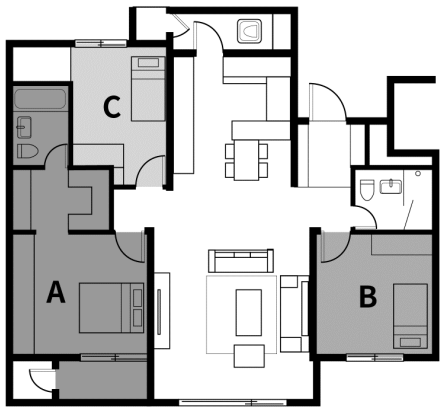


그림 15 아파트 평면도 예시 (자료: 아파트 분양 홍보용 평면을 재구성)

소현의 경우에는 기성품처럼 찍혀 나오는, '가족을 상상하고 만드는 집'에 불평하며, 집 '안방'이 집의 중심적이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서 오는 직접적인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 집이 기성품처럼 뚱뚱뚱 찍혀서 나오니까 뭐, 이런 저희같이 공동주거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 아닌 거예요, 애시당초에. 가족을 상상하고 만드는 집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내가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중략) 창이 안방에 더 좋게 설계가 되니까, 가장 작은 방은 또 빛이 잘 안 들거나 바로 옆에 건물이 또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싫었었는데 근데 그건 또 향이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리고 면적이나, 그리고 저희가 가장 불편해 하는 게 보일러 컨트롤러가 큰 방에 있기 때문에 작은 방에서도 해야 되고, 조심스럽고, 큰 방은 항상 문을 열어 놔야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소현>

소현은 부부 중심의 가족 생활을 전제로 한 투룸, 쓰리룸의 공간은 '안방'에 보일러 조절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아 불편했고, 햇빛이 안방을 중심으로 드는 것이 싫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여곡절 끝에 살 만한 공간을 구하기만 한다면,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비교적 수월하게 공간을 분배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가격을 내더라도 원래 살던 원룸보다 훨씬 질이 좋은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선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발달된 협상과 합의 구조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서로의 방을 정할 때, 크게 이견이 없었던 이유는 직장 생활하는 동거인 B 가 바로 씻고 아침에 출근하기 편하도록 화장실 딸린 안방을 가지면 좋겠다고 동거인 A 와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거인 A 의 방도 화장실만 없을 뿐 전망이나 구조가 예뻐서 동거인 A 도 방을 마음에 들어 했고요. <보라>

> 월세는 저희는 일단 똑같이 나눴는데, 일단 가장 큰 방은, 그 공이 가장 큰 친구에게. (중략) 그 다음에 비슷비슷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큰 작은 방이 있었는데요, (중략) 그 친구가, 아 자기는 원래 가장 작은 방은 써야지 생각을 했었다, 하면서 양보를 해서, (중략) 자기가 이런 공용 공간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겠다, 짐도 많이 내놓고 더, 더 많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지원>
>
> 실제로 지금은 좀 그나마 비슷한 집으로 구했는데, 제 방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이걸 평방미터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 월세를 제가 좀 더 부담하고 있어요. <정은> 그래서 이 친구가 공용 공간에 빨래 같은 걸, 빨래 건조대를 놓을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빨래 건조대 같은 걸 자기 방에 넣어 놓거나. <현정>

보라는 '평등'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에 맞게 양보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라 여겼으며, 동거인 B 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해 모두 이견이 없었고 각자의 공간에 대해 만족스러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물론 치열한 '조건에 맞는 방 구하기'의 이후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임을 이들도 지각하고 있었다. 지원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전에 살던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공이 가장 큰 친구'가 가장 큰 방을 차지하는 데에 이견이 없었으며,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는 친구는 공용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현정과 정은의 경우에는 우여곡절 끝에 구한 방에서 그나마 비슷한 방이지만 월세를 정은이 더 많이 부담하고, 공용 공간에 놓지 못하는 빨래 건조대를 자신의 방에 두는 식으로 조정하고 있었다.

반면, 친밀성의 느슨하기에 비해 주거 공간이 주는 결부감이 구성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지점도 있었다. 청년주거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소현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 확실히 관계가 너무, 너무 밀접할 때, 너무 가까울 때 오는 피로도가 [있다]. (중략) 같이 안 살았으면 안 싸울 일인데 같이 사니까 싸운다. 같이 안 살고 그냥 친구일 때는 누가 설거지를 하든 말들, 너 집에서 설거지 안 한다며? 절교하자,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면만 보여주면 되니까, 사람이 입체적인 모습들 중에 내가 보여 주고 싶은 면만 보여 주면 되니까, 근데 같이 살게 된다는 건 사실 입체적인 면의 모든 면들을 다 보게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면은 발견한다는 거고, 숨기고 싶은 면을 들킨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안 겪어도 되는 갈등을 만나, 굳이 말하자면 안 겪어도 될 것 같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좀 불충분한 거 같긴 하지만, (중략) 나는 나만의 플랜이 있어서 나간다는 조합원들도 있지만 갈등 때문에 나가는 조합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 되게 고민은 계속 많아지는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소현>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전에 형성되었던 주거 공동체들이 와해되고 드물게 남아서 지속되고 있다는 걸 전해들은 소현은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소현이 보았을 때, 주거 공동체들이 흩어지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너무 가까웠을 때 피로감을 유발하기 때문이었다. 함께 살지 않았으면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갈등들이지만, 함께 살면서 입체적인 면의 모든 면들을 다 보게 되면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면들을 낱낱이 서로에게 보이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피로도가 쌓여 결국 다른 방식의 함께살기, 혹은 따로 살기를 모색하게 되는 이유라 추측했다.

2) '

1 인', '청년', '공동체' 임대 주택

수민과 영석, 주영은 공공이 매입 · 임대하는 방식의 공동체 주택에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 인을 기준으로 각각 진행되는 입주자 모집과 심사 과정,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 '공동체'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는 디자인 등에 있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해 활발히 활동을 펼칠 생각이었다.

> 청년 동은 거실 공간이 커뮤니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소파를 기댈 벽면 같은 게 없어요 전혀. (중략) 가운데 앉아 있기가 되게 뻘쭘한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중략) 공간도 공간인데 저희가 지금 엄청 까다로운 상황인 거죠. 왜냐면 가족들은 한 사람이 제일 신용 좋은 사람이 대출받아서 그냥 다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 명씩 다 대출심사 받아야 되고 한 명씩 다 계약금 마련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
> (중략) 명목상에는 '청년들이 너무 1 인가구로 분해되어 있으니 너네도 공동체에 기여라는 것을 좀 해라', 라고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되어 있고, 되게 웃기고, (중략) 그러니까 그냥 명목상 10 동에 커뮤니티실 하나. 뭐 '그 정도면 대충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래? 그럼 청년공동체?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에 데리고 와서 소모임을 만들라고 한번 해 볼까?' 그래서 뭐 '영화모임 모이세요.' 요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임들이 개설이 되어 있긴 한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
> (중략) 방 세 개 있는데 한 명 들어가 있는 방이 딩딩딩딩, 이렇게 일곱 개,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아무도 룸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에요. 서로. 그래서 방 세 개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들어

> 간 거야. 한 호실씩, 이렇게. (중략) 공동체가 이미 있는 사람들은 세 명씩 묶어서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인 가구씩 심사를 한 다음에 '방을 고르세요.' (중략)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사를 저쪽에서 떨어져서. (중략) 혼자서 가서 방을 쓸 순 없으니까. <수민>

이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공동체 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국가유공자를 동으로 구분해 한 단지에서 모여살도록 설계된 곳이었다. 단지에는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신혼부부 동에 있는 도서관 하나와 국가유공자 동 아래 있는 전체 커뮤니티 공간 하나가 전부였다. 이 곳에서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 질 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운 계획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3 인이 함께 사는 호실에는, 원래부터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입주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청년'이면 '1 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방식은, 이들처럼 이미 있는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은 더더욱 없다. 문제는 3 인 1 실인 호실에서 임의의 입주자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다. 수민은 이러한 3 인 1 실의 호실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 결국 한 방만 입주자가 들어와 두 방은 남은 채로 살다 나가는 경우가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결혼하지 않은, 혹은 혈연 관계가 아닌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이 절대적인 금기인 것도 함께살기에 대한 상상력의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이라 지적했다.

4. 주거비 지원 받기의 어려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김하나, 황선우, 2019)」에서 저자는 “자식 결혼시킨다고 생각하라며”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말한다. 소득 대비 주거 비율(PIR: Price Income Ratio)가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 시 부모 세대로부터 주거 지원을 비교적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비혼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놓여 있는 비혼여성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나 규범적 생애과정에서의 ‘결혼 적령기’라는 것을 완전히 지나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 ‘부모님이 보기에’ 결혼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 가족한테 돈을 못 받는 게 진짜.... 절대 안 해줘요, 이게, 저희 세대가, 밀레니얼들이, 이전 베이비 부머보다 돈을 적게 버는 첫 번째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 의지하지 않고 집을 구하는 거는 엄청 막 머리에 힘줘, 능력주의, 이런 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항상 고민이긴 한데 <정은>

때로는 가족에게 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아서 함께 살다가도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 원래 2년 계약이고, 저희도 2년은 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한 1년 좀 안 됐을 때 그 때쯤에, 그,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친구가 부모님과 계속 갈등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속, 그 지원을 해 줬던 명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명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리고 그걸, 그런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해서, 너는 그냥, 부모님 댁 본가로 그냥 와라, (중략) 그 친구가 너무 미안 했나 봐요, (중략) 서울에 독립을 해서 왔는데, 계속 집 같은 그런 집이 없고 임시로 계속 거쳐 가는, 계속 이런 곳에 있는 게 다들 너무 지쳐 가지고, 서울에 정착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컸거든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집,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자립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런 포부가

> 있었는데, 자기가 또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해야 된다는 게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지원>

지원은 '방 같은' 공간들을 전전하는 게 지쳐 두 동거인들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보자는 포부를 안고 함께살기 시작했지만, 보증금을 지원해 주셨던 동거인의 부모님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재정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기도, 공공의 적절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인터뷰이들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이 비교적 쉬운 점을 이용해 "장난스럽지만" "진지하게" 결혼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했다고 말한다.

> 장난스럽게, 그렇지만 진지하게, 신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거인A와 제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혹 더 필요하면 동거인B와 제가 혼인신고를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눠요. 정말 필요하다면 제도를 그런 식으로라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라>

이들은 전통적 친밀 관계의 규범 밖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결혼 제도 안에 안전하게 포섭될 수 없고, 이들 자신도 결혼이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결혼 제도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길 원하진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형태의 주거 공간을 획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결혼은 주거비 획득을 위해 이용을 고려해보게 되는, 그러나 정말로 이용하고 싶은 것은 아닌 최후의 보루처럼 언급되기도 했다.

제 4 장 '집'의 의미 재구성하기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 원리가 가족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을 때, 다른 방식의 주거하기는 결국 구성원들 간의 조율 과정에서 기존의 가족 역할, 집(house)을 '집(home)'일 수 있게 했던 암묵적인 역할과 공간의 분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결국 집의 감각을 다른 방식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주거 공간 내에서 혈연 가족의 성별화된 역할 분담으로 나뉘어 만들어나가는 총체적, 집합적 의미로서의 '집'의 의미를 해체하고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일이 된다. 이는 기존의 주거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주거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아예 새롭게 상상해 그리는 일이 되기도 한다. 달라진 친밀성의 구조가 공간의 구조를 재편할 필요성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제 1 절 함께살기의 다양성과 재조정

1. 다양한 거리와 구조의 친밀성

비혼여성들은 함께살기를 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관계들을 때로는 '가족'이라 부르기도, 다른 방식의 '공동체'라 이름 붙이기도 하고, 이름은 없지만 전략적으로 모이고 흩어질 수 있는 협력적 주거 공동체와 같은 관계를 이루기도 했다.

1) 또 다른 가족, 혹은 가족은 아닌 어떤 것

결혼하지 않은 여성 둘이 함께 살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담아낸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김하나, 황선우, 2019)」에서는 개인들이 결합해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는 형태의 가구원인 자신들을 '분자 가족'이라고 칭한다. 분자 가족이라는 표현은 원자들의 화학적 결합물인 분자 개념에 착안해, 개개인들을 원자로, 개인들이 만나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분자로 빗대어 나타낸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함께 살기의 가구 구성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 저희는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한번 그런 얘기 해 봤었는데 그냥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인데 이제 가업도 있는 거지, [약국을] 가업으로 있는 거지. 우리의, 우리 가족의 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가업이 있는 거죠. 환자들에게 잘하자 이런거. <은주>
>
> 함께 산지 5 개월이 넘어가는데, 정말 식구처럼 느껴져요. (중략) 함께 밥 해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해요. 각자 역할도 정했는데, 저는 인테리어와 대외협력 팀장, 동거인 A 는 회계 팀장, 동거인 B 는 노동 팀장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도 하고, (중략) 이번 주에 지출이 많으면 다음 주에는 지출을 줄이는 계획도 세우고, 반려 동물들 의료비용도 미리 저축하고.. 그런 점들이 저에게도 안정감을 줘요. 정말 가족이 된 느낌. 둘러앉아서 대화하고, 편히 쉬는 시간이 무척 좋아요. <보라>

은주가 구성원들을 처음부터 가족처럼 느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동업을 하기 가장 쉽고 편한 형태로 공동 주거를 기획했던 이들은 함께 살며 점차 이런 생활에 만족을 느끼게 되고, 경제적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점차 더 큰 주거 공간으로 옮겨가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8 여년 간을 함께 하며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라의 경우

에는 당시 5 개월째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서로를 '식구'처럼, 혹은 '가족이 된 느낌'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각자의 역할도 분배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지출 계획도 세우는 이들은 함께 꾸려나가는 생활이 안정감을 준다고 말한다.

한편 정은의 경우 서로를 가족이라고 여기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전 누구랑도 그렇게 [질척질척하고 찐득찐득한 관계가] 되고 싶진 않아요. (중략) 언젠가 그런 정도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묶여 있고 서로 밖에 없는 그런 관계 형태를 지향하진 않아요. [친밀한 관계가 생기더라도]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싶진 않아요. (중략) 애인이 생기면 아마 애인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지 않을까요. 저라면. <정은>

현정과 정은에게 있어 '가족'이라는 것은 '질척질척', '찐득찐득'한 어떤 것이었다. 정은은 누구와도 그런 관계를 새로이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만약 그 정도로 가까운 인연이 생기더라도, 배타적이고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는,'묶여'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애인이 생기더라도, 정은은 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은 규범적 친밀성 각본과 거리 두기를 하며 개별적인 다양한 방식의 친밀성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었다.

2) 대안적 친밀공동체

연애/결혼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인대 개인의 친밀 관계보다 넓은 우정의 네트워크로서의 친밀공동체는 그 자체로 대안적 관계맺기가 되고 있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함께살기를 통해 다양한 거리와 규모의 친밀공동체들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수민, 주영, 성준은 하나의 주거 공간을 구심점으로 형성된 긴

밀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 ‘생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부르는 이들은, 생활공동체는 낭만적 이성애, 그리고 결혼 제도의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친밀관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그러면서도 정치적 활동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긴밀한 공동체로 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생활공동체는 단순히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주거 공동체’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대답했다.

>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그, 만들려면, 그 이름을 붙이려면 뭐라고 붙여야 될까, 이런 식의 공동체를 우리가 구상하고 있고, 공덕동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리고 싶은 소식지를 만들고 싶고, 그런 식의 관계망을 포괄한 이름을 지어서 패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했더니, [주거 공동체라고 하기엔] 주거지를 다 같이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문화모임이라고 하긴 또 이건 너무 느슨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찾다가 '생활공동체' 라는 이름을 찾은 거 거든요. 그랬었고, 그 생활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은 10 월달에 창립총회인 거죠. 그 때 열 명으로그리고 최근에 2019 년 11 월에 한 명이 새로 들어와서 지금은 열 명 입니다. 그러면 그 멤버들이 적을 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아직 안 돼 있어요. 할 지 말 지 고민. (중략) 이 정도면 주거공동체나 경제 아닌 이름을 찾다보니 생활공동체 라는 이름을 찾은 건데 <수민>

3) 전략적 주거 공동체

원래부터 있었던 친밀관계, 혹은 친밀공동체에 기반한 함께살기가 아니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민영).

> 솔직히 저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출을 땡겨와서 서로 부담을 줄이면 좋잖아요. 서로 뭔가 잘 맞는다면. 어 우리 막 같이 살면 재밌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딱, 라이프 스타일 딱 맞고, 돈 딱 되는. 그거를 정말 원하거든요. 이거를, 제 주변에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친구가 없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친구들 밖에 없어요. (중략) 비혼인이 되고 나서 부터 찾게 되는 친구들한테 막무가내로 같이 살래? 같이 살자, 이럴 순 없잖아요. 알게 된지 막 1 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린데, 사람들이 막, 소개팅 어플 알아요? 소개팅 어플에 자기 이렇게 막, 호감도 막 적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어플 하나 생겨서, 소개팅 이런게 아니라, 분명 그것도 악용 되겠지만 그냥 제 상상으로는 진짜 딱, 나랑 아침 시간 점심시간 안 맞고, 맞아도 예민하지 않고, 어디 쪽에서 회사를 다니고 어디쪽 거주를 희망하고, 뭐 이런거 이런거 좋아하고, 이런거 이런거 싫어하고, 딱 맞는 사람 구하면 진짜 같이 살고 싶거든요. <민영>

결혼하지 않고 생애를 계획하며 자력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획득하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비혼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민영은 함께 “대출을 땡겨와서” 주거 공간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이고 협력적인 주거 공동체에 대해 상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주거 공간을 공유하기 위해 반드시 끈끈하고 친한 관계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또다른 가족’, ‘분자가족’, ‘생활공동체’, ‘주거공동체’ 등으로 다양한 명명을 사용해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지칭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관계는 비록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가 겹치기도 하고,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들의 다양한 관계맺음 방식은, 연구참여자들의 함께살기가 어떤 하나의 형태에 고착되는 상을 보여준다기 보다는 가족제도를 벗어난 개인들

이 어떻게 ‘혼자’ 아닌 ‘합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함께살기는 가족으로 상상되는, 보다 사적이고 긴밀한 형태를 띨 수도 있고, 노동의 분담과 나은 주거공간의 영위를 위한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전략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도 관계는 얼마든지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수 있기도 한 것이었다. 또한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맺음은 주거공간 내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인관관계들로 확장되어 더 넓은 공동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집’이 주로 가족이라는 내밀한 관계와 접착되어 이해되는 것에 비해 연구참여자들은 ‘집’과 그에 담기는 관계들에 대한 유연하고 확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2. ‘집’의 재조정

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거주공간의 특성에 따라 ‘집’에 대한 감각은 주체들마다 동질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 때 가구 구성원들의 관계과 물리적 공간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때, 공간적, 관계적으로 재조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지원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에 살며 정서적 만족을 처음에는 느꼈지만 결국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부딪히게 되는 것에 높은 피로감을 느껴 그 곳에서 “탈출”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이어 나가고 싶어,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들과 함께 집을 얻어 살기를 선택했었다. 지원은 둘이 살 때보다 셋이, 그리고 비록 개인 공간이 없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여럿이 있을 때가 더 각자에게 쓰이는 신경이 적어서 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사를 가고 나서] 개인 공간은, 그 같이 사는 친구도 그렇고 저한테도 개인 공간은 더 넓어졌거든요. (중략) 그 점이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중략) 공용공간을 쓰는 게 어려운 일 같아요. 저희 공용공간이, 거실이 넓었었는데도,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공용 공간을 같이 식사할 때 외에는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그냥 같이 모여서 식사하거나 얘기하거나 술 마시거나 이럴 때 빼고는, 근데 그것도 점점 드물어지고, 횟수가. 각자의 생활이, 더 이렇게 아무래도, 생활이 더 좀 정착, 안정될수록, 각자의 공간이나 각자의 시간이 더 커지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중략) 집에서, 되게 좀 조심하게, 조심하는 그런게 있어요.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같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다른 그 구성원을 보면, 구성원을 마주치는 게 되게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시간에 계속 그렇게 빠져 있다가 갑자기 타인의 보는 게 뭔가 좀 낯설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마주침이. <지원>

이처럼 지원은 각자의 생활이 더 안정적이 될수록, 개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함께살기 위해 나왔던 집이지만 점점 '함께'의 의미는 축소된 것이다. 지원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혼자 사는 곳으로 이사해 당분간은 혼자 살아보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원은 앞으로 주거 공간을 그릴 때에도 완전히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진 않았다. 거실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함께살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원은, 아직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함께살기의 방식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소현의 경우에는 '집'의 구성원들이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 주거에서 살고 있었으나 얼마 후 와해되는 경험을 했다.

> 저희 모였을 때 생활비 가지고 뭐, 뭘 먹고 뭘 살 지, 어떤 샴푸를 쓰고 어떤 세제를 쓸 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과정들이 너무 즐거웠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요.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랬어요. 매달 매달 이제 집 회의 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같이 살면서 막, 뭐든 그냥 이야기들이다 재미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채식, 비건 실천을 하게 된 계기들이 다 다른 거예요,(중략) 단순히 비비페라고 모을 수가 없었다, 조금, 어, 그럴 수가 없었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웰빙을 하고 싶어서 비건을 하는 거구나, 아 이사람은? 네, 이런 식으로 좀, (중략) 결이 확,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지점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더, 그때부터는 더 많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나의 신념에 가까운 것일 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합의하기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많이 어려워[지고] <소현>

처음에는 비건, 비혼, 페미니스트로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재미있었던’ 소현은, 시간이 지나며 더 세세한 것들에 대해 논하고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지향점의 다른 결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이들끼리 한 공간에 사는 것이, 오히려 ‘합의하기 더 어려워지는’ 지점이 많아 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소현은 이 공동체 주거에서 나오고 난 뒤, 결들을 달리하는 신념으로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안좋을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 비슷한 성격의 공간을 만들려고 시도하지는 않고 있었다.

제 2 절 가족 공간과 실 기능의 재해석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에 근거한 주거 공간의 물리적 구성은 그 구성 자체로 '규범적 집'이 지향하는 바를, 즉 단란한 가족 생활과 성별 분업, 이성애적 친밀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 공간을 다르게 해석하고 점유하는 과정을 통해 성별화 되고 한정적인 친밀성의 형태가 자리잡고 있던 '집'을 다르게 운용하게 된다.

1. 안방의 정치학

"안방은 안채의 중심으로서 가장 폐쇄적인 주공간(住空間)이며, 주택의 제일 안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외간남자의 출입이 금지되며 남자로서는 다만 남편과 그의 직계비속만이 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주부의 실내 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안일 중 안살림을 모두 관리하는 생활의 중추가 되는 공간이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택 근대화 이전 양반 주택 구조에서 안방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의 공간으로서, 침실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었다. 주거 공간이 근대화되면서 '안방', '부부침실', '마스터룸'이라는 이름 등으로 불리게 되는 이 공간은 점점 본래의 기능이 사라지고 사적이고 내밀한 이성애적 친밀성을 내포하는 부부침실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안방에서 일어나던 많은 일은 이제 LDK 라고 하는 거실, 주방, 식당이 대신하게 되거나 집 밖으로 활동 공간이 옮겨갔다. 성애적이지 않은 관계의, 동등한 지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안방 공간은 그 너비와 상징성으로 인해 협상의 중심 공간이 된다.

도면을 놓고 약간의 신경전은 물론 있죠, 신경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했죠. 가장 좋아하는, 가장 선호하는 방이 어디야, 그러면은 다 똑같은 거 같지만 또 좀 다르긴 하구요. 근데 겹칠 경우에는, 면 네가 이 방을 쓰면 대신에 내가 집안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집안 일을 안 하고 빛이 안 드는 데서 살고 있어요. 집안일을 하지 않아요, 바빠서. 그냥 도와주겠다,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 메인으로 그러면 큰 방 쓰는 친구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그래도 가끔 억울해하고. 그런 합의 구조가 좀 잘 발달돼 있죠. 같이 살고 하니까 그리고 뭐 붉히고 싸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얘기하는. <은주>

그리고, 막내가 그리고, 이 집 소유자가 아니고 이제 전세로 들어와 있는 격이라, 이 친구 부모님이 봤을때 우리 '우리 딸이 여기서 약간 괄시받고 있다' 그런 생각 들면 안 되기 때문에 큰방으로 주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부모님 어떻게 보느냐도 되게 중요하니까. 너 그러지 말고 나와, 내가 집 얻어 줄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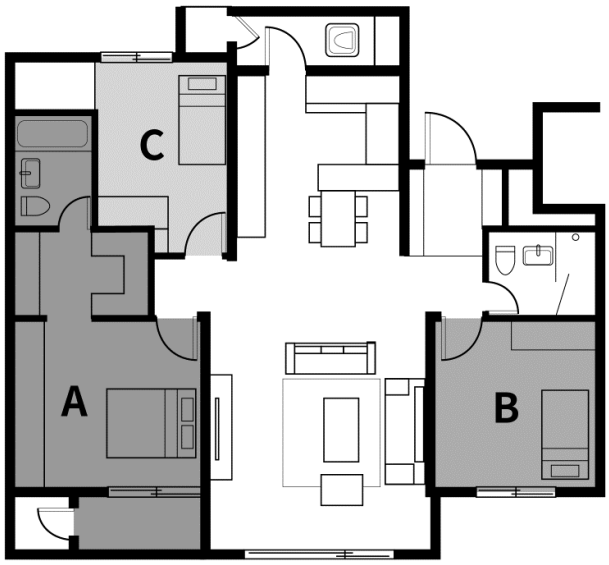


그림 16 아파트 평면 예시 (자료: 아파트 분양 홍보용 평면을 재구성)

A 로 표시된 공간은 흔히 '안방'으로 불리는 마스터 룸이며, 드레스룸과 욕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을 점유하게 될 경우 드레스룸과 욕실, 발코니를 모두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다른 방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넓다. 은주네의 경우 이 공간을 한 명이 사용하는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다른 동거인들은 보조자의 역할을 하기로 협상했다. 가사 노동 시간을 공간 자원을 분배하는 협상의 요소로 사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기여도가 낮았던 구성원의 부모님이 보기에, 이 구성원이 "괄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안방을 내어 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즉, 가능하면 비슷한 크기의 방을 가진 주거지를 구할 수 있다면 비교적 분배가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안방은 단지 '큰 방', 그리고 중요성을 가진다면 '크기 때문에 중요한 방'으로, 당위적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들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배당되는 곳으로 위치했다.

2. 거실 : 커뮤니티 공간 혹은 제 3 의 장소

도시 · 주거 공간의 근대적 변형에 따라 주거공간에서 일어나던 많은 일들은 집 밖으로 재배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함께살기는 이렇게 주거공간의 외부로 밀려났던 기능들을 다시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주거 평면들이 거실 중심형 평면으로 재편되던 시기에 거실은 '가정 단란'이라는 주거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된 공간이었다(서원기, 2010). 이에 점차 가족의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졌던,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어쩌다 간혹 있는' 이벤트가 되어갔던 거실을(전남일 외, 2009) 연구 참여자들은 좀 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했다. 은주는 거실 공간을 사업을 위한 회의를 여는 공간, 그리고 지역의 혼자 살고 있는 또래의 동료들을 모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주변 지역의 네트워크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서울의 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는 비혼여성 모임에 참여하고 있던 민영은, 주로 어디서 모이느냐는 질문에 근처의 야외 공원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투룸에서 혼자 사는 언니가 거실 공간을 내어주기에 그 곳에서도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실 공간을 공동체의 활동 공간으로 삼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집을 구했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그 소망이 좌절되기도 했다(정은). 정은은 집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너무 많은 일들이 집 밖의, 자본가들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주변의 비혼 커뮤니티 내에서 거실 있는 집을 가진 경우는 많지 않았기에, 많은 경우 소모임이나 친목 모임의 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소현은 청년주거협동조합에서 활동하며, 각각의 공동체 주택이 서로의 서로에게 열어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 딱 어디 모델하우스 가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그림은 최대한 안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쪽에 tv 를 놓고 tv 를 보게, 일렬로 앉아서 tv 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파를 일단, 저희는 소파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방석을 두고 둘러 앉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그 공간이 너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 열려 있는 공간,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공간, 이 공간은 나만의 공간은 아니고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공간. 여길 쓰기 위해서. <소현>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그려지는 거실 공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가구 배치와 디자인을 통해 거실이 가구원들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조합원들,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이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작동하길 바랐다.

보라의 경우에도 거실을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보라는 '셋이 같이 사는 이유가 단지 집세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동의 공간에서 '각자의 생활,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고 공부도 하고, 편안하게 여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을 원했으며, '사람들 초대하는 걸 좋아'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실을 여기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적절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데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3. 공간의 재해석과 변용

연구 참여자들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가족 내 역할에 따라 분배된 공간을 재해석해 변용하기도 했다. 수민의 경우, 친밀성의 유형에 따라서 반드시 각자 하나씩 방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으며, 대신 사용성에 따라 방을 나눠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을 구성해 살고 있었다. 안방과 거실 사이의 문을 들어내고 그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방을 '잠만 자는 공간'으로 두었다. 공간이 생긴 후 만들어진 커뮤니티로 인해 주거공간은 더 폭넓은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가 발생하는 장소가 되었고, 훨씬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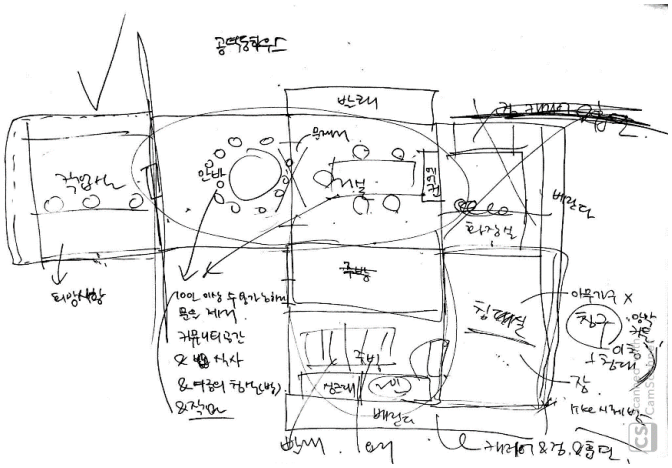


그림 17 공덕동하우스 심상 지도, <수민>

왼 편의 '작업실'은 "지금은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는" 공간

또한 수민은 남녀가 함께 공간을 사용할 경우 이것에 섹슈얼한 의미로 연결지어지는 것에도 문제제기 한다.

> 공덕동하우스 인터뷰할 때도 되게 궁금해하는 게, 그런, "혼성이 같이 방 쓰면...", 쩜쩜쩜 뒤에는 여러가지 질문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네이버 댓글같은 데 보면 그게 노골적으로 나타나죠. '눈이 맞으면 어떡하냐?' '연애하다가 헤어질 거다' '섹스는 어쩌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질문들을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중략) 왜 그러냐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에요. 다 남녀 분리된 공간에서 살다가 같이 산다고 하면, 아 동거? 섹스. 결혼? 섹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본 그런 사람들이 그 틀 그대로 저희도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공간이 그런 공간으로 경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무리없이 그냥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납득을 시키기가 국민들의 경험 자체가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수민>

수민은 분리된 채 살던 남녀가 "같이 산다고 하면" 바로 "동거? 섹스. 결혼? 섹스"와 같은 방식으로, 단박에 섹슈얼한 의미로 읽히는 것이, 남

녀가 서로 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하는 공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수민은 이처럼 서로를 성적으로 보지 않는 공간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며, 자신이 들었던 강연의 내용을 언급했다.

제 3 절 다시 만드는 '집'

"새로운 주거 디자인은 오직 새로운 생활 형식을 위한 투쟁에서 나온다"는 근대 건축가 릴리 라이히(Lilly Reich)[38]와 미스 반 데어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의 생각은, '집'을 다시 생각하는 데 있어 분명 고려할 만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함께살기는 이성애-결혼-가족이 아닌 다른 방식의 관계 맺음과, 이 같은 관계 맺음이 필요로 하는 다른 형태의 주거 공간을 상상하고 또 물리적으로 구현해 내는 힘이 되기도 한다.

1. 공간의 재구성

사적이고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유연성 없이 구획되는 가족 생활 단위의 주거공간은 특히 집 안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주부들에게 주는 고립감과 함께 과중한 육아 부담을 주어 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가족을 제외하면 주거공간 내외부를 경유해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지극히 한정적이게 하는 도시주거환경은, 그 자체로

[38] 미스의 다수 작품을 함께 한 파트너로, 주로 인테리어를 담당했다고 알려졌으나 그가 미스의 작품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재해석되고 있다(이란표, 2006).

도 문제적이지만 비혼 인구에 더더욱 문제적이다. 연구 참여자들과 가구 구성원들은, 집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일상, 비일상적 활동에 있어 기존의 공간들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해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공간의 양식을 만드는 노력을 들이기도 한다. 소현은 그 중에서도 함께 살기가 일어나는 주거공간의 거실 디자인을 재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사실 저희가, 집이니까 거실이라고 생각하지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놓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작업실, 뭐, 거기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공간이 꼭 거실이라고만 상상되지 않아도, 그냥, 텅빈 방? 그냥 텅빈 어떤, 면적? 그래서 거기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좀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된다? <소현>

소현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거실이, 티비를 앞에 두고 소파에 앉아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공간이 아니길 바랐다. 도시주택공사와 협력해 거실 공간을 구상하는 데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소현은 거실 공간이 기존의 용도를 버리고 텅 빈 공간으로서 어떤 이벤트들 일어날 수 있게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싶어 했다.

정은은 '반달'의 모임원들이 각자의 방을 갖고, 1층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하며 살 수 있는 형태의 집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정은은 현재 룸메이트인 현정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거실도 원래 모임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했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에 좌절되었다. 정은은 향후 장기적으로는 지역 거점으로서 정치적 활동이 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따로 또 함께' 사는 집을 만들고 싶어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반달 하우스를 짓고 싶단 말이에요. 반달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각자 다른 방을 쓰는 형태로

> 해서 그런 주거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데 (중략) 이제 1 층을 커뮤니티, 그냥 카페 같은 거 보다는 그냥 지역, 지역거점 운영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 이슈들을, 아젠다를 활성화할 때 쓸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략) 반달 사람들만 쓸 수 있어, 그런 배타적 공간이라기 보다는… 지역 거점이 필요해요, 정말로. 약간 모임 공간 걱정하기도 지치고. <정은>

2. 구성원 관계의 재사유

소현은 청년주거협동조합을 운영하며 공유 주택을 운영하는 기조를 만드는 데에 있어 자연스럽게 “보통 상상하는 집”과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 집을, 보통 상상하는 집이면,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아들 있고 딸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이 아닌 다른 집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 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 살아보면, 혼자 살더라도 같이 살더라도 엄마가 없으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는 엄마가 하던 일이었는데, 당연한 건 또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너무 당연하게 어떤 사람을 엄마로 만들어 버리지 말자. 엄마라는 의미가 그렇게 쓰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흔히 쓰이는 그런 엄마, 너무 당연하게 집안일을 맡기는, 주 가사 노동자로 누군가를 만들어 버리지 말자라는 고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거 같고 <소현>

근대적 공사 구분에 따른 공적 영역에서의 생산 노동은 임금을 발생시키고 쉽게 드러나는 반면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돌봄 노동(care work)는 이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집안일이나 가사노동을 포함하며 “우리의 삶과 노동을 매일같이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와 활동의 복합체(페데리치, 2013: 21, 재인용: 안숙영, 2018: 4)”이다. 이러한 노동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비가시화되기 쉽고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상이 있어, 돌봄 노동의 가시화와 사회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노동을 묵묵히 수행하던 ‘엄마’라는 존재가 부재할 때에 이 노동이 비로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공동의 주거생활을 하는 구성원들간의 비 위계적인 역할의 배분을 고민하며 가려져 있던 노동을 가시화하고 협상의 제 1 주제로 전면적으로 떠오르게 했다.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집’이 내재한 성역할과 위계, 권력 관계와 거리두기를 하며 동등한 개인들의 합으로서 ‘집’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고 있었다.

3. ‘따로 또 함께’ 살아가기를 모색하기

1 인가구를 위해 배당되는 적절한 공유 공간이 부재한 도시구조에서, 그리고 1 인가구가 단순히 결혼 전의 이행 단계로만 이해되는 상황에서, ‘함께살기’에 대한 상상력은 한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실과 화장실, 부엌을 공유하며 함께살기를 행하고 있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방식만이 함께살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일지 고민하며 ‘따로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도모하고자 하기도 했다.

> 저 혼자 사는, 혼자 사는 근데 원룸 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그런 건물? 빌딩을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런 피로도가 최대한 적게, 피로도가 최대한 적게 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모델이 있지 않을까? 저도 찾고 있죠. (중략)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자의 방을 하고, 거실을,

> 화장실을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해 봤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피로도가 있구나, 그러면 어떤 게 최적일까, 싶기도 하고. 주변에도 다, 거의 다 요즘은 대부분 비혼을 꿈꾸는 거 같은데, 다들, 비혼자 타운에 대한 그런게 있잖아요. 너가 돈 많이 벌어서 비혼 타운을 실버타운 처럼 지어라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다들 모여서 살고 싶은? 그래도 혼자 그렇게 늙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지원>

지원은 앞으로 둘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나가 다시 혼자 살아볼 계획이지만, 자신 뿐만 아니라 비혼을 말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들 '혼자 그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거실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피로도가 있었고, '어떤 게 최적'일지, 어떻게 피로도가 적은 함께살기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찾고 있다고 한다. 소현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따로 또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 최근에는 부청주(LH 부천 청년 주택) 안에서도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1인 1도어락을 쓰면서 살고 있지만 그, 나한텐 안전한 이웃이 필요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고 싶고, 내가 이 지역에 눌러 앉기 위해서는 (중략) 더 고민하고 싶고, 뭐 이런 태도들이 생겨서 저희가 또 이들을 조합원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이것을 수익 사업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됐고, 저희가 생각했던 공동주거의 개념도 좀 많이 넓어지고 있는 중인 거 같아요. 그 전에는 한 지붕 아래 세 명 네 명이 같이 살아야만 우리는 공동체고, 공유 주거를 한다, 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어 만약에 이 부청주에서 관계가 생기면 한 빌라 안에서, 오피스텔 안에서, (비비처럼), 네, 그렇게 느슨한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볼 수도 있겠다. 이것도 공동 주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소현>

소현에게 함께살기는 원래는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것이었지만, 만약에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끼리 관계가 생기고 이어진다면 그것 또한 '공동 주거라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1 인 1 도어락을 쓰고 있어도 '안전한 이웃'과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지역에 '눌러 앉기'위해서는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소현은, 원래는 조합의 수익 사업으로만 여기던 청년주택 사업도 다른 하나의 공동주거의 개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활동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전주의 비혼여성 '비비'가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각자의 집을 갖고 생활하는 것처럼 '느슨한' 공동 주거에 대한 가능성을 본 것이다.

소현은 집의 점유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자 했다.

> 집이, 한번 터 잡으면 눌러앉을, 앉아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설계하는 대로 이동해도 되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셰어하우스에 있다가, 혼자 살고 싶을 때 원룸에 있다가. 근데 그걸 다 '모두들'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혹은 커플이 지내고 싶은 집, 이런 식으로 집을 형태별로, 좀 다양한 형태로 구성 해 놓으면 그 사람이, 꼭 그 집에 들어왔으면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 못 살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살다가 나 여기 살고 싶어요, 옮기고, 또 여기 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방이 늘 하나씩 비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도 상상을 해보고 있고. 여러가지 주거 방식이나 형태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소현>

소현은 지금은 집이 일정 기간 이상의 정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곳이지만, 빈 방들을 운용하면서 입주자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며 살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5 장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함께살기를 실천하는 비혼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지금/여기의 한국 사회의 '집'의 물리적, 의미적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고 대안과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혼여성들의 다양한 함께살기 실천들이 중산층 가족, 그리고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공급과 주변화된 주거공간들의 대립 구조로 형성된 한국의 주거규범 속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떤 충돌과 갈등 상황을 겪고 (재)협상을 거치며 '집'에 대한 감각을 재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들의 실천이 나아가 주거문화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근대적 도시주거환경은 공-사의 이분법적 구획으로 이루어졌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된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 운동은 공동 취사 시설, 탁아소 등을 고안했을 뿐 아니라 일과 돌봄, 주거와 일터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적 주거 해법을 제시해 왔다. 한편 한국의 현재의 주거 환경은 주택 여과 과정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중산층 위주의 주거 공급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며, 서구 주택의 평면형이 한국적으로 수정되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족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거실 중심형 평면형이 표준화되어 왔다. 이때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정상적' 생애과정 밖에 위치한 비혼여성들의 머물 곳은, 이들의 경제적 여건과 맞물려 주로 임시의, 저급의, 1 인을 위한 곳으로 한정되었다.

비혼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과의 주거 독립을 이뤄내지만, 원룸, 민간 셰어하우스, 고시원과 같은 공간에서 '무기력함', '생산성이 떨

어짐', '우울'함을 경험하며 '방 같음'을 느끼고, '집 다운' 집을 소망하게 되었다. 이같은 '집 다움'을 감각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살기'를 실천했다. 이들은 결혼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느슨하고 가까운 친밀성을 구성해 투룸, 쓰리룸 등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함께살기는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다층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함께살기는 상징체계에서 재현되지 않는 영역에 위치하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함께살기에 대해 변명하고, 증명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종종 놓였다. 또한 결혼-가족 생활을 전제로 지어진 집의 물리적 구조가 자신들의 생활 양식, 그리고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그 형태에 맞는 주거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 제 1 의 과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한계에 이르러 함께살기를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더불어 이는 '결혼'이 아닌 방식의 함께살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활 방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족들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제도적 이점을 누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혼자 살기에도, 함께살기에도 적절한 공간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관계 맺음을 바탕으로 '집'의 감각을 달리 만들어 냈다.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또다른 가족'일 때도, '전략적 주거 공동체'일 때도, 때로 '데면데면한 동거인'일 때도 있으며 하나의 카테고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결들이 있었다. 느슨하거나 촘촘한 이들의 관계는 일률적인 공간의 양식 안에 완벽히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또한 가족에게 배당되었던 공간 구조를 재해석하여 자신들의 생활 양식에 맞게 사용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그릴 동력을 얻고 추진하기도 한다. '부부침실'의 기능을 하는 '안방'은 문제적 공간으로, '가족단란'의 공간은 주변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사용하는 비교적 열린 공간이 되기도 했다. 위계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주거 공간은 '다시 설계하고 싶은

것', '내가 직접 만들고 싶은' 것이 되기도 하며, 기존의 주거 공간의 문법을 다르게 해석해 전유하기도 했다. '그림자 노동'으로 일컫어지며 암묵적으로 여성들의 일로 여겨졌던 재생산 노동, 가사 노동은 공간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암묵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중요하게 위치했다.'집'의 전통적 의미가 가족의 생활 공간이며 공간도, 역할도 성별화되어 있었다면 이들의 함께살기는 이러한 '집'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재의미화하는 과정이었다. 한 지붕 아래에 함께 사는 것만이 '함께살기'로 여겨졌던 공동 주거의 감각도 재사유되었다.

2.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1 인가구 담론으로 쉽게 흡수되는 비혼여성들의 주거 실천을 '함께살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가족' 아니면 '1 인'으로 상상되는 인구 구성을 바탕으로 하는 주거 정책과 담론, 주거 환경이 비추지 않는 결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하다고 할 수도 있는 '비혼여성'들의 행위성을 다루고 있으나, 이들의 집 꾸리기를 통한 도시주거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국 보편적인 도시주거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비혼여성들은 헤게모니적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를 기반으로 조직된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된다. 그러나 이처럼 제도 안팎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소위 '정상가족'에게도 긍정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제도는 일단은 들어가기만 하면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인 공동체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곳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이라는 완충 공간조차 없는 비혼여성들은 가족의 영역인 '규범적 집'과, 결혼하지 않은 삶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해 내는 열악한 '1 인가구'의 이분법적인 간

극을 드러내며 페미니스트 대안적 영역을 모색해,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혼을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영역을 동시에 발굴해 나가는 가능성을 가진 실천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도시성 내에서 경험되는 비혼여성들의 주거하기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의 주거하기 경험은, 한국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부장적 젠더 질서와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도시 환경과 주거 공급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논문, 단행본 및 자료집

강미선, 장미현, 2009. 가족개념의 대안에 기반한 주거정책의 거시적 방향 제안 -'돌봄 공유'의 물리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25 NO.8 :81-90

권민지, 2018. '내 집'만들기 주거불안계급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65, 271-301.

권은경, 2015. 여성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비혼여성 전용 아파트 계획안.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권희영, 2001. 한국사의근대성연구. 백산서당.

김성희, 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학지사.

김순남, 2016. 이성애 비혼여성으로 살아가기: 지속가능한 비혼, 젠더, 친밀성. 한국여성학 32, 181-217.

김하나, 황선우, 2019.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위즈덤하우스

나영정, 2012. 주거권과 가족상황차별: 소수자 주거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월간 복지동향 46-52.

마경희, 2019. '20 대 현상' : 탈가부장 사회를 위한 도전과 갈등. 119 차 KWDI 양성평등 정책포럼 '포용, 공정과 젠더를 말하다' 발표문.

백미록, 2015. 주거 불안을 통해 본 2,30 대 비혼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미선, 2018.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서용식, 2009. (수익형 부동산의 해답) 도시형 생활주택: 대한민국의 주택 트렌드 대변혁이 시작된다!

서원기, 2010. 해방이후 거실중심형 주택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1957~1980 년 서울에 건설된 중규모 도시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송제숙, 2016. 혼자 살아가기: 비혼여성, 임대주택, 민주화 이후의 정동. 동녘

신혜경, 1995, 「여성의 역할변화를 수용하는 주거 및 도시계획」,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한울 아카데미, 1995

안숙영, 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 1-32.

전남일, 양세화, 홍형옥,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게

정민우, 이나영, 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사회 105-145.

정성훈, 2011.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Vol.41, pp. 347-377

정현주, 2016. 젠더화된 도시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구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기여와 한계 및 한국 도시지리학의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 283-300.

조민정, 2011.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거의 계획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 156-166.

질리언 로즈,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파주: 한길사.

최서아, 2018. 1 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셰어하우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하성규, 2000. 공동주택 대량공급에 따른 주거규범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 123-146.

황정임, 김은지, 2014.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 안전 인식 및 정책 수요-한부모가구 및 비혼 1 인가구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10-15.

Bowlby, S., Gregory, S., McKie, L., 1997. “Doing home”: Patriarchy, caring, and spac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Concepts of Home 20, 343-350.

Butler, Judith.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Gelezeau, V., 2007.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 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Humanit’asŭ.

Halberstam, J., 2005. In a queer time and place: Transgender bodies, subcultural lives. NYU press.

Hayden, D., 1980. “What would a non-sexist city be like? Speculations on housing, urban design, and human work”.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5, S3: S170-S187.

_____, 1982. The grand domestic revolution: A history of feminist designs for American homes, neighborhoods, and cities. mit Press.

_____, 1984,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 Work, home, and family life. New York, NY: WW Norton.

_____, 2002.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 : the future of housing, work, and family life, Rev. and expanded.. ed. New York : W.W. Norton, New York.

McDowell, L., 1992. Doing gender: feminism, feminists and research methods in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99-416.

_____, 1983.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gender division of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 59-72.

_____,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U of Minnesota Press, (번역: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연구회 역, 한울아카데미.)

McDowell, L., Massey, D., 1984. A woman's place. Geography matters 128-47.

Oldenburg, R., 1999. The great good place: Cafes, coffee shops, bookstores, bars, hair salons, and other hangouts at the heart of a community. Da Capo Press.

Saegert, Susan. 1980, "Masculine cities and feminine suburbs: Polarized ideas, contradictory realitie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5, S3. S96-S111.

West, C., Zimmerman, D.H., 1987.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1, 125-151.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1929)". In The People, Place, and Space Reader, 338-342. Routledge, 2014.

White, Naomi Rosh. 2002. "'Not Under My Roof!':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Home." Youth and Society, 34(2): 214~231.

기사 및 온라인 자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김지아, 최연수, [밀실]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 늘어나는 비혼여성공동체, 중앙일보, 2020.1.3,
https://news.joins.com/article/23671197

김지아, 최연수, 편광현,""한국남자랑 연애 안해" 20 대 여성 절반이 '탈연애' 왜”, 중앙일보, 2019.9.20.
https://news.joins.com/article/23581914

김지원, “비혼 1 인가구, ‘청년’과 ‘신혼부부’ 사이 사라진 보금자리”, 경향신문, 2019.10.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62052005&code=940100#csidxd8e9e3bf4e43280b781af88ab1f8cf3

경서, 초롱, “돈없고 집없고 가족없는 여성들의 ‘함께/살기’ 전략”, 2019. 6. 1. https://blogs.ildaro.com/3571

백희림, “비혼, 비건, 페미... 우리가 한 지붕 아래 뭉치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7.08.19.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51226&fbclid=IwAR17rD5AwvhuRKmuV5XYjkzxQwxh9ULbC41S-26U8R2yijLj4B51y_KSeLo#cb

심윤지, “최저주거기준 유명무실… ‘1 인 가구 공공임대’ 에 해법 있다”, 경향신문, 2019.1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30600015&code=940100#csidx2822d17ae44697ab3885875044422a0

_____, “안전한 집 찾자니 높은 월세 ‘불안 삼중고’”, 2019.1.14,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42137005&code=940100&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csidx8fa97a23caba49699f81d8ea2af7522

싱두, 비혼‘들’ 어떻게 같고 다른가,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https://fwdfeminist.com/2019/07/24/vol-2-2/

이윤주,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걸 보여주려고 비혼공동체 만들었죠”, 2018.11.29,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71763738044

진혜민, “‘최저가부장제’를 아시나요”, 여성신문, 2019.9.19,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089

최아름, “민간 셰어하우스 ‘8 인 1 실’ 불법 아닌 이유”, 2019.10.21, 더스쿠프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577689&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Abstract

‘Living Together’ as an Alternative Feminist Housing Strategy

– Focusing on ‘Doing Home’ Practices of Single Young Korean Women –

Shin, Yooj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hows how single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not planning to be married in the future are living together in the give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under normative spatio-temporality that constructs our time and space based on reproductive normative, and also has purpos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se ‘living together’ practices fo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ritical thinking upon how ‘single’ is often considered only as 'living alone' or 'temporary' in policy process or mainstream discourse. In other words, through examining the practice of living together by single women, this study tried to dig deeper into the attributes of ‘not living alone’ and ‘persistive’.

With the wave of feminism re-emerged in the mid-2010s, 'non-marriaged life' has not only emerged as an important political agenda among young women, but also has become the term describing many young women's lives. However, normative spatio-temporality, which is the normative structure of time / space by family, heterosexuality, and reproductive systems, makes the ‘doing home’ practices more difficult for single young women who are prone to be instable both socially and economically. Under these bad conditions, unmarried women seek ‘live separately and together’ in various ways. At this time, the ‘single women living together’ happens at the multiple levels of ① Finding the way of survival ② Making the extension of the imaginative and selectable options outside marriage system ③ Demanding and changing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reated around heterosexuality-reproduction-family.

The living together of these single women was mainly caused by chance, or in the process of actively living together as an awareness of their position as 'non-married', 'young,' and 'women'. The first place that single women gain from independence from their original family, in a system that regards unmarried life as a temporary and limited form, and i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woven around heterosexual families, is mainly studios, Kosiwon, or dormitory wher they should live with random other person. In this space, single women feel 'like a room', that is, 'like a house'. In other words, the imagination and practices of various intimacy and relationships are suppressed, and single women experience a lethargy or a lack of

productivity. Living together begins as part of a voluntary move to break this situation.

These single women who get away from the "home" of the gendered family get a "room-like" space, and want to find out what a "home-like" space is. Such "house-like" is summed up as enjoying a better living environment with respecting each other as equal individuals and not returning each other to roles. Living together is not ideal in a dense influence of normative space-time and in a living environment organized according to the logic of capital. At the symbolic level, the heterosexuality, reproductive, and family-centeredness of “houses” make it seeming that single women are constantly pushing or living together as peripheral. Material spaces do not adequately support their living together practices. In this situation, they constantly encounter and negotiate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barriers. However, single women rediscover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house' and its contents through living together. These practices can be imagined as feminist ‘doing home' through the practice of creating a crack in the existing norms and actively politicizing them at the point where they collide with the barriers as well as in the personal sphere. As such, it is meaningful to expand the physical space that supports it spatially.

Keywords : single women, living together, young women, doing home, feminist, alternative housing
Student Number : 2018-28020